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비평 이론의 관점에서 본
안티고네의 저항과 그 가능성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과

장해웅

비평 이론의 관점에서 본 안티고네의 저항과 그 가능성

지도교수 강 우 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과
장 해 응

장해응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비극 속 인물로서의 안티고네는 그간 많은 독자를 매혹해 왔다. 이에 안티고네의 크레온에 맞선 항거와 자기변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그중 이론가들이 시도해 온 독해의 역사는 안티고네의 저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그 역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헤겔 이후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은 보통 국가와 친족 구조 간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수용되었다. 한편 버틀러와 지젝에겐 안티고네가 친족 관계의 수호자라기보다는 현대의 정치적인 인물이다. 즉, 두 사람의 이론적 관심에 따라 안티고네는 현 체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불온한 정치적인 행위자로 해석된다. 이는 현대 비평 이론의 관점에서 가능한 문학 텍스트 해석의 한 관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버틀러의 안티고네는 멜랑콜릭 주체다. 폴리네이케스를 내부의 상실 대상으로 보존한 멜랑콜릭 안티고네는 전통적인 젠더 체계를 바탕으로 한 주권적 권위를 교란한다. 나아가 버틀러는 안티고네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다양한 양태의 삶들을 대변한다고 본다. 인식론적인 장인 지배적인 담론 체계 속에서도 정치적 가능성을 찾으려는 버틀러의 이론적 목표가 안티고네 해석에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지젝이 보기에 이러한 정치적인 가능성은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지젝의 안티고네는 괴물적인 존재다. 지젝은 이데올로기와 주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주체의 이데올로기 횡단을 추구한다. 라캉의 안티고네 형상에서 그 같은 횡단을 찾았던 지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버틀러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만의 안티고네를 새로이 창조한다. 소포클레스의 텍스트를 각색한 지젝은 안티고네의 법

에 대한 집착이 모든 혼란과 파국을 불러오는 과정을 그린다. 버틀러는 억압적인 ‘상징계’와 관념적인 불가능성의 ‘실재’를 상징한다고 지젝을 비판하지만, 그가 말하는 윤리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이론적 방향은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버틀러와 지젝의 해석이 남긴 지적인 유산 앞에서 『안티고네』를 다시 읽어볼 수 있다. 수행성에 대한 버틀러의 논의는 크레온의 정치적 권위 약화와 몰락의 과정을 충분히 다루지는 않고 이데올로기와 혁명적 변화에 관한 지젝의 논의는 코러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크레온과 코러스를 정치적 행위자인 안티고네로부터 파장을 받은 이로 구상해 볼 수 있다. 안티고네가 ‘맑스의 유령들’처럼 계속해서 우리 앞에 회귀하고 파장을 미칠 때 현시대의 정치적인 가능성은 더욱 가시화된다. 안티고네가 남긴 파장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어 : 안티고네, 정치성, 수행성, 멜랑콜리아, 횡단, 파장
학 번 : 2017-22544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선행연구 검토	3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과 목적	9
II. 버틀러의 안티고네	10
1. 멜랑콜릭 주체	12
2. 교란적인 안티고네	24
3. 지젝이 버틀러에게	36
III. 지젝의 안티고네	44
1. 횡단적 주체	46
2. 괴물 안티고네	58
3. 버틀러가 지젝에게	71
IV. 안티고네 다시 읽기	79
1. 버틀러와 지젝이 남긴 것	80
2. 안티고네의 파장을 받는 자들	87
V. 결론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5

I. 서론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 비극 중 하나인 『안티고네』(*Antigone*)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문학 비평가와 이론가들을 매료시켜왔다. 우선 서양 고전학적 비평에서 소포클레스의 이 비극 텍스트는 정전(政典)의 위치를 확보한 지 오래다. 서양 고전학의 비평가들은 안티고네라는 텍스트와 그 속의 인물로부터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여 하나의 아카이브를 형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결과로 켜켜이 쌓인 방대한 양의 해석들은 다루고 있는 화두, 소재, 내용, 그리고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¹⁾ 관객의 동일시(identification) 문제, 종교적 세계관, 가정과 도시 국가 등의 이분법적 구도, 국가 체계 속에서의 범죄와 저항의 문제, 삶과 죽음의 경계 등이 『안티고네』라는 텍스트를 거쳐 등장한 여러 탐구 대상들이다. 이렇듯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안티고네』라는 비극 텍스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 비극 텍스트는 다양한 이론가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헤겔(Hegel), 라캉(Lacan), 이리가레(Irigaray), 버틀러(Butler), 지젝(Žižek) 등의 이론가들은 자신의 이론적 구도에 입각하여 『안티고네』를 읽어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버틀러의 해석은 기존의 논자들을 정리하면서도 자신의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해 보이고 있다. 물론 그 해석은 그녀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버틀러는 『안티고네』라는 텍스트와 동명의 인물이 자신의 이론을 표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안티고네의 주장』(*Antigone's Claim*)²⁾은 그녀의 전기 이론³⁾을 문학적으로 집약해낸

1) 방대한 양의 자취들 가운데서도 마크 그리피스(Mark Griffith), 피터 유번(Peter Euben), 빅터 에런버그(Victor Ehrenberg), 피에르 베르낭(Jean-Pierre Vernant), 찰스 시갈(Charles Segal), 프로마 자이틀린(Froma Zeitlin), 니콜 로로(Nicole Loraux) 등의 해석들을 꼽아볼 수 있겠다.

2) Judith Butler, *Antigone's Claim: Kinship between Life and Death*,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3) 폭력적 단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틀러의 이론을 전기 이론과 후기 이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기점이 되는 텍스트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Judith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티고네』라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텍스트는 한편 주목할 만한 이론적 논쟁의 장이 되기도 했다. 다양한 이론가들이 보여주는 『안티고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이론적 쟁점들이 부딪히는 장이기도 한 것이다. 예컨대 버틀러의 해석은 헤겔,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라캉, 지젝 등이 보인 해석과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버틀러는 앞선 논자들을 비판적으로 참조하고 난 후 소포클레스의 이 비극 텍스트를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독해하는 것이다.

『안티고네』 텍스트를 둘러싼 이론적인 대립 가운데서도 특히 지젝과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는 주목할 만하다. 지젝과 버틀러는 공통적으로 안티고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읽어내고 있음에도 확연한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헤겔과 라캉을 계승한 지젝이 안티고네라는 인물을 읽어내는 방식은 버틀러의 방식과 상이한 것이다. 안티고네라는 인물이 보이는 정치성을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두 독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관계는 『안티고네』 독해 전통이 만들어낸 생산적인 지점이라 하겠다. 지젝과 버틀러 각 이론가의 『안티고네』 독해는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사유를 촉진하고 안티고네라는 인물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끔 한다.

Butler,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Fordham UP, 2005)다. 전기 이론에서 버틀러가 주체의 수행성과 정치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기 이론에서 그녀는 주체에서 타자와의 관계, 윤리의 문제로 문제의식을 확장한다.

I. 1. 문제 제기 및 선행연구 검토

그간 지젝과 버틀러 간 관계보다는 프로이트, 라캉과 버틀러의 관계가 연구 및 비교 대상이 되어 왔다. 상호 비판적 관계를 맺고 있는 프로이트 및 라캉과 버틀러는 여러 번의 주목을 받아 온 것이다.⁴⁾ 정신분석학과의 버틀러의 이러한 흥미로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젝과 버틀러라는 두 이론가의 관계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라캉과 지젝 그리고 버틀러가 공통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문학적 대상이 있다. 라캉은 『세미나 7권』⁵⁾에서 정신분석학의 윤리학을 정초하는 과정에서 『안티고네』를 적극적으로 읽어낸다. 타협 없이 자신의 욕망을 끝내 고수하는 안티고네는 라캉의 관심을 이끈다. 다음으로 버틀러는 2000년에 출간한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라캉의 검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지젝은 여러 텍스트⁶⁾에서 부분적으로 안티

4) 버틀러와 프로이트, 라캉과의 관계로는 다음의 몇 가지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안티고네를 둘러싼 비평적 쟁투」,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11권 1호, 2003, Adrian Johnston, “The Exception and the Rule”,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35, 2002, Nowell Marshall, “Refusing Butler’s Binary: Bisexuality and Performative Melancholia in Mrs. Dalloway”, *Journal of Bisexuality*, 2009, David McIvor, “Bringing Ourselves to Grief: Judith Butler and Politics of Mourning”, *Political Theory*, Vol. 40, No. 4, August 2012, Astrid Loc, “Losing Melancholia: Between Object, Fidelity, and Theory”, *Cultural Critique*, Volume 102, Winter 2019.

5) Jacques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1959–1960.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2)

6) 지젝은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Slavoj Žižek, *Enjoy your Symptom! Jacques Lacan in Hollywood and Out*.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2.), 『까다로운 주체』(Slavoj Žižek, *The Ticklish Subject: The Absent Centre of Political Ontology*. London: Verso, 1993.), 『시차적 관점』(Slavoj Žižek, *The Parallax View*. Cambridge, Mass; London: MIT Press, 2006.), 『종말의 시기에 살아가기』(Slavoj Žižek, *Living in the End Times*. London; New York: Verso. 2010.)에서 부분적으로 안티고네를 다룬 바 있다.

고네를 소환한 끝에 근래에 이르러서 자신만의 새로운 안티고네를 선보인 바 있다. 2016년에 출간한 『안티고네』(2016)⁷⁾에서 그는 새롭게 각색한 자신의 안티고네를 제시한 것이다.

지젝 스스로가 라캉의 충실한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그는 라캉과는 상당히 다른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와 버틀러의 관계는 새로운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젝은 라캉의 ‘실재’ 개념과 그의 안티고네 해석을 수용하지만, 그의 관심은 정치적인 행위자인 안티고네에게 가 있다. 라캉이 프로이트를 계승하여 개인의 욕망과 서사에 방점을 두었다면⁸⁾ 지젝은 안티고네가 열어젖혀 보이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 더욱 집중한다. 지젝의 『안티고네』 독해는 바로 그 차이를 고려할 때 비로소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와 가까워진다. 버틀러는 『안티고네』로부터 에이즈 애도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과 안티고네의 사회적인 저항을 읽어낸다. 지젝과 버틀러는 이렇듯 정치적인 안티고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는 『우발성, 헤게모니, 보편성』⁹⁾¹⁰⁾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에서 지젝과 버틀러는 양자 간의 선명한 입장 차를 구체화하기도 하지만 모두 현 체제(status quo)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젝과 버틀러의 구체적인 입장 차는 그들의 『안티고네』 독해에서보

7) Slovenj Žižek, *Antigon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6.

8) 한편 라캉의 작업이 정치적 함의를 띠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개인의 욕망 포기를 거부하라는 라캉의 『안티고네』 독해와 정신분석학의 윤리는 사회적 규범 및 담론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정예영, 「정신분석의 윤리—프로이트, 그리고 라캉」, 한국라캉과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서딩, 2014. 또한 그가 다루고 있는 칸트와 사드, 펠리니(F. Fellini)의 <8과 1/2>에 등장하는 가오리 등의 사례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지젝은 이런 라캉을 더욱 정치적으로 전유한다고 할 수 있다.

9) Judith Butler, Ernesto Laclau, Slavoj Žižek,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s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10) 국내 정식 번역본은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으로 출간되었으나 ‘contingency’의 뉘앙스와 텍스트 내 맥락을 고려해볼 때 우연성보다는 우발적인 사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 잘 드러난다. 두 이론가의 이론적 논쟁은 사실 여러 이론 텍스트들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앞서 언급한 『우발성, 헤게모니, 보편성』뿐 아니라 『문제는 몸이다』¹¹⁾¹²⁾, 『까다로운 주체』에서 두 이론가는 논쟁을 이어나갔다. 위 두 텍스트에서 논쟁의 핵심적 축이 되는 것은 ‘보편성’, ‘초월적 보편주의’, ‘실재’, ‘성차’ 등 이론적 개념이다. 두 이론가의 논쟁과 입장 차는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이론 담론인 정신분석학과 깊은 연관을 보인다. 지젝은 정신분석학으로부터 이데올로기적 환상 너머의 가능성을 보는 데 비해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금지로 인한 주체 형성과 그 주체의 멜랑콜리아적인 가능성을 논한다.

현대의 이론가인 지젝과 버틀러는 『안티고네』 속의 문학적 세계 혹은 서사 세계를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지젝과 버틀러가 보이는 상당히 다른 두 가지 판본의 『안티고네』 독해는 그들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탐험할 장이 되어 준다. 특히 지젝의 『안티고네』 각색 시도는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응답이다. 그는 『안티고네』(2016) 서론에서 버틀러의 해석을 직접 거론하고 반박한 이후 자신이 고안한 안티고네라는 형상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젝과 버틀러 혹은 버틀러와 지젝은 『안티고네』라는 비극 텍스트를 축으로 이론적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차이는 두 이론가가 주체의 정치성을 어떻게 달리 사유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지젝과 버틀러의 『안티고네』 해석과 전유는 고압적인 크레온의 권위에 저항하는 안티고네라는 주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버틀러와 지젝이 새로이 재발굴해내는 안티고네는 서양 문학에서 저항의 아이콘으로 남은

11)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12) 국내 번역본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라는 제목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젠더 트러블』 이후 몸을 담론적이거나 자유의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비판에 응답하려는 버틀러의 의도와 중의적인 뉘앙스의 원제 제목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이명호가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안티고네를 둘러싼 비판적 쟁투」(『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11권 1호, 2003.)에서 제시한 번역을 따라가고자 한다.

안티고네 형상을 이론적으로 갱신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라캉과 버틀러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지젝과 버틀러의 이론적 관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두 이론가의 안티고네로부터 정치적인 주체의 저항 가능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조망해볼 수 있는 훌륭한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한편 것처럼 매력적인 장이 존재함에도 그간 지젝과 버틀러를 비교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라캉과 버틀러 간 관계 연구는 대신 찾아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이론적 긴장 관계가 주 논의 대상이었다. 버틀러는 자신의 주요 저작들¹³⁾에서 라캉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바 있다. 이후 버틀러의 라캉 비판에 여러 라캉주의 이론가들은 응답해 왔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그러한 흔적¹⁴⁾을 익히 찾아볼 수 있다. 버틀러가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 양자 간의 비판적 관계와 그에 대한 논평은 일종의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우선 버틀러가 라캉 사후 비판하였기에 두 이론가 간의 논쟁은 벌어질 수 없었고 라캉주의 논평의 경우 버틀러의 오해 혹은 오독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다만 대립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라캉과 버틀러 혹은 지젝과 버틀러의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라 보기 힘들다. 이명호의 연구¹⁵⁾는 『안티고네』를 둘러싼 라캉과 버틀러의 해석과 양자의 입장 차를 중요하게 조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라캉과 버틀러의 프로이트에 대한 해석 차이가 『안티고네』 독해의 차이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참조 지점이 된다.

2000년대 이후 문학 비평계에서는 지젝과 버틀러의 이론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지젝은 자본주의 체계 내 급진적 주체성과 저항을 논하

13) 『젠더 트러블』(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London: Routledge, 1990.), 『문제는 몸이다』(*Bodies That Matter*, 1993.), 『안티고네의 주장』(*Antigone's Claim*, 2000.), 『우발성, 헤게모니, 보편성』(*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2000.)에서 부분적으로 안티고네를 다룬 바 있다.

14) 박선영, 「라캉과 버틀러, 위반과 전복의 담론-성정체성, 젠더 멜랑콜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 14권 1호, 2012.

15)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안티고네를 둘러싼 비판적 쟁투」,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11권 1호, 2003.

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고¹⁶⁾, 버틀러는 젠더와 퀴어 섹슈얼리티, 정체성의 문제 등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왔다.¹⁷⁾ 지젝과 버틀러의

16) 지젝을 다루고 있는 국내 학위 논문은 총 91건, 학술지 논문은 385건에 달한다. 주요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이강록,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라캉과 지젝의 이론을 중심으로」(배재대학교 박사논문, 2012), 정선희, 「콘라드 작품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읽기: 지젝의 판타지와 스펙터 개념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5), 김경빈, 「슬라보예 지젝의 무신론 신학에 대한 기독교 신학 관점에서의 응답: 성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체 이해를 중심으로」(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8)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주요 석사 학위 논문으로는 박준연, 「지젝의 들뢰즈 읽기: 『신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4), 오미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혁명적 정치의 가능성 탐구: 슬라보예 지젝의 이론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2),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4) 등이 있다. 지젝의 안티고네 독해를 다룬 연구로는 윤원준, 「안티고네, 아브라함, 그리고 괴물적 그리스도: 슬라보예 지젝이 말하는 문학과 종교 텍스트 속의 정치-윤리적 주체」(『문학과 종교』, 21권 4호, 2016)가 있겠다.

17) 버틀러를 다루고 있는 국내 학위 논문은 총 57건, 학술지 논문은 170건에 달한다. 주요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환상적 젠더 정체성과 안젤라 카터의 『서커스의 밤』 연구」(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1), 서성옥, 「주디스 버틀러의 퀴어 이론과 토니 모리슨의 『술라』 연구」(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1), 이지영,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의 젠더 페러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4), 이영희, 「여성의 멜랑콜리 시 의식이 구현하는 언술구조 연구: 김승희, 최승자,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15)를 꼽아볼 수 있다. 주요 석사 학위 논문으로는 전해은, 「여성의 몸에서 섹스화된 몸으로: 엘리자베스 그로즈와 주디스 버틀러의 육체적 페미니즘」(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 유민석, 「혐오발언에 관한 담화행위이론적 연구」(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5), 남웅, 「젠더 재현에 관한 비판적 연구-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2), 오지영,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을 통해서 본 주체의 가능성 연구」(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학술 논문으로는 임옥희, 조현준, 이현재, 이택광, 윤조원, 전해은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초기에는 젠더와 퀴어 이론가로서의 버틀러가 강조되었다면 근래 들어서는 버틀러의 주체론이나 타자와 윤리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버틀러의 안티고네에 대한 중요한 국내 연구로는 조현준, 「안티고네: 송고미에서 퀴어 주체로」(『

이론에 대한 검토나 적용을 시도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주목할 만한 ‘아카이브(archive)’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이론가의 상호비판적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¹⁸⁾ 두 사람의 이론을 펼쳐 보이거나, 문학과 영화 텍스트, 사회나 역사 분석을 위해 두 사람을 다소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비평계에 버틀러와 지젝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시기가 21세기 초 중반의 일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흐름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두 이론가의 논의를 이해하고 문학과 영화 등의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 주 과제였던 셈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지젝과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좋은 텍스트가 된다. 버틀러의 『안티고네의 주장』은 라캉을 비롯한 이론가들의 논의를 되짚고 자신만의 정치적 주체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지젝의 『안티고네』(2016) 텍스트는 소포클레스의 고전 비극 텍스트의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양자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지젝과 버틀러 그리고 버틀러와 지젝은 『안티고네』를 특정한 방식으로 읽어냈고 이는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주체나 순간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적 지점을 드러낸다. 요컨대, 지젝과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 및 전유는 새로운 안티고네 해석을 위한 증상적 독해를 촉발한다고 할 수 있다.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8권 2호, 2006)와 동일 저자의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버틀러의 『안티고네』 다시 읽기」(『비평과 이론』, 제 24권 2호, 2019)를 꼽아볼 수 있다.

18) 현대정치철학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지젝과 버틀러를 구분한 다음과 같은 시도는 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 에디투스, 2019.

I.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과 목적

지젝과 버틀러의 비극 텍스트 『안티고네』에 대한 상이한 독해를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버틀러의 『안티고네의 주장』, 『젠더 허물기』¹⁹⁾와 지젝의 『안티고네』(2016)를 거치며 두 이론가의 해석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두 텍스트는 문학 텍스트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젝이나 버틀러 모두에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로 안티고네라는 형상은 두 텍스트 모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2장에서는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를, 3장에서는 지젝의 안티고네 독해를 차례대로 다루고자 한다. 2장과 3장은 상호 대비를 이루며 지젝과 버틀러의 상이한 『안티고네』 독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드러나는 것은 지젝과 버틀러가 말하는 정치적 가능성일 것이다. 버틀러와 지젝은 정신분석학을 중요하게 참조한다. 지젝에게 있어 중요한 이론적 스승이 라캉이라면, 버틀러는 프로이트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두 『안티고네』 독해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인 가능성 모색은 라캉과 프로이트를 짝게 참조한 것이다. 일례로 지젝의 ‘행위(act)’와 버틀러의 ‘수행성(performativity)’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 또한 정신분석학의 영향 아래 있다. 이에 정신분석학을 참조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두 이론가의 이론적 전개가 2장과 3장의 초반부에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2장과 3장의 후반부에서는 상당히 다른 이론적 전개가 어떻게 『안티고네』 독해로 이어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두 이론가 간의 이론적 긴장 관계가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버틀러와 지젝이라는 두 이론가의 『안티고네』 독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안티고네라는 주체의 면모를 부각해보고자 할 것이다. 2장과 3장에서의 작업이 각 이론가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안티고네』 독해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면, 4장에선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안티고네』 독해에서 더 나아가고자

19)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New York/London: Routledge, 2004.

한다. 지젝과 버틀러는 정치성을 중심으로 안티고네를 특정한 방식으로 독해했다. 그렇다면 그 연장 선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과장을 남긴 안티고네를 조명하고자 한다. 지젝과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는 정치적 주체에 대한 사유를 촉진한다. 정치적인 주체인 안티고네가 보여주는 가매장 행위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그녀의 완강함은 안티고네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게 한다. 결국, 지젝과 버틀러의 『안티고네』를 둘러싼 논의의 줄을 이어 『안티고네』를 새로이 읽어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 버틀러의 안티고네

버틀러는 지젝과 비슷한 시기에 『젠더 트러블』로 자신의 이론적 입지를 확보한 이후 여러 문학과 영화 텍스트들²⁰⁾에 관심을 기울여온 바 있다. 그중에서도 그녀가 주목할 만한 관심을 보인 것은 『안티고네』 텍스트이다. 그녀는 안티고네로부터 자신의 이론적 관심사와 목표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안티고네의 주장』과 『젠더 허물기』는 버틀러의 『안티고네』 해석의 추이를 잘 보여주는 두 텍스트다. 여러 텍스트²¹⁾에서 버틀러가 보

20) 버틀러는 현실 속이나 매체 속 대상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녀가 관심을 보인 대상들로는 카프카 작품들(법 앞에서 기다리는 인물과 형벌 기계를 통과하는 인물), 에르퀼린 바뵁, 윌라 캐더나 넬라 라슨의 소설들, 그리고 제니 리빙스턴의 <파리 이즈 버닝>(Paris is Burning) 등이 있다.

21) 두 텍스트 외에도 버틀러는 안티고네 형상을 계속하여 소환해낸다.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라캉, 헤겔 등의 이론가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안티고네를 조명했다면, 『위태로운 삶』(Precarious Life)에 이르러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안티고네를 보고 있다. 국가나 세계 질서에서 친구/적의 구분이 불려오는 애도(불)가능성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인간주의의 함의를 묻기 위해 안티고네를 거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틀』(Frames of War)에서 버틀러는 영웅적 개인으로서의 안티고네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그녀는 안티고네의 영웅성과 단독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타자와의 관계성이

여준 안티고네 형상에 대한 괄목할 만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그녀의 이론적 관심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버틀러는 『안티고네』 텍스트에서 어떠한 정치적 주체의 모습을 찾아내는가 하면 안티고네라는 인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론적인 수정을 꾀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는 문학 텍스트와 이론 텍스트 간의 흥미로운 영향 관계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버틀러는 안티고네를 멜랑콜릭 주체(melancholic subject)²²⁾로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프로이트를 참조해 성적인 주체가 멜랑콜릭 주체로 형성된다고 본다. 버틀러가 푸코와 데리다를 참조해 구체화한 반복적 수행과 담론 속의 저항 또한 기본적으로는 그녀의 멜랑콜릭 주체 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안티고네』 텍스트는 버틀러의 이론적 지형도에서 전환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처음으로 소포클레스의 비극 텍스트를 다룬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그녀는 폴리네이케스(Polyneices)가 제대로 애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안티고네』는 버틀러가 관심을 확장하여 귀어뿐 아니라 여러 양태 소수자의 불안정하고 위태한 위치를 논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버틀러의 정치적 주체인 멜랑콜릭 주체의 형성을 되짚어 보고 그러한 주체가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고네를 멜랑콜릭 주체로 바라보는 버틀러에 대한 지젝의 비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버틀러의 안티고네에 대한 관심의 추이를 잘 정리한 텍스트로는 보니 호닉(B. Honig)의 『중단된, 안티고네』(*Antigone, Interrup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41-56.)가 있다. 다만 『안티고네의 주장』과 『젠더 허물기』에서 지젝과의 차이 및 쟁점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22) 정신의학적인 담론 체계 속의 ‘우울증(depression)’과의 확연한 구분을 위해 프로이트가 제시한 ‘멜랑콜리아(melancholia)’는 원어대로 표기할 것임을 밝힌다.

1. 멜랑콜릭 주체

버틀러는 『젠더 트리플』 이후 꾸준히 퀴어(queer)를 비롯한 주체의 형성 과정과 여러 소수자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심혈을 기울여 왔다.²³⁾ 버틀러의 핵심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행성(performativity)’, ‘재의미화(resignification)’, ‘젠더 멜랑콜리아(gender melancholia)’ 등은 그러한 이론적 탐구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젠더 멜랑콜리아’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위한 개념이다. 버틀러의 ‘멜랑콜리아’는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론을 새롭게 재해석한 것으로 그녀는 프로이트를 중요한 참조 지점으로 삼고 있다. 『안티고네』 독해에서도 버틀러는 안티고네를 멜랑콜릭 주체로 바라보는 만큼 버틀러가 주체 형성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버틀러가 참조하고 있는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론은 1917년 간행된 에세이인 「애도와 멜랑콜리아」²⁴⁾와 이후 발표한 『에고와 이드』²⁵⁾ 두 텍스트에서 개진된다. 먼저 「애도와 멜랑콜리아」에서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아를 확고히 구분하고 있다. 대상의 상실 후 리비도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애도라면, 리비도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멜랑콜리아다. 특히 프로이트는 멜랑콜리아에서의 자기 비하와 처벌 양상에 주목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즐길 수 있는 멜랑콜리아의 자신을 괴롭히는 메커니즘은 강박 신경증에 상응하는 현상들처럼 어떤 대상과 결부되

23)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서로는 다음을 참고.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24) Sigmund Freud, trans. James Starchy, “Mourning and Melancholia”, *On the History of the Psychoanalytic Movement, Papers on Metapsychology and Other Work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The Hogarth Press, 1975. (originally published in 1917.)

25) Sigmund Freud, trans. Joan Riviere, ed. James Starchy, *The Ego and The Id*, New York: Norton, 1960. (originally published in 1923.)

는 증오와 사디즘 경향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디즘과 증오는 우리가 논의한 대로 주체 그 자신에 되돌아온 것이다. 두 증세 모두에서 환자는 보통 자기 처벌의 순환 구조를 통해 원래의 대상에 복수하고 그들의 병증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지하면 환자의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어찌 됐건 환자의 정서적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계기이자 환자 증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보통 그의 근처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멜랑콜릭 주체의 대상과 관련된 성애적인(erotic) 리비도 투자는 이중적인 변천을 보인다. 투자된 성애적 리비도의 일부는 (자기) 동일시로 퇴행하고, 나머지는 양가감정으로 인한 갈등의 영향으로 그 갈등에 더욱 인접한 사디즘의 단계로 보내진다.²⁶⁾

멜랑콜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자주 드러난다. 프로이트는 원래 대상을 향하던 증오와 사디즘이 주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말한다. 자기 처벌적 증세를 보이는 주체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공개적인 원망이나 증오를 퍼붓는 대신 자기 자신을 처벌함으로써 복수를 완수한다는 것이다. 보통 문제가 되는 대상은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그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감은 억압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멜랑콜리아의 자기 처벌적 증상을 사디즘 충동이 대상을 향해 가지 않고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으로 해명하고 있다. 또한, 후기 프로이트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구분해 후자를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애도와 멜랑콜리아」에서는 아직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²⁷⁾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처벌적인 양상을 보이는 멜랑콜리아가 상실 대상과 주체의 합체 과정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프로이트는 멜랑콜리아가 주체와 상실 대상의 합체를 불러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리비도는

26) “Mourning and Melancholia”, pp. 251-2.

27) 후기 프로이트의 마조히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Sigmund Freud, trans. James Starcky, “The Economic Problem of Masochism”, *The Ego and The Id and Other Work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The Hogarth Press, 1975. (originally published in 1924.)

명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고 포기된 대상과 자아의 동일시를 형성하는 데 공헌한다. 그러므로 대상의 그림자(표상)가 자아에 드리우게 되고 자아는 이후로 특별한 작용으로 마치 상실한 대상인 것처럼 간주된다.”²⁸⁾고 보는 프로이트는 멜랑콜릭 주체가 상실 대상과의 동일시와 합체를 통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멜랑콜리아로 인한 주체의 변이에 주목하고는 이를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새로 쓰고자 한다. 버틀러는 “이성애적인 구도 내 젠더 형성 과정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멜랑콜릭 부인과 보존”²⁹⁾의 메커니즘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그 작업을 위해 먼저 『에고와 이드』에서 나타난 프로이트의 관점 변화를 지적한다. 「애도와 멜랑콜리아」에서 애도와 멜랑콜리아가 명확히 구분되었다면 『에고와 이드』에 이르러 프로이트는 멜랑콜리아를 근원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버틀러는 이를 성적인 주체 형성의 중요한 실마리로 삼는다.

이 초기의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대상으로부터의 리비도 투자 철회이자 새로운 대상에 대한 성공적인 리비도 흐름의 이행으로 애도를 이해한다. 그러나 『에고와 이드』에서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아 간 구분을 수정해 멜랑콜리아와 연관된 동일시 절차야말로 “이드가 그것의 대상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멜랑콜리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실한 대상과의 동일시는 애도 작업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원래 상반된 것으로 여겨지던 두 절차(애도와 멜랑콜리)는 이제 상실한 대상에 대한 슬픔을 처리하는 절차의 상호 연관적이고 통합적인 국면들로 이해된다. 그의 후기 견해에서 프로이트는 상실의 내면화가 보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자아가 (상실한) 대상의 특징들을 취하게 되면 자아는 말하자면 이드의 상실에 대해 자기 자신을 강요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길 봐. 너는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그 (상실한) 대상과 비슷하잖아.’”³⁰⁾ 엄밀히 말해서 대상의 포기는 리비도 투자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비도의 내면화(internalization)로 이어지며 그리하여

28) “Mourning and Melancholia”, pp. 249.

29) *Gender Trouble*, pp. 78.

30) *The Ego and The Id*, pp. 19–20.

리비도는 (주체의 내부에) 보존된다.³¹⁾

버틀러는 이드가 멜랑콜리아 절차를 거쳐 원초적 대상을 포기하게 된다는 프로이트 후기의 견해에 초점을 맞춘다. 프로이트는 『에고와 이드』에서 이드가 취하고자 하는 대상의 포기가 주체의 자아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 버틀러는 따라서 주체가 포기해야 하는 원초적인 대상에 주체가 대처하기 위해 멜랑콜리아 절차를 겪고 그에 따른 상실한 대상과의 동일시가 이뤄진다고 정리한다. 상실한 대상을 향하던 리비도는 주체의 내면에 보존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가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원초적인 대상은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에고와 이드』에서 원초적 대상인 부모를 거쳐 주체 내면에 도덕적 행위성(moral agency)이 새겨지는 과정을 묘사한다. 다시 말해 그는 주체의 도덕적인 행위를 관장하는 ‘자아 이상(ego ideal)’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초적 사랑의 대상으로 금지된 부모가 내면화되며 초자아와 자아 이상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요컨대 버틀러는 “자아 이상의 금지적인 기능이 그래서 부모에 대한 욕망의 표현을 금지하거나 억압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이 보존되는 주체의 내적 공간을 형성하는”³²⁾ 멜랑콜리아의 이중적인 상실/보존을 논한다. 멜랑콜리아는 주체 형성의 기반이자 도덕적 주체의 탄생을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버틀러는 원초적 대상으로서의 부모를 포기하게 되는 멜랑콜리아 절차가 성적인 주체의 형성을 불러온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그녀는 프로이트를 부분적으로 비판하며 수용한다. 프로이트는 근원적인 양성성(bisexuality)에서 출발한 주체가 부모라는 사랑 대상을 포기하라는 근친 금기(incest taboo)를 받아들이며 이성애적 주체로 탄생한다고 본다. “아이가 자신과 이성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동성인 부모와 동일시를 이루는 오이디푸스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성애적 근친상간의 금기에서 비롯되었다”³³⁾는 것이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이러한 도식이 이성애적인 것으

31) *Gender Trouble*, pp. 84.

32) *Gender Trouble*, pp. 85.

33) 김지영, 「버틀러와 여성」, 『여성학 연구』, Vol. 18, No.1, 2008, pp. 128.

로 동성애 금지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근원적인 양성성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디까지나 이성의 성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³⁴⁾ 버틀러는 프로이트가 근친 금지 이전의 동성애적 금기를 간과했다고 말한다.

프로이트가 명시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금기는 이성애적 근친 금기에 선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에 대한 금기는 사실상 오이디푸스적인 갈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애적 기질을 창조한다. 근친적이고 이성애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이디푸스적인 (가족) 드라마에 진입한 어린 소년이나 소녀는 그들을 뚜렷한 성적 방향의 기질을 가지게 하는 금기에 이미 종속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프로이트가 성적 생활의 원초적이거나 구성적인 사실이라고 추정한 기질은 내면화되어 (본디) 별개인 젠더 정체성과 이성애를 생산하고 규제하는 법의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³⁵⁾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과정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근친적 욕망에 대한 금기이다. 이 금기를 수용한 주체는 이성애적 기질을 지닌 성적인 주체로 자라나게 된다. 하지만 버틀러가 보기에 근친 금지보다 앞서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금기이다. 즉, 근친에 대한 금기 이전에 이성애적인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규제하는 법의 효과가 주체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젠더에 사회적이고 담론적인 차원을 덧붙인 사유의 실험을 개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그녀는 “이성애적 젠더 규범의 형성 자체에 우울증적 배제와 합체의 과정이 작용한다는”³⁶⁾ 견해를 정립한다. 동성애에 대한 금기로 인해 포기되어야만 했던 동성 대상은 이성애적 주체와 합쳐져 내부에 남게 되는 것이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전유하여 도덕적이자 성적인 주체가 멜랑콜리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버틀러가 이론화한 멜랑콜릭적 동일

34) *Gender Trouble*, pp. 82.

35) *Gender Trouble*, pp. 87.

36) 남웅, 「젠더 재현에 관한 비판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35.

시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이성애와 동성애는 대립하는 항이 아니라 미묘한 관계로 얽히게 된다. “이성애가 동성애를, 동성애가 이성애를 불완전하게 합체하고 있는 것처럼 남성성은 여성성을, 여성성은 남성성을 우울증의 방식으로 내면화”³⁷⁾하게 되는 것이다. 버틀러의 멜랑콜릭 주체관은 사회적인 권력이 주체에 내면화되는 방식을 사유한다는 점에 있어 이론적 중요성을 지닌다. 주체는 사회문화적인 금기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지만 금지된 대상과의 동일시로 인하여 금지를 부정적인 형태로 내면화하고 있게 된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에서 푸코의 억압 가설 비판을 언급하며 이미 존재하는 원초적 욕망이 이후 법과 도덕에 의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법과 금기의 생산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³⁸⁾

버틀러의 정치적 기획은 법과 금기를 바탕으로 하는 멜랑콜릭 주체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녀를 대표하는 개념인 ‘수행성(performativity)’은 비교적 자유로운 수행(performance)이 아니라 규제적인 담론 하에서의 반복을 이르는 것이며³⁹⁾, 그러한 반복이 전복적 잠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멜랑콜릭 주체가 금지된 대상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버틀러에게 있어 이렇듯 중차대한 멜랑콜릭 주체는 이후 그녀의 저작들에서 계속해서 등장한다. 버틀러는 『문제는 몸이다』의 서론에서 “적절한 ‘성(sex)’의 영역에서부터 배제되고 추방된 것이” 어떻게 “신체

37) 조현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9권 1호, 2001, pp. 197.

38) *Gender Trouble*, pp. 88-9.

39) 버틀러의 ‘수행성’과 ‘행위성(agency)’에 대한 여러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서유경, 「버틀러의 ‘수행성 정치’ 이론의 정치학적 공헌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제 19집 2호, 2011. 오지영,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을 통해 본 주체의 가능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조주영,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 25권 4호, 2014. 조주영, 「인정의 정치—윤리학—호네프와 버틀러의 인정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전해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19권 2호, 2011. Geoff Boucher, “The Politics of Performativity: A Critique of Judith Butler”, *Parrhesia*, Number 1, 2006.

들이 의미를 띠게 되는 상징적 지평선의 급진적 재절합(radical rearticulation)의 계기이자 (새로운 의미화를) 가능하게 하는 분열(enabling disruption)”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보고자 한다고 밝힌다.⁴⁰⁾ 버틀러에게 이성애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추방되었던 퀴어적인 대상들(queer objects)은 강제된 상실 대상이다. 버틀러는 이 상실된 대상으로부터 신체를 규제하는 담론 체계의 분열과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⁴¹⁾

멜랑콜릭 주체가 상실한 대상으로부터 정치적 가능성을 읽어내는 버틀러는 배제되어 결코 애도하지 못했지만 동일시 과정을 거쳐 주체 내부에 보존된 주체 내부의 대상을 다시금 강조한다. 규범적인 이성애의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를 형성하는 여러 욕망의 양태는 애도의 문제와 결부된다.

오히려 이러한 욕망들은 애초부터 금지된다. 그리고 이 욕망들은 검열의 눈을 피해 불가능성의 표지를 지니고 나타나는데 이는 달리 말하자면 가능성 내의 불가능성을 상연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것들은 공개적으로 애도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욕망은 (선택을 강조하는 공식인) 애도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동성애적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문화적인 애도 절차가 부재하여 그 가능성이 미리 차단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 (가능성의) 부재야말로 일상적인 이성애적 남성성과 여성성이 스스로를 확신하게 되는 과장된 동일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성애적 멜랑콜리의 문화를 생산한다.⁴²⁾

버틀러는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한 애착이 과도한 동일시로 이어진다고 본다. 사랑하지도 애도하지도 않은 금지된 대상과의 과도한 동일시는 이성애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확립시킨다. 하지만 금지된 욕망이

40) *Bodies That Matter*, pp. xxx.

41)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버틀러의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Valerie Hey, “The Politics of Performative Resignification: Translating Judith Butler’s Theoretical Discourse and Its Potential for a Sociology of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7 No. 4, 2006.

42) *Bodies That Matter*, pp. 180.

가능성 내의 불가능성으로서 상연될 때가 있다. 버틀러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 내 불가능성을 전복적인 수행성의 가능 조건으로 본다. 법과 문화적 담론으로 규제되어 금지된 것의 등장은 기존 의미 체계의 재구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⁴³⁾

이러한 버틀러의 멜랑콜릭 주체는 몇 가지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우선 비이성애적인 퀴어가 결코 온전히 배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성애적 주체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녀의 주장은 퀴어를 의미화하려는 시도이다. 지배적 담론의 규제로 사회적 의미를 박탈당한 퀴어 섹슈얼리티는 버틀러에게 있어 오히려 주체에게 지울 수 없는 불가능성으로 남게 된다. 다음으로 버틀러의 이론은 퀴어를 이론화하는 동시에 좀 더 보편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버틀러는 사회적인 우울에 시달리는 소수자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보편적인 주체의 정체성과 인간의 조건을 되묻는다. 멜랑콜리아를 정체성 형성 과정을 해명할 도식으로 삼으면 “인간성(humanity)이라는 관념 그 자체와 그것의 급진적인 우발성과 취약성을 계속해서 재해석할”⁴⁴⁾ 수 있게 된다. 애초부터 금지되어 배제된 대상은 안정적인 주체가 재해석될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사회적 주체의 형성을 말한다면 버틀러는 이 과정의 은폐되어 있던 금기를 폭로하는 정치적인 작업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버틀러의 이론적 시도는 리비도와 섹슈얼리티 형성의 과정에 “역사와 권력을 새기는”⁴⁵⁾ 작업을 수행한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식되던 주체 형성 과정에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폭로하는 그녀의 이론은 지배 권력에 맞서는 저항 담론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한편으로 멜랑콜릭 주체를 기반으로 한 버틀러의 이론의 한계점들을 제기하고자 시도해 볼 수 있다. 버틀러에 따르면 금지된 성적인 대상을 내면화한 멜랑콜릭 주체는 반복 끝에 권력의 의도와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

43) *Bodies That Matter*, pp. 185.

44) Graziella Durante, “The Melancholy of Social Life: The Power of Loss in J. Butler”, *Humana Mente*, Issue 12, 2010, pp. 120.

45)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안티고네를 둘러싼 비평적 쟁투」, 『영미문학페미니즘』, 제 11권 1호, 2003. pp. 206.

는 수행적 가능성을 통해 상징 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버틀러의 입론은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효과 속의 주체라기보다 개인적인 정신적 차원의 해명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볼 수 있다. 『권력의 정신적 삶』⁴⁶⁾에서 버틀러는 이데올로기 호명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도 핵심이 되는 것은 주체 내면에 형성된 양심이다.⁴⁷⁾ ‘멜랑콜릭 주체’ 개념을 통한 주체의 내적 지형도는 중요하지만, 주체가 이데올로기적인 사회화 과정 후에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피에르 마슈레(P. Macherey)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버틀러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호명을 따르는 양심적 주체를 받아들이며 권력이 행사하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⁴⁸⁾

따라서 주체 내부의 역동적인 과정이 어떻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버틀러의 주체론은 그녀가 전제하는 동성애 금기를 바탕으로 한 섹슈얼리티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버틀러의 도식은 이성애적 정상 주체와 동성애적 이상 주체의 경계를 흐리고자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녀는 더욱 다양한 섹슈얼리티⁴⁹⁾, 그리고 성적인 실천을 포용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및 복종

46) Judith Butler,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1997.

47) Ibid, pp. 106-131.

48) Pierre Macherey, Trans. Jason Smith, “Out of Melancholia: Notes on Judith Butler’s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Rethinking Marxism*, Vol. 6 Number. 1, 2004, pp. 17.

49) 버틀러는 사라 아메드와 진행한 인터뷰(Sarah Ahmed, “Interview with Judith Butler”, *Sexualities*, Vol. 19(4), 2016, pp. 482-492.)에서 자신의 이론이 남과 여 중 한쪽에 속하기를 선택한 간성(intersex)을 간과했음을 인정한다. 마셜(Nowell Marshall)은 버틀러의 멜랑콜리아 주체론이 양성애적 위치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규범적인 젠더를 상실한 이상적 대상으로 하는 ‘수행적 멜랑콜리아(performative melancholia)’를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서 읽어낸다. (“Refusing Butler’s Binary: Bisexuality and Performative Melancholia in *Mrs. Dalloway*”, *Journal of Bisexuality*, Vol. 9, 2009, pp. 317-41.)

화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버틀러의 이론에서 사회적이고 문명적인 금기를 받아들인 주체가 그에 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뚜렷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 멜랑콜리아를 거쳐 형성된 주체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증과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 충동⁵⁰⁾과 연관 있는 초자아를 확립한다. 버틀러는 이드적 충동을 억누르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간다는 프로이트의 주체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주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버틀러의 이론적 작업은 복잡하고 양가적인 주체에게 가능한 여지를 밝히는 작업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 답론 체계 내 양심적인 주체의 반복적인 행위가 그 체계의 재편을 불러온다는 것은 다소 개인적인 차원의 미학화⁵¹⁾는 아닐까?⁵²⁾

그렇기에 버틀러의 이론은 크게 두 이론적 입장에서의 비판을 직면하게 된다. 우선 버틀러가 정신분석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프로이트와 라캉주의의 비판을 찾아볼 수 있다. 아스트리드 락(Astrid Lac)은 “멜랑콜리아라는 개념을 통해 정치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분리를 해제하려는 프로젝트는 어떤 중요한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what crucial steps make up the project of undoing the separation of the political and the psychic through the concept of melancholia)”⁵³⁾ 버틀러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락은 원초적 이드가 잘 드러나는 ‘일차적 과정(primary process)’이 구체적인 역사에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고는⁵⁴⁾ 정신분석학을 수용한 버틀러 이론 내

50) 버틀러와 죽음 충동의 관계에 대한 해명으로는 다음을 참고. Jin Sook Kim, “Performing Gender and the Death Drive”, 『종교와 문화』, 제 27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2014, pp. 119-145.

51) 정치와 미학과의 관계의 가능성을 탐구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이성민, 「정치와 미학」, 『정치와 평론』, 제 8집, 2015.

52) 버틀러의 논의가 주체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은 다음을 참조할 것. Veronica Vasterling, *The Psyche and the social—Judith Butler’s Politicizing of Psychoanalytical Theory, Sexuality and psychoanalysis: Philosophical Criticisms*, 2010, pp. 171-181.

53) Astrid Lac, “Losing Melancholia: Between Object, Fidelity, and Theory”, *Cultural Critique*, Vol. 102, 2019, pp. 17.

54) Ibid, pp. 18.

의 혼란을 지적한다. 버틀리가 프로이트가 말하는 ‘폐제(foreclosure)’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락은 지적한다. 상징계와 욕망과 관련된 억압(repression)을 폐제와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⁵⁵⁾ 그러나 락의 이 첫 번째 논점은 뿌리 깊은 이성애 중심적인 역사성을 정신분석학에 도입하려는 버틀러의 시도를 원론적으로 비판한 것에 가깝다. 즉, 버틀러의 그러한 시도에 대한 농밀한 비판적 응답이라 보기는 힘든 것이다. 대신 버틀러의 멜랑콜릭 주체와 그에서 기인하는 정치학에 대해 락이 던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엔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하게는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버틀러는 동성애적 사랑의 소중한 주변성(the precious marginality)에 의지할 뿐 아니라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버틀러의 이론은 동성애적 욕망을 푸코가 말한 억압 가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버틀러의 이론은 이성애의 복잡성을 무모하게 환원하는 시도는 아닌가? 간략히 말해 동성애적 사랑은 구조적인 특이성(singularity)과 정치적인 반복 가능성(iterability) 사이에서 요동치도록 강제된다. 이 대립은 보편적인 구조와 개별적인 정치학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버틀러가 이성애적 권력과 동성애적 사랑이라는 이분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따라 모든 용어는 퀴어 용어로 전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적인 엄밀함과 정치적인 시급함(exigency) 사이의 교착 상태일 수 있지 않을까?⁵⁶⁾

버틀러의 이론은 동성애 금기를 원초적인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동성애적 욕망을 억압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이성애적인 욕망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락의 비판이다. 그녀에 따르면 버틀러 이론의 중심이라고 할 동성애적 욕망과 사랑은 이성애적 권력과 동성애적 사랑이라는 다소 성급한 구도를 불러온다. 락의 비판대로 라면 버틀러의 이론은 정치적인 시급함 앞에서 세밀한 이론적 엄밀성을 놓친 것처럼 보인다.⁵⁷⁾

55) Ibid, pp. 18-9.

56) “Losing Melancholia”, pp. 26.

57) 다른 한편 버틀러의 주체론을 라캉의 이론에 비추어보며 그 한계를 검토한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고. Terada Randall, “Subjective Dispossession and Object

네오 맑시즘과 포스트 맑시즘 등 현대의 맑스주의 학파에서의 버틀러 비판⁵⁸⁾도 존재한다. 맑스주의에서의 비판은 특히 자본주의 역사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컨대 낸시 프레이저(N. Fraser)는 버틀러가 자신의 재분배/재인식 틀에 가한 비판을 반박하고 버틀러의 접근 방식을 비판한다. 프레이저는 이성애적 강제와 성적 규제가 경제적인 차별을 내포한다는 버틀러의 주장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보인 바 있는 젠더 중심주의를 읽는다. 프레이저 비판의 핵심은 자본주의 체계는 이미 고도로 발달하여 친족 체계와 주체의 섹슈얼리티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포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⁹⁾ 이성애적인 사회에 대한 투쟁이 단지 문화적인 것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의 ‘작동 가능성(workability)’을 위협한다는 버틀러의 주장은 프레이저에 의해 반박된다. 프레이저는 몇몇 기업들의 퀴어 친화적인 행보를 예로 들며 퀴어 운동은 경제적 분배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려는 목적을 띠고 주장한다.⁶⁰⁾ 이를테면 맑스주의자 프레이저는 버틀러가 논하는 이성애적 사회에 대한 저항이 국가가 기업, 학교 등의 기구들이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작동과 그것의 역사적 변화를 세밀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⁶¹⁾

이같이 여러 비판에 직면한 버틀러는 어떠한 응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버틀러는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이론적 논의가 지닐 수 있는 파급력을 구체적인 맥락과 연결해 보인 바 있다.⁶²⁾ 멜랑콜릭 주체의 반복적 수행에 따

A: “A Critique of Judith Butler’s Relational Ontology from a Lancanian Perspective”, Yor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58) 주목해볼 만한 비판으로는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최원, 『라캉 또는 알튀세르』, 난장, 2016, pp. 258-76. Geoff Boucher, “The Politics of Performativity: A Critique of Judith Butler”, *Parrhesia*, Number 1, 2006. Nancy Fraser, “Heterosexism, Misrecognition, and Capitalism: A Response to Judith Butler”, *Fortunes of Feminism: From State-managed Capitalism to Neo-liberal Crisis*, Verso, 2013.

59) “Heterosexism, Misrecognition, and Capitalism”, pp. 181.

60) “Heterosexism, Misrecognition, and Capitalism”, pp. 182-3.

61) 그와 같이 페미니즘의 내부적 논쟁의 흐름 속에서 버틀러를 고려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윤조원,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제 17권 1호, 2009.

른 이성애 중심적 상징체계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버틀러의 이론적 작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살펴보았듯 여러 비판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버틀러의 시선을 사로잡은 대상은 바로 안티고네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의 주인공인 안티고네는 버틀러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치학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이다. 그리고 안티고네는 단지 버틀러의 이론을 위한 배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버틀러에게 있어 중요한 이론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를 검토하는 작업은 그녀 이론의 한계로 거론된 바를 다시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것이다.

2. 교란적인 안티고네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처음으로 안티고네 형상을 집중 조명하게 된다.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버틀러는 안티고네라는 인물에 대한 그간의 해석에 의문을 표한다. 그중에서도 헤겔, 라캉, 이리가레와 같은 이론가들은 안티고네를 영웅 혹은 투사로 추대해 온 바 있다. 헤겔은 안티고네를 “누이, 어머니, 혹은 여자로서 ‘공동체의 아이러니’면서 동시에 인간의 법을 신의 법으로 맞서다 비극을 맞는”⁶²⁾ 인물로 해석한다. 라캉은 “상징적 죽음과 실제 죽음 사이에서 인간의 도덕을 넘어서는 ‘물자체’를 향한 순수 욕망으로서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죽음 충동’이자, 두렵지만 매혹적인 ‘숭고한 아름다움’으로”⁶⁴⁾ 안티고네를 채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리가

62) 버틀러는 『격양시키는 말』(J.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s*, Routledge, 1997)에서 혐오 발화와 그것의 규제에 대한 현실 정치적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저작에서 버틀러가 논한 것은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떠도는 언어적 발화의 가능성이다. 구체적인 정치적 수행의 행위자로 제시된 인물은 안티고네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63) 조현준,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비평과 이론』, 제 24권 2호, 2019, pp. 73.

64) *ibid*, pp. 74.

레는 안티고네를 부권적 남성 질서에 맞서 저항한 여성 전사의 흔적으로 본다.⁶⁵⁾

그러나 버틀러는 기려야 할 숭고한 영웅으로서의 안티고네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티고네를 재해석해낸다. 버틀러의 안티고네는 앞선 이론가들의 해석에서처럼 순수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안티고네는 친족 체계를 교란하고 남녀 젠더를 역전시키는 인물로 제시된다.

[...] 또한 어떻게 그녀의 언어가 역설적이게도 크레온의 언어라고 할 통치자적 권위(sov^{er}ign authority)의 언어와 그 행동에 가장 밀접히 유사함을 보이는지, 어떻게 크레온이 단지 왕위 계승을 가능케 해준 혈통 덕분에 그의 통치권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다시 말해 안티고네의 반항과 마침내 일순간에 친족 관계와 통치권에 있어서 그의 위치를 확보해주던 규범들을 철폐하여 그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남성성을 잃게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 정말이지, 소포클레스의 텍스트는 두 명이 은유적으로 서로 연루되어 있는 나머지 사실상 양자 간의 간단한 대답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준다. 게다가 양자가 서로 연관되어 교차하는 정도를 보면 둘 간의 간단한 분리는 있을 수 없으며 그녀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정도를 감안할 때 그녀의 권력은 친족 체계가 어떻게 국가의 언어 속에서뿐 아니라 **그녀의 행위로부터 귀결된 이상화된 친족 체계와 정치적 통치권의 사회적 변형**과 함께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지와 관련 있다.⁶⁶⁾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언어가 크레온의 언어처럼 통치자와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크레온 또한 혈통 덕분에 왕위를 얻게 되었음을 밝힌다. 지금껏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뚜렷한 대답으로 인해 두 인물은 상반된 것으로 보였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티고네와 크레온 간의 연관성은 이상적인 친족 체계와 젠더적인 역전을 가져오게 된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이자 여동생이기에 안티고네가 목숨을 걸고 애도

65) *Antigone's Claim*, pp. 2-5 참조.

66) *Antigone's Claim*, pp. 6.

하는 폴리네이케스 또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유일성이 아니라, 이 오빠인지 다른 오빠인지 아니면 아빠인지도 알 수 없는 모호한 대상이 된다.”⁶⁷⁾ 폴리네이케스와 오이디푸스는 버틀러의 안티고네에게 있어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해진다.⁶⁸⁾

안티고네를 남성과 여성 젠더의 경계를 흐리는 인물로 제시할 때 버틀러는 주변 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특히 크레온에 맞서는 안티고네의 공적 언어 수행은 그의 두려움을 불러온다. 크레온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부권적 권위의 상실로 그는 “어떠한 여성도 통치하지 못할 것”⁶⁹⁾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티고네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내가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남자일 것”⁷⁰⁾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낸다. 버틀러는 끝까지 당당한 안티고네의 태도가 크레온과 코러스뿐 아니라 오이디푸스까지도 그를 아들로 취급하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⁷¹⁾ 비극의 문을 여는 이스메네와 안티고네 간 대화는 전통적인 귀족 여성상을 보이는 여동생과 안티고네 간의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안티고네를 ‘교란적 주체’로 본 버틀러는 무엇보다 그녀를 비극 텍스트 속의 고고한 영웅에서 교란적이고 불순한 존재로 재탄생시킨다. 고고한 영웅 안티고네는 이론가들에 의해 공동체의 아이러니나 닿을 수 없

67) 조현준,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라깅과 현대정신분석』, 제 8권 2호, 2006, pp. 73.pp. 197.

68) 조현준은 안티고네의 두 번의 가매장 행위를 합당한 매장 예우를 받지 못한 두 오빠 오이디푸스와 폴리네이케스를 모두 기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현준, 「송고미에서 귀어 주체로」, pp. 198) 이러한 독해는 얽혀 있는 친족 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티고네가 이미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Oedipus at Colonus)에서 오이디푸스의 적절한 매장을 목격했다는 점을 놓치는 것 같다. 보니 호닉(Bonnie Honig, *Antigone, Interrup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은 이스메네와 안티고네의 대사에 주목하여 이스메네(Ismene)가 최초의 가매장 행위를 시도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스메네가 어떻게 그리 과감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69) *Antigone*, line 51.

70) *Antigone*, line 525.

71) *Antigone's Claim*, pp. 62.

는 광채를 내뿜는 인물, 혹은 여성 혈족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버틀러의 안티고네는 이와는 달리 여러 불순한 요소들을 품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다. 버틀러는 안티고네 형상을 통해 자신 이론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보강하는 것이다. 즉, 동성애 금기를 바탕으로 한 이성애가 강제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애도를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삶들로 버틀러의 관심은 확장된다.

저는 어떻게 특정한 형태의 이성애적 틀이나 규범적인 젠더 도식들이 특정 종류의 삶들을 (사회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고 애도를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지에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그것은 에이즈 운동의 중요한 측면이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고통과 상실을 비취볼 때 말이죠. [. . .] 어떤 면에선 바로 그 지점이 안티고네와 공공연한 매장과 애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오빠를 반드시 묻겠다는 그녀의 집요한 주장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 . .] 우리가 이 대화를 “안티고네의 주장”이라 이름 붙인 만큼, 우리는 안티고네의 주장이 현재 어떠한 것인지, 그녀의 주장을 현재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있어선 삶들의 공적인 애도 가능성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데 있어 안티고네는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통치 권력에 반대하는 전쟁 비판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새로운 이민자들, 미허가 체류자들,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계 경제와 가난, 문맹률 등에 있어 차등적으로 영향받는 이들, 종교적 소수자들, 그리고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위태로운 삶들을 위해 선두에 나섭니다. 안티고네는 (상징적) 형상이 되어 어떤 삶들이 다른 삶들보다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하도록 합니다.⁷²⁾

버틀러가 안티고네에 보인 관심은 특정한 삶들의 애도 (불)가능성에서 기인한다. 그녀는 이성애적 틀이나 규범적 젠더 도식에 비판적이면서도 에이즈

72) Pierpaldo Antonello and Roberto Farneti, “Antigone’s Claim: A Conversation with Judith Butler”, *Theory & Event*, Vol. 12 Iss. 1, 2009, pp. 6.

로 인한 죽음 등 여러 양태의 삶들이 균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구체적 현실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순수하지 못한 안티고네는 고매한 위치에서 내려와 여러 위태로운 삶들에 가까워지게 된다. 안티고네는 귀여운 아니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태로운(precarious)’ 다양한 삶의 양태에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버틀러의 ‘안티고네적 전회(Antigonean turn)’는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교란적 수행자인 안티고네와 공적인 애도가 금지된 죽음을 기리는 안티고네 사이에는 일종의 험거운 이론적 연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의 안티고네는 얽힌 친족 체계 속에서 탄생하여 공적으로 인정되는 체계들을 흔드는 인물이다. 이는 버틀러에 의해 복종 속에서 저항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안티고네의 저항은 체계에 복종하면서도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자의 안티고네는 “반복된 복종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고자 하는”⁷³⁾ 모호한 저항의 주체인 것이다. 반면 후자의 안티고네는 위태로운 존재를 기리는 ‘애도자(mourner)’이자 멜랑콜릭 주체로, 금지된 대상인 오빠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 보인다.

버틀러는 전자의 안티고네가 교란적 과급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은 후자의 안티고네가 뚜렷이 보여주는 멜랑콜리아 구도 때문이라고 본다. 안티고네가 안정적인 친족과 젠더 체계를 교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내부의 멜랑콜릭 구조가 지닌 ‘전복성(subversiveness)’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버틀러는 취약한 삶들을 대변하는 안티고네와 교란적 행위자 안티고네를 엮는 가교로 멜랑콜리아를 다시금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안티고네가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할) 권리를 요구할 때 그녀 언어 속에 멜랑콜리아가 작동 중이라는 징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녀의 소란스러운 권리 요구 선언은 비애를 지닌 채로 애도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을 전체한다. 공적인 애도에 대한 끈질긴 고집은 그녀를 여성적 젠더에서 뚜렷이 남성적인 초과인 오만(hubris)으로 이끌어 경비대들과 코러스, 크레온이 다음과 같이 묻게 한다. “여기서 남자

73) 「승고미에서 귀여 주체로」, pp. 200.

는 누구인가?” 무언가 유령적인 남자들이 여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남자들은 안티고네 스스로가 거주하는 공간이자 안티고네가 취할 수 있는 그 오빠들(오이디푸스/폴리네이케스)의 공간으로, 그녀는 이 공간을 취함으로써 (내적 심적 구조의) 형태 변화를 겪는다. 멜랑콜릭 주체들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 혹은 그녀의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원을 내적으로 품고 있으며 법률적인 요구를 내놓는다. 이에 따라 언어는 고층을 털어놓는 사건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에서 솟아나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 근처로 폭력을 가져온다.⁷⁴⁾⁷⁵⁾

안티고네는 애도할 수 없는, 애도가 금지된 대상에 대한 적절한 애도를 표할 권리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나라의 반역자라는 엄청난 공적인 오명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는 자신의 오빠에 대한 적절한 매장과 애도를 요청한다. 과감한 요청을 감행하는 안티고네는 주변 인물로부터 여기서 남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불안을 일으킨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멜랑콜릭 자아가 상실한 대상인 오이디푸스와 폴리네이케스와 합체하여 변형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애도에 대한 요구가 이 멜랑콜릭 주체로부터 기원한 것이라 주장한다. 죽은 오이디푸스와 폴리네이케스는 안티고네의 내부에 보존되어 있다. 절차를 갖춰 그들을 애도해달라는 안티고네의 법률적인 요구는 말할 수 없는 금기로 보존되어 있던 대상들이 말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으로 표출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는 그녀 이론의 두 가지 층위를 잇고자 하는 시도임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층위는 기존에 버틀러가 고수하던 지배적인 친족과 젠더 체계에 대한 비판 작업이다. 앞서 언급한 전자의 교란적인 안티고네는 버틀러 이론의 첫 번째 층위와 연관된다.

74) The melancholic, Freud tell us, registers his or her “plaint,” levels a juridical claim, where the language becomes the event of the grievance, where, emerging from the unspeakable, language carries a violence that brings it to the limits of speakability.

75) AC, pp. 80.

그리고 두 번째 층위는 바로 주변부로 내몰린 여러 양태의 삶들에 대한 정치적 요구 제기다. 앞서 밝힌 후자의 멜랑콜릭 안티고네가 두 번째 층위에 부합한다. 버틀러는 멜랑콜리아 과정을 중심에 놓고 자신 이론의 두 가지 층위 혹은 두 안티고네를 연결하려고 시도한다. 전자의 안티고네는 친족 구조나 섹슈얼리티와 젠더 등 기존의 인식 체계를 교란하는 인물이다. 버틀러의 초기 저작들인 『젠더 트러블』, 『문제는 몸이다』, 『격양시키는 말』⁷⁶⁾에서 시도한 인식 체계를 흔들려는 이론적 작업은 전자의 안티고네에서 엿볼 수 있다.

반면 후자의 안티고네나 그녀가 이론적 전회에서 보인 새로운 작업은 여러 취약한 양태의 삶들과 타자들을 포용과 그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버틀러의 멜랑콜리아 과정을 거쳐 형성된 주체인 안티고네는 상실 대상인 오이디푸스와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적절한 장례와 애도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멜랑콜릭 주체의 반복적 수행을 통한 인식 체계의 변화를 말하던 버틀러가 갑자기 안티고네로부터 통치 권력과 사법 담론에 직접 호소하고 요구하는 정치적 주체를 읽어낸다는 것이다. 멜랑콜리아나 원초적 금기 등의 이론적 엄밀함을 묻는 여러 비판에도⁷⁷⁾ 버틀러의 수행성의 정치학은 기존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저항 담론으로서의 의의를 지녔고 이는 사법적 호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주장』 이전의 저작들에서는 사법적이고 제도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인식론적 과장을 꾀했다. 단적인 예를 『격양시키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제나 주체를 초과하는 언어의 담

76) 국내 정신 번역본은 버틀러가 저작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인 ‘혐오발언’을 제목으로 택하였으나 원어 제목의 이중성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참작하여 『격양시키는 말』을 제안해 본다. 주지하듯 버틀러는 격양시키는 말의 탈-인용적(ex-citational) 측면을 강조한다.

77) 다만 이런 비판을 다시 고려해볼 수도 있다. 프로이트와 라캉을 꼼꼼히 독해하여 버틀러의 정신분석학 재전유를 비판하는 작업은 이론적 텍스트에 대한 엄밀한 독해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그러한 오독이 지닐 수 있는 생산적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론적 성격을 규정한 후에⁷⁸⁾ 버틀러는 혐오 발언을 지나치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경계한다. 오히려 그녀는 “국가의 승인된 (법적) 발화가”⁷⁹⁾ 혐오 발언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버틀러가 제시하는 것은 수행적 발언(performative utterance)이 반복 끝에 “잘못 적용되고 잘못 언급될(misapplied and misinvoked)”⁸⁰⁾ 가능성이다. 따라서 버틀러는 ‘격분시키는(excitable)’ 말이 ‘탈-인용적 발화(ex-citable speech)’로 바뀔 가능성을 모색한다.⁸¹⁾ 즉, 『격앙시키는 말』에서 ‘퀴어(queer)’라는 단어의 변천을 언급하는 버틀러는 반복되는 담론적 실천이 보편적 인식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치성을 발견하고자 한다.⁸²⁾

한편 버틀러가 해석하는 안티고네는 수행적 차원에서 권력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로 나아간다. 그녀는 교란적인 수행자로서의 안티고네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소포클레스 비극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애도하는 자, 안티고네다. 애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버틀러의 안티고네는 담론적 실천에서 사법적 요구로 나아가게 된다. 게다가 버틀러는 멜랑콜릭 주체의 형성 과정에서 그 원동력을 읽어내므로 이러한 이행의 부자연스러움은 두드러진다. 교란적인 수행성의 정치성은 정신분석학이나 맑시즘으로부터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 정치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주체의 형성에 정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의 ‘규제적 이상(regulatory ideal)’에도 불구하고 수행성은 달리 반복할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와 푸코, 데리다를 중요하게 참조한 결과 유의미한 문화적 정치성을 이론화

78) *Excitable Speech*, pp. 28.

79) *ibid*, pp. 96.

80) *ibid*, pp. 151.

81) 이현재, 「국가 검열 아닌 수행적 저항-주디스 버틀러, 『혐오발언』(유민석 옮김, 알렙, 2016)」, 『문학동네』, 제 89권, 2016, pp. 661.

82) 물론 버틀러가 모든 검열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녀의 입장에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발화로 고통받는 사례들이 많기에 버틀러가 말하는 것보다 규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으로는 다음을 참고.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 연구』, 제 8권 2호, 2016.

해 보인 것이다.

그런데 애도를 요구하는 안티고네로의 이행은 버틀러에게 여러 비판적 질문들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가 어떻게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도 요구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아는 주체를 형성하는 원초적인 과정으로 주체의 무의식은 이를 거쳐 이드, 자아, 초자아의 위상학적(topographical) 형태를 갖춘다. 프로이트의 이 도식을 따라간다면 주체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요구를 의식적으로 명료화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안티고네가 멜랑콜릭 주체라면 어떻게 그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버틀러가 강조한 바 있는 동성애에 대한 금기가 멜랑콜릭 주체인 안티고네에게는 빠져 있다는 점에 의문을 표할 수 있다. 안티고네의 중요한 상실 대상은 근친 금기(incest taboo)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동성애 금기는 분석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근친은 일탈로 낙인 찍힌 다양한 형태의 섹슈얼리티를 포괄하는 “환유”⁸³⁾가 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는 섹슈얼리티와 그에 연관된 금기가 어떻게 취약한 삶들에 대한 고려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게 남아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비규범적 성적 실천과 욕망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버틀러의 이론이 지배 담론의 타자화의 “논리를 복제한다는” 존 씨어리(J. Seery)의 과도한 비판 가운데에도 근친이라는 성적 실천이 정치적 행위의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반이 되지 않는 못한다는 그의 지적⁸⁴⁾은 눈여겨볼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퀴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은 버틀러 논의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맥이보르(D. McIvor)는 이 같은 맥락에서 버틀러의 멜랑콜릭 안티고네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게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⁸⁵⁾ 다시 말해 금지된 욕망

83) John Seery, “Acclaim for Antigone’s Claim Reclaimed(Or, Steiner, Contra Butler)”, *Theory & Event*, Vol. 9 Iss. 1, 2006, pp. 8.

84) “Acclaim for Antigone’s Claim Reclaimed”, pp. 9.

85) David W. McIvor, “Bringing Ourselves to Grief: Judith Butler and Politics of Mourning”, *Political Theory*, Vol. 40 No. 4, 2012, pp. 418–9.

대상을 품고 있는 안티고네가 그에 대한 애도 요구를 통해 공동체 내에 어떤 과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버틀러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성적인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요구와 행위로 나서게 되는가?

버틀러는 2009년의 한 강연에서 그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그녀는 젠더와 수행성에는 ‘취약성(precarity)’이 결부된다고 말하며 이론적 전회의 중요한 연결 고리를 해명한다. 그 요체는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이론화가 여러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는 타자들과 무관하지 않기에 타자와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젠더의 수행성은 그러므로 주체들이 인식에 적합해지는 차등적인 방식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그러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우선 인식을 통제하는 어떠한 규범들을 따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사람은 인식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이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은 주체 존속의 존재론적 조건인 삶의 (사회적) 생존 가능성을 의문에 부치게 된다. 우리는 주체들을 법이나 정치적 삶에서 정당한 사회적 인식을 요청하는 존재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아마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젠더와 성적 규범들이 포함될 수 있는 인정의 조건들이 어떻게 미리 누가 주체로 간주되고 누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조건 짓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주체로 간주되고 누가 그리 간주되지 않느냐는 이 질문에 근거하여 수행성이 취약성과 연결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젠더의 수행성은 누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삶으로 간주되고, 누가 살아 있는 존재로 인식되거나 이해되는지, 또한 누가 인식 가능성의 확립된 방식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와중에도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살아가려 애쓰는지와 연관되어 있다.⁸⁶⁾⁸⁷⁾

86) ,and who lives, or tries to live, on the far side of established modes of intelligibility.

87) Judith Butler, “Performativity, Precarity and Sexual Politics: A Lecture Given at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June 8, 2009”, *Revista de Antropología Iberoamericana*, Volumen 4, Número 3, 2009, pp. iv.

버틀러는 젠더 수행성의 조건을 다시금 짚는다. 주체는 사회적 인식 체계의 규범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실천을 반복한다. 주체는 규범에 순응하여 인식 가능성을 얻기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은 사회적 생존 가능성을 위협받게 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주체로 간주되는 것이 사회적 생존과 직결한다고 보기에 버틀러는 수행성 개념을 취약성과 연결지을 수 있다고 본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규범적으로 젠더화된 존재로 사회적 생존 (불)가능성은 취약한 타자와 중요한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버틀러는 취약한 타자가 보이는 수행적 차원을 논한다. “(사회적인) 인식 가능성에 제한된 접근권을 지닌 이들이”⁸⁸⁾⁸⁹⁾ 담론적 수행을 통해 취약한 생존 조건들을 조금씩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공인되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 국가를 다양한 언어로 부르며 시민적 권리를 요구한 시위를 이러한 정치적 수행의 일례로 들고 있다.⁹⁰⁾ 그녀의 정치적 기획은 이를테면 순응을 강요하는 젠더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보편적 주체와 사회적으로 더욱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삶을 이론적으로 접합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자들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이론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보편적인 축으로 기능하여 위태로운 사회적 위치에 처한 이들과의 연합을 보장할 수 있는가? 버틀러는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권력 담론의 통제 아래서 주체의 반복적 수행의 결과로 본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담론적 주체의 보편적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위치들을 포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달리 말해 권력 담론 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공통분모만으로 소수자들의 정치적 연합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안은 여러 현실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 여러 소수자 그룹 내에서도 차이와 균열의 지점은 존재한다. 버틀러는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국주의적 보편성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하지만⁹¹⁾ 정작 다양한 사

88) those who have limited access to “intelligibility”

89) *ibid*, pp. xi.

90) “Performativity, Precarity and Sexual Politics”, pp. iv-v.

회적 위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⁹²⁾ 그리고 버틀러는 정치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멜랑콜릭 안티고네가 어떻게 다양한 소수적 차이들을 대변해낼 수 있는지 명확히 답하고 있지 않다. 폴리네이케스를 금지된 애도 대상으로 품고 있는 안티고네로부터 에이즈로 인한 사망과 상실의 애도를 떠올린 버틀러는 다소 성급하게 안티고네를 여러 위태로운 삶들을 대변하는 자로 승격시킨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버틀러의 안티고네적 전회가 보편적 인정을 그 기치로 삼고 있음에도 개별자의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버틀러는 『안티고네』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더욱 보강했음에도 여전히 여러 문제는 깔끔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특히 버틀러 이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멜랑콜리아’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핵심적이다. 따라서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버틀러가 일탈적 수행을 특권화하고 이데올로기의 예측적 호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최 원의 비판⁹³⁾은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적의 도발적인 버틀러 비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버틀러의 이론이 지니는 난점을 절묘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의 『안티고네』 독해 및 각색의 기반이 된다. 그렇기에 지적의 버틀러 비판은 지적의 안티고네를 이어줄 연결 고리가 된다.

91) Judith Butler, Ernesto Laclau, Slavoj Žižek,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s on the Left*, Verso, 2000, pp. 35-6.

92) 물론 담론적 규제 하에 형성된 다양한 주체들 간 정치적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화 역사적인 주체들의 차이와 연합 간의 괴리는 문화적 번역 개념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것 같다. 문화적 번역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93) 『라캉 또는 알튀세르』, pp. 264-5, 270-1.

3. 지젝이 버틀러에게

지젝과 버틀러는 정치적인 행위와 가능성을 이론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렇지만 두 이론가는 90년대부터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 서로의 이론을 비판하게 된다. 지젝은 버틀러의 정치적 기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읽는가 하면 이를 각색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의 안티고네를 조명하기 전에 지젝의 버틀러 비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⁹⁴⁾ 우선 지젝과 버틀러는 『우발성, 해계모니, 보편성』에서 ‘문화 번역’의 개념을 두고 충돌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틀러는 안티고네를 통해 다양한 소수자의 모습이 대변될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엿본다.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자 매개가 바로 ‘문화 번역’이다.

번역 기획의 맥락에 접합될 필요가 있는, 이들 개별 운동들에 내속된 보편적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그 번역은 문제가 되는 용어들이 단순히 지배 담론에 의해 재서술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번역이 해계모니 투쟁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지배 담론이 ‘외래의’ 어휘를 자신의 어휘 목록에 수용함으로써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성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성적 소수자 운동의 보편화 효과는 보편성 자체를 재고하고, 보편성이라는 용어를 쪼개어 자신의 경쟁하는 의미론적 작용들과 그것들이 가리키는 삶의 형태들로 나누며, 그 경쟁하는 용어들을 하나의 거대한 운동으로 묶어내야만 할 것인데, 그 운동의 ‘통일성’은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유동적으로 만드는 내적 차이들을 순화시키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측정될 것이다. 실로 나는 지젝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종류의 번역이

94) 한편 지젝을 향한 버틀러의 비판은 지젝의 『안티고네』 독해와 각색을 다룬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지젝이 버틀러의 이론적 기획을 비판하고 자신만의 안티고네 전유를 보여주었다면, 버틀러의 이론적 입장에서 가능한 반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텍스트는 말하자면 버틀러와 지젝이라는 두 이론가가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경쟁적으로 펼쳐 보이는 장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능동적 참여와 정치적으로 연계된다고 믿으며, 다문화주의 정치를 개별성의 정치로 환원하는 일은 잘못이라고 확신한다. 다문화주의 정치는 경쟁하고 중첩되는 보편주의들의 운동을 판별하고 구성하는 데 복무하는 번역의 정치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낫다고 믿는다.⁹⁵⁾

버틀러는 개별자들의 정치적 운동이 보편적 헤게모니 투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지배 담론이 ‘외래의’ 혹은 ‘개별적인’ 언어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형되어야 한다. 그녀는 성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성적 소수자 운동이 ‘문화번역’을 통해 보편적 담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때 내적 차이들은 순화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버틀러의 ‘문화번역’은 지배 담론이 포섭하지 못하는 개별 문화의 영역을 구축하고 그 개별 문화가 보편적 요구를 주장하도록 돕는 작업이다. 버틀러에게 다문화주의 정치학은 단순히 개별적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 요구를 보편적인 것으로 번역해내는 작업이야말로 다문화주의 정치학의 목표인 것이다.

한편 지젝은 버틀러의 이런 주장을 비판한다. 버틀러의 ‘문화번역’은 내적 차이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 개별적 요구들이 보편적인 체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젝은 개별자에 의해 보편자가 변형된다는 버틀러의 주장에 반박한다.

이런 주장[문화번역 없는 보편성의 불가능성—필자]에 대해 나는 그 반대로 보편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정확히 말해 각각의 개별 문화는 단순히 개별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도 선형적인 이유에서 그러하다는 사실, 오히려 항상 이미 그 자체로 ‘자신이 관장하는 언어의 경계들을 넘어섰다’는 사실의 귀결로서 출현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요컨대 버틀러가 번역 없는 보편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나는 오늘날 그 반대의 양상, 즉 번역 없는 개

95)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pp. 168–9. 위 번역은 강우성의 「‘문화번역’의 정치성」, (『크리티카 4권』, 사피엔스 21, 2010.)의 번역을 재인용한 것이다.

별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는 ‘서구적 인권을 보편적인 것으로 직접적으로 부과하느냐 아니면 끈기 있게 번역 작업을 하느냐’는 양자택일이 궁극적으로 허위라는 걸 의미한다. 번역 작업은 항상 이미 시작되었다. 언어적 경계는 항상 이미 넘어서 있다. 즉, 모든 개별 정체성의 주장은 항상 이미 자신이 부인되었음을 통해 보편성을 지칭하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 또는 라클라우의 말로 하자면, ‘보편자’는 일련의 개별적 존재자들 사이의 중립적 고리나 공통분모이기 이전에 개별자 자체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가로막는 간극의 이름이다.⁹⁶⁾

지젝은 이미 개별 문화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이미 개별자들은 선형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언어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가 지배적이고 보편적인 체계와 언어, 그리고 특수한 개별자를 구분하여 그 사이의 번역 작업을 시도했다면 지젝은 이미 개별 정체성에는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부정성이 깃들여 있다고 본다. 즉, 그는 모든 개별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게 하는 보편적 부정성 내지 간극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젝은 상징계의 상징화 및 의미화 작업의 한계 혹은 그 너머가 내적으로 잠재해 있다고 본다. 지젝은 선형적이고 보편적인 ‘실재’와 ‘적대’를, 버틀러는 담론 체계 내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사유한다.

더 나아가 지젝은 『까다로운 주체』에서 ‘포스트모던 정치학’과 ‘정체성 정치’를 적극적으로 비판한다. 김성호⁹⁷⁾는 지젝이 크게 두 가지 근거로 다문화주의 및 정체성 운동을 비판하고 있음을 밝힌다. 첫 번째로 지젝은 다문화주의가 “사회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세계 자본주의 운동이라는 현실을 은폐한다는”⁹⁸⁾ 주장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그는 근래의 ‘문화 비평’이 세계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에 맞서

96)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pp. 216-7. 앞선 강우성의 번역 재인용.

97) 김성호, 「보편성의 귀환-지젝의 다원주의 비판과 문학적 보편성」, 『크리티카 3권』, 사피엔스 21, 2009.

98) *Ibid*, pp. 164.

는 움직임을 본질주의나 근본주의로 간주하고, 단지 주변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차이에 대한 관용만을 말할 따름이라고 본다.⁹⁹⁾¹⁰⁰⁾ 지젝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테제는 가히 과격적인데, 그는 “오늘날 유행하는 다문화주의의 문제 틀은 그 정반대의 것이, 즉 범역적 세계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거대한 현존이 외양하는 방식”¹⁰¹⁾이라고 주장한다. 지젝에 따르면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는 다문화주의로, 주변적 존재나 개별자를 존중해야 한다고는 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혜적이고 유럽 중심적인 성격의 거리를 두는 존중이다.¹⁰²⁾ 그야말로 다문화주의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³⁾

지젝은 후쿠야마(F. Fukuyama)의 ‘역사의 종언’에 대한 단호히 반박한다. 후쿠야마는 동구권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세계의 질

99) 이성민,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5, pp. 357.

100) 물론 전 지구적 자본주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본질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붕괴 이후 좌파 진영에서의 반응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데리다의 『맑스의 유령들』(*Specters of Marx*)에서 교조적인 맑시즘에 맞서 열린 가능성으로 미래에 도래할 맑스의 유령‘들’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지젝의 단호한 비판은 비-본질주의적인 문화 정치가 현실적으로는 인정과 차이에 대한 관용으로 치우친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거대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흐름에 대한 보편적인 차원의 저항은 지젝의 중대한 관심사다.

101) 「보편성의 귀환-지젝의 다원주의 비판과 문학적 보편성」, pp. 166.

102) 『까다로운 주체』, pp. 352-3.

103) 최근 진행 중인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간 외교 관계 증진과 경제적 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동남아에 대한 문화적인 포용과 인정도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막대한 인구와 꾸준한 경제성장률로 인해 앞으로 떠오를 중요한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책이 추진되는 핵심적 이유이다. 즉,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적 관심과 협력의 제안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의 논리를 포장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나 국제결혼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 동남아에서의 케이 팝이나 드라마의 인기를 바탕으로 동남아 진출을 계획하는 것은 지젝이 비판하는 이데올로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체계 속에서 여러 차원의 개선을 거치며 진보해 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자유주의는 제 1세계 국가들과 제 3세계 국가들 간 현격한 힘의 격차를 바탕으로 한 착취적인 구조를 띤다. 그리고 이는 자유주의적 산물인 자유 협정(free agreement)으로 은폐된다. 동구권 출신으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를 목도한 그는 과거 대규모 정치적 기획의 처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착취적 구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민 끝에 지젝은 “어떤 근본적 변화의 전망을 제안하는 일이 전체주의로 나아갈 길을 닦을 뿐이라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협박을 딱 잘라 거부하고 (자유주의의) 용어들을 거절하는 반대의 몸짓을 감수해야”¹⁰⁴⁾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러한 지젝의 근본적 변화 모색이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간과한다거나 정체성 정치와 자유주의 간 갈등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젝의 문제 제기가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지젝의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면 버틀러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체계에 부지불식간 동조하게 되는 다문화주의와 정치성 정치의 수호자에 불과하게 되는가? 지젝의 문제 제기는 중대한 것이지만 그의 다문화주의 비판이 그대로 버틀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버틀러가 다문화주의 정치학과 맺는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그녀는 인식 체계 내에서 주변부로 내몰린 위태로운 존재에 관심을 보이지만 주류 다문화주의 정치학에 매몰되지는 않고자 한다. 버틀러는 자유주의 정치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여러 정치적 시도들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녀의 동성 결혼에 대한 논평은 그러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버틀러는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를테면 버틀러는 “바로 그 제도는 권력을 확대하고 그렇게 권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적법하게 된 친밀한 연합의 형태들과 그렇지 못한 형

104)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pp. 326. (risks the opposite gesture of refusing its very terms, of flatly rejecting today’s liberal blackmail that courting any prospect of radical changes paves the way for totalitarianism.)

태 사이의 구분을 악화시킨다고”¹⁰⁵⁾ 본다. 버틀러는 동성 결혼 합법화가 결혼 제도 내로 편입된 적합한 인정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 간 구분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 봄으로써 그녀는 자유주의적 정치 체계 내의 요구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을 둘러싼 담론적 역동성을 다시금 세밀하게 탐구한다.

여기서 내 요점은 동성 결혼과 친족 구조 논쟁에 있어 정치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그러한 구분이 마침내 가능하거나 바람직하기라도 하다는 뜻 말이다. 다만 비판적인 이해를 품고 있는 정치학만이 자기 반영적이고 교조적이지 않은 주장을 고수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일하고 지속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성 결혼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쉽게 수행되지 않는다. 어떤 이는 동성 결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수반되는 권리를 확보하고 활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혹은 어떤 이는 동성 결혼 자체에 호의적이진 않으나 동성 결혼 반대로 규합되는 반동성애적 담론에 저항하려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동성애자들이 나아가야 할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하게 믿으며 이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범으로 도입하길 바랄 수 있다. 혹은 [...] 중국적인 목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지원과 동맹의 형식들을 생산하기 위해 우정, 성적 접촉, 그리고 공동체라는 사회적 조직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일 수 있다.¹⁰⁶⁾

버틀러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비판적인 태도란 단일하고 지속적인 입장을 내보여야 한다는 교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버틀러가 탐구하는 것은 동성 결혼 합법화 담론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입장들이다. 동성 결혼을 원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따른 사회적 혜택이나 권리를 활용하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반-동성애 담론에 대한 저항 의식에서 비롯되거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범으로 수용할 수도 있

105)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pp. 175.

106) *Undoing Gender*, pp. 109.

을 것이다.

하지만 버틀러가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입장이다. 그녀가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연합의 형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끌어내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승인 형태인 동성 결혼보다는 새로운 사적이자 사회적인 결합의 형태들로 인해 공동체의 수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버틀러는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인해 결혼의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결합 형태들에 관심을 두고 결혼의 규범적인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¹⁰⁷⁾ 버틀러는 이처럼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명확한 요구를 주장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¹⁰⁸⁾을 여러 가능한 입장 사이에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살펴본 것처럼 버틀러와 자유주의 정치학 사이의 관계는 단순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버틀러의 거리를 두려는 시도가 썩 명쾌한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정치적 운동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문화번역’이 연결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와 ‘문화번역’의 과제를 통해 배제된 개별자의 요구가 보편적 체계를 흔들며 바꾸려는 정치적 기획을 구상한 바 있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규제적인 담론 체계와 국가 체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과 버틀러의 안티고네처럼 보편적 애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상충한다. 보편적이고 공적인 체계의 승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연합과 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어떻게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가?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는 버틀러의 논리를 따르자면 체계의 개별자 포섭으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보편적 체계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효과 앞에 비판적 거리 두기는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공인되지 않은 이민자들의 권리 요구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분하는

107) *Undoing Gender*, pp. 109.

108) *ibid.*, pp. 108.

것에 대한 이의제기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권리 요구는 국가라는 이데올로기 기구의 권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틀러는 국가 중심적이지 않은 사적인 연합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적이고 공적인 차원의 변화가 사적인 삶의 형태들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항이 권력의 망 속 유동적이고 잠재적인 전략적 코드로 남아 있다는 푸코의 주장¹⁰⁹⁾과 같은 선상에 있다. 국가라는 권력 기구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국가 기구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것이기에 버틀러는 그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버틀러의 거리 두기 시도는 공적인 권리 요구가 기존의 체계에 편입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 버틀러는 동성 결혼이나 이민자들 등의 권리 요구를 포괄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그로부터 거리를 둔다. 문제는 그러한 거리 두기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의 국제정치적인 정세를 성찰하면 지배적인 1 세계적 질서에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임의성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그뿐 아니라 1세계 국가들과 이를 구성하는 민족들이 지니는 특권을 비판 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¹¹⁰⁾ 이러한 비판 의식은 그럼에도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를 깨뜨린다고보다 내적인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곤 한다. 즉, 핵심이 되는 것은 주체의 순응을 부르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맞서고자 하는 시도이다. 버틀러의 내적 비판은 날카로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자본주의와 세계 질서라는 이데올로기에 대처하지 못한다. 오히려 버틀러의 이론은 현 체계가 비판 가능한 열린 체계라는 이데올로기에

109)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1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76, 125-7.

110) 최근 주목을 받는 '인류세(anthropocene)' 개념과 환경 운동의 추세 또한 의도치 않게 국제 이데올로기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1세계 국가들의 근대 개발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자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을 제재받게 된다. 환경 운동을 주도하는 운동가들은 알게 모르게 이 상황 속에서 1세계 국가의 편에 서서 그간 인간이 자연에 대해 누리던 특권을 반성하게 된다.

마주한다.

지금까지 버틀러의 이론과 『안티고네』 독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녀는 배제된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과 멜랑콜릭 주체로부터 출발하여 위태로운 삶들과 그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다. 일탈적 수행과 박탈당한 권리 요구로의 이론적인 이행은 여러 난점과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젝은 그녀의 이론적 기획이 자유주의적 체계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고 대담히 주장하고는 버틀러의 안티고네에 대한 응답으로 『안티고네』 각색을 선보인다. 따라서 버틀러의 안티고네가 지젝의 이데올로기 비판에 직면해 여러 논의해볼 점들을 남겼다면, 지젝의 이론과 안티고네 재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지젝의 안티고네

지젝은 90년대 이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부각되었다. 그는 헤겔¹¹¹⁾과 맑스, 라캉을 거쳐 정치적으로 전유해내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국내에서도 한 때 지젝 열풍이 불어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¹¹²⁾을 필두로 하는 그의 다양한 저작들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다.¹¹³⁾ 특히 지젝은 여러 문화사회적인 현상과 영화 텍스트들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많은 이들을 매혹시켰다.¹¹⁴⁾ 그런데 정작 그의 이목을 끄는 언변과 흥미로운 이론의 일면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체

111) 지젝의 급진주의적 정치학과 헤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성우, 「급진 민주주의와 그 윤리적 기초에 관한 지젝의 헤겔주의적 비판」, 『시대와 철학』, 제25권 1호, 2014.

112)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113) 라캉과 지젝 그리고 안티고네를 함께 고려한 시도로는 다음을 참조. 이병창, 『지젝 라캉 영화 (두 죽음 사이)』, 먼빛으로, 2013.

114) 지젝의 논의를 정리한 저작으로는 다음을 참고. 켈시 우드, 박현정 역, 『한 권으로 읽는 지젝』, 한길사, 2018.

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¹¹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비판에도 지젝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그가 이론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론적 작업이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현 시대에 지젝의 이데올로기 비판 작업은 주목할 만하다.

지젝의 이데올로기 비판 작업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횡단할 가능성을 힘주어 말한다. 이데올로기적인 탈피를 말하는 지젝에게 있어 버틀러의 이론은 자유주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이론가 간의 논쟁은 따라서 체계와 주체 간의 관계를 기반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버틀러는 담론적 체계에 의해 형성된 주체가 어디까지나 담론 내부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을 탐색한다. 그에 비해 지젝은 이데올로기적 체계로 인해 탄생한 주체가 이를 넘어서 결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주관적이고 급진적인 ‘행위’를 말하는 지젝은 버틀러가 보기에는 물질적인 현실 세계를 관념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이런 관점에서 지젝은 자신만의 안티고네를 선보인 바 있다. 그는 소포클레스의 비극과 동명인 자신의 저작 『안티고네』(2016)¹¹⁶⁾를 버틀러의 『안티고네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 제시한다. 그간 그는 여러 텍스트에서 산발적으로 라캉의 『안티고네』 해석을 계승하여 안티고네 형상을 소환해왔다. 그의 『안티고네』(2016)는 고전 비극 텍스트 『안티고네』에 대한 과감한 현대적 각색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현대적

115) 몇몇 격렬하지만 정교하지 못한 비판으로는 존 그레이(John Gray, “The Violent Visions of Slavoj Žižek”, *New York Review of Books*, Retrieved 22 September 2012)와 스크루턴(R. Scruton, *Fools, Frauds and Firebrands: Thinkers of the New Left*, Bloomsbury, 2015)이 있다. 좀 더 정밀한 것으로는 라클라우가 『우발성, 헤게모니, 보편성』에서 보인 지젝 비판을 꼽아볼 수 있다. 그는 지젝이 19세기의 ‘계급’(class) 개념에 천착해 현대의 다문화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116) Slavoj Žižek, *Antigone*, Bloomsbury, 2016. 소포클레스의 비극 텍스트와 지젝의 현대적 각색을 구별하기 위해 지젝의 안티고네에는 발행 연도를 병기할 것임을 밝힌다.

인 각색은 버틀리의 안티고네와 확고한 대비를 이루며 버틀리의 해석에 대한 일종의 반박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에 3장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횡단적 주체와 지젝의 안티고네 독해를 살펴보고는 버틀리의 지젝 비판을 검토하려고 한다.

1. 횡단적 주체

지젝의 이론은 이데올로기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지젝의 관심사는 현대의 이데올로기적 작용과 그에 따른 주체의 양상일 것이다. 특히 그의 이론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붕괴 이후 탈-이데올로기적 시대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지젝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다수의 국가나 정당들이 시장 경제와 국가적 발전을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지젝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의지하여 “대타자의 상징화가 언제나 실패”¹¹⁷⁾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는 대타자의 붕괴를 말한다.

개인의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현실과 그것이 상징적 질서에 등록될 때 그 사이에는 틈새가 생긴다. 이 틈새를 통해 상징 질서는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사실들을 이상화시키는데 이 최소한의 이상화는 상징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지젝이 큰 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주체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상징적 유효성을 드러내 보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상징적 허구가 더 이상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¹¹⁸⁾¹¹⁹⁾

지젝은 라캉의 주체론을 받아들여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질서가 완벽히

117) 이윤성, 「지젝의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론 혹은 판타지와 유희를 가로지르기」, 『안과 밖』, 제 17호, 2004, pp. 334.

118) Slavoj Žižek, *The Ticklish Subject: The Absent Centre of Political Ontology*, Verso, 1999. pp. 322.

119) 오미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혁명적 정치의 가능성 탐구-슬라보예 지젝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p. 32.

성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전제한다. 주체가 상징적 질서에 등록될 때 주체의 직접적인 현실과 상징적 질서 사이의 틈새가 발생한다. 이 틈을 유지한 채로 주체는 문명적이고 이상적인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테면 상징적 질서는 남아 있는 틈새 내지는 균열 때문에 허구로 밝혀지며 온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젝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던 냉전의 종식 이후 허구적 환상인 상징적 질서 붕괴의 가속화가 주체의 불안을 불러온다고 본다. 그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포스트모던적 주체는 냉소적인 주체다. 상징 질서의 붕괴에도 이데올로기적 주체는 강력한 초자아의 목소리를 통해 무의식적인 죄의식을 받아들인다. 주체의 저항과 위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체는 상징 질서의 붕괴에도 주체의 불안함을 파고들어 냉소적인 주체를 형성한다. 민승기는 지젝의 냉소적인 주체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나를 대신해 기도하는 물레, 우리 대신 슬픔과 연민을 느껴주는 코러스, 대신 울기 위해 고용된 곡하는 여자, 웃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덜어주는 녹음된 웃음소리(70-72)¹²⁰⁾ 등은 가장 내밀한 것이 가장 외적인 방식으로 실행되는 이데올로기의 전략을 보여준다. 나는 산타를 믿지 않지만 순진하게 믿는 아이들을 위해 믿는 척한다는 물신주의의 공식이 동원된다.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물신주의 이데올로기는 앎과 행함 사이의 간극을 통해 작동한다. 이제 이데올로기는 무지가 아닌 행위에서 새겨난다. 대타자가 나 대신 믿고 웃어주며, 슬퍼한다면 나는 여전히 대타자에 종속된 기표일 뿐이다.¹²¹⁾

지젝은 냉소적 주체의 비판적 거리 두기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데올로기적인 대행 장치는 주체 대신 웃고 우는가 하면 믿음조차 대신한다. 냉소적 주체는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그가 취해야 할 행위는 통제되고 대행된다. 실은 잘 알고 있음에도 이데올로기적 대행에 종속될 때 현대의 냉소적 주체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120)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pp. 32-33.

121) 민승기, 「지젝이라 불리는 공간」, 『인문학 연구』, 제 24호, 2013, pp. 13.

바로 이 지점에서 지젝과 버틀러 사이의 이론적인 입장 차가 선명히 드러난다. 앞서 버틀러는 여러 정치적 과제에 비판적인 거리를 두는 전략을 말한 바 있다. 그녀의 전략은 현실 정치에서 추진되는 여러 과제에 거리를 뒀으로써 앞과 담론의 차원에서의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다. 지젝에게 있어 버틀러의 이러한 전략은 앞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심화시켜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버틀러의 담론적 개입은 비판적인 시선을 들여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시도이다. 문제는 이데올로기는 “냉소적 거리”¹²²⁾를 전제하고 있기에 그녀의 시도 또한 이데올로기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버틀러의 비판적 시선은 냉소적 주체와는 그 결이 다른 것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체계의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냉소적 주체와는 달리 버틀러가 말하는 비판적인 개입은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녀의 거리 두기 시도는 어떻게 그러한 적극적인 개입이 사회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의 문제로 인해 비틀거리는 것 같다.¹²³⁾ 즉, 지젝의 이데올로기 분석은 거리를 둔 주체의 환상적 믿음이 이데올로기 작동의 동력원이 된다는 점을 제시해 단순히 거리를 두려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지적한다.

다음 단계로 지젝은 주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상적 믿음이라는 어려운 매듭을 풀고자 한다. 주체는 상징 질서에 냉소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로 여러 ‘대상-원인 a(object-cause a)’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된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몰입하지 않게 된 현대인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원인 a’는 환상적인 대상인 것이다. 지젝이 보기에

122) 「지젝이라 불리는 공간」, pp. 18.

123) 버틀러는 동성 결혼의 사례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가 권력의 강화와 그 제도로 편입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고려를 보여준 바 있다. 버틀러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다양한 입장 가운데서도 비판적 시선을 도출하지만 이러한 거리 두기 시도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혹은 관료주의적 절차에 대한 정교한 비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미 절차에 냉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해 왔기에 그러한 비판은 공감은 자아낼 수 있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문에 부쳐질 수 있다.

각종 ‘대상-원인’들은 불가능한 숭고한 대상으로 승화된다.¹²⁴⁾ 거대한 차원의 이데올로기는 회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대상들은 주체에게 숭고한 향유의 대상으로 강제된다. 물신주의 이데올로기는 숭고한 대상들에 대한 향유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적에게 관건이 되는 과제는 이데올로기적 환상과 대상에 대한 향유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지적은 그 과제에 대한 답으로 상징적 구조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횡단을 말한다. 그는 환상 횡단과 교란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인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

‘환상을 횡단하기’라는 개념, 그리고 — 다른 층위에서는 — 사회적 증상을 발생시키는 좌표를 전환시킨다는 개념이 결정적이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진정한 행위는 기저에 놓인 환상을 교란하고, ‘사회적 증상’의 지점에서 그것을 공격한다. (라캉이 이 증상이란 개념의 창안을 마르크스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을 상기하라.)
 [...] 요컨대, 진정한 행위는 그것이 교란하는 헤게모니적인 상징적 장에 대해 단순히 외적인 게 아니다. 행위는 오직 어떤 상징적 장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한 개입으로서만 행위다. 즉, 상징적 장은 언제나 그리고 정의상 그 자체로 ‘탈(脫)중심화’되어 있으며, 중심의 공백/불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가령, 개인적인 생애 서사는 어떤 외상과 타협하려다 궁극적으로 실패한 시도들의 브리콜라주bricolage이며, 사회적 구조물은 자신의 구성적 적대를 전치하려는/흐리려는 궁극적으로 실패한 시도들이다.) 또한, 행위는 난데없이 나타나 상징적 장에 개입하고 이를 교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의 숨겨진, 부인되는 구조화 원리인 이 내속적 불가능성, 결림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 구성적 공백, 실패의 지점 — 또는 알랭 바디우가 주어진 배치의 ‘증상적 뒤틀림’(symptomatic torsion)이라고 불렀던 것 — 에서 개입하는 이 진정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진정하지 못한 행위는 주어진 배치의 실제적 완전함의 지점(정치적 영역에서의 인종, 참된 종교, 민족 등)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것이 겨냥하는 건 바로 그 배치의 균형을 교란하는 ‘증상적

124) ibid, pp. 16.

뒤틀럼'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¹²⁵⁾

‘환상 횡단하기’는 지젝에 의해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된다. 그는 상징적 체계를 받아들인 주체의 사회적 증상과 관련된 좌표를 전환하는 것이 ‘환상 횡단하기’의 요점이라고 말한다. 지젝의 ‘환상 횡단하기’는 대상들을 숭고하게 만드는 환상 배후에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다. 환상은 단지 초라한 ‘무(nothingness)’ 자체를 가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¹²⁶⁾ 주체는 대상들에 대한 환상을 넘어서 그 배후의 초라함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젝은 환상을 넘어설 때 ‘진정한 행위(authentic act)’가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상징적 의미체계는 지젝이 볼 때 이미 공백이나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예컨대 ‘계급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¹²⁷⁾는 이데올로기를 생각해보자. 계급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의 위치는 순전히 그 사람의 경험과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는 불합리한 사회적인 구조를 은폐하려고 시도한다. 지젝이 상징적 체계가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은폐 시도가 완벽히 성공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다. 사회적인 계급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동원된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불가능성을 두고 형성되었기에 균열의 지점을 품고 있다. 지젝이 말하는 ‘진정한 행위’는 내재해 있던 이 균열의 지점에 개입해 상징적 체계를 교란하는 것이다. 반면 이데올로기적 행위는 ‘진정한 행위’와는 달리 주어진 사회적 배치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교란이나 ‘증상적 비틀림’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¹²⁸⁾

125)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pp. 124-5.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박대진·박미선 옮김, 도서출판b, pp. 184-5.)

126)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pp. 141.

127) ‘there is no class relationship’, *ibid*, pp. 141.

128) 지젝은 진정한 행위와 진정한지 못한 행위를 대비시킨다. 진정한지 못한 행위는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실체적 완전함을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과정으로 교란적인 진정한 행위를 잠재우려는 시도다. 그는 실체적 완전함을 정립하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시도의 예시로 나치의 유대인 박해나 세르비아 시위의 반(反)알바니아 민족주의를 들고 있다.

지젝의 정치학은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은폐하는 체계의 내적 불가능성과 균열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그는 불가능한 것을 무릅쓰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환상적 구조와 상징적 체계로 안정감을 얻고 살아가는 주체에게 이를 넘어서라는 요구는 과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진정한 행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 상징 질서에 개입하여 그 질서에 균열을 내는 행위로 급진적이면서도 정치적”¹²⁹⁾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출발해 환상의 횡단과 과감하고 급진적인 행위를 모색하는 지젝의 사유 전개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대한 이론적인 구상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사회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의 이데올로기적 정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대의 정치 이론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다.¹³⁰⁾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지젝의 이론에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는 상징적 체계의 불가능성에 개입하는 급진적이고 진정한 행위에 대한 모호한 낙관주의를 보인다. 이데올로기적이고 환상적인 주체에 대한 예리한 분석 이후 지젝은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와 체계의 교란을 다소 성급하게 확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버틀러가 제시한 교란적 반복과 그가 말하는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 지젝은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의 한계를 말하고 오히려 내부적 결핍에 가까이 다가서는 행위를 말한다. 체계의 불가능성에 근접한 급진적인 행위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는가?¹³¹⁾

이때 지젝이 논의를 전개해나가며 자주 제시하는 문화적 예시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우발성, 헤게모니, 보편성』에서 그는 <인앤아웃>¹³²⁾과

129)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혁명적 정치의 가능성 탐구」, pp. 46.

130) 지젝의 문제 제기는 왜 주체는 권력에 복종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주체의 복종은 정치학적 논의에 있어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라캉과 지젝만이 아니라 스피노자, 들뢰즈, 알튀세르 등의 이론가들도 탐구한 문제이기도 하다.

131) 코맥 맥카시를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으로 해석한 시도로는 다음이 있다. 안상연, 「이데올로기적 환상과 실제—코맥 맥카시의 『로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 61집, 2016.

132) *In & Out*, Frank Oz, Paramount Pictures, 1997.

<비상계엄>¹³³⁾이라는 영화 두 편에 대한 독해를 시도한다. 지젝에 따르면 두 영화 모두 과잉적 향유의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앤아웃>은 미국 인디애나 주 조그만 마을의 학교 교사인 브래킷(Brackett)에 관한 영화다. 그는 한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브래킷의 예전 제자이자 배우인 카메론 드레이크(Cameron Drake)는 수상 수감을 말하다 그가 게이임을 아웃팅(outing)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마을에서는 촌극이 벌어진다. 지젝은 브래킷이 결혼식에서 영겁결에 내뱉게 되는 말에 주목한다. 그는 주례 목사의 지시에 따라 약혼자인 에밀리(Emily)를 사랑한다고 말해야 했으나 자신이 게이라고 말해 버리고 만다. “즉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하여 우리 관객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놀라게”¹³⁴⁾ 된다. 지젝이 보기에 안정적인 관습 체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브래킷의 커밍아웃은 과한 향유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¹³⁵⁾

다음으로 <비상계엄>은 극단적인 테러 위협에 맞서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FBI 수사관인 주인공 안소니 허바드(Anthony Hubbad)와 보수적인 미국의 장군 윌리엄 데버러(William Devereux) 간의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다. 허바드는 데버러에 맞서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성공적으로 테러 시도를 저지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지젝은 이 영화가 “선량한 자유주의

133) *The Siege*, Edward Zwick, 20th Century Fox, 1998.

134)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pp. 180.

135) 지젝은 각주에서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영화의 조그마한 마을 공동체는 브래킷의 커밍아웃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다 우리 모두가 게이라는 갑작스럽고 쉬운 태도 전향을 보인다. 지젝은 이 관용적 연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영화 텍스트로는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All That Heaven Allows, Douglas Sirk, Universal Pictures, 1955)을 참조해볼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보수적인 마을 사람들은 여성 미망인 캐리(Cary)와 젊은 정원사 론 커비(Ron Kirby)간의 약혼을 조롱한다. 그러나 캐리가 파혼을 선언한 이후 마을 사람들과 자식의 보수적인 존재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커비와 결혼하라는 마을 의사의 권유를 받기에까지 이른다. 다소 상이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두 영화는 공통적으로 주인공의 과격적 욕망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가 ‘사생활’ 깊은 곳에 숨겨둔 채 은밀하게 즐기는 모든 역겨운 환상들이 되살리고는 그런 절차들을 단호하게 경멸함으로써”¹³⁶⁾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고 본다. 관용적 자유주의가 사실 숨기고 있던 과한 향유를 보여주고는 영화 내에서 이를 끄찍한 것으로 경멸하고 거부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부로부터 자유주의의 숭고함이 확보되게 된다. 자유주의는 그 체계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외설적인 폭력성과 과잉적 향유를 드러내기 마련이지만 이데올로기적인 허위성을 띤 <비상계엄>은 그에 대한 거리를 확실히 확보해낸다. 지적은 <비상계엄>을 짚고는 오히려 권력 체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공적인 규범들에 상충되어 부인되어야 하지만 ‘내재해 있는 일탈’(inherent transgression)과 ‘외설적 실천’(obscene practice)¹³⁷⁾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¹³⁸⁾

<인앤아웃>에 등장하는 브래킷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보수적인 시골 마을의 이성애 중심적 체계가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브래킷은 마을의 교사이기에 제자 드레이크의 폭로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의 이성애적 결혼은 완수되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결혼식장에서의 브래킷의 커밍아웃은 지적이 보기에 이성애적 체계가 침묵시키려 했던 외설을 드러낸 실천이다. 이성애적 규범 체계가 끝내 제거하지 못한 내적인 잔여는 브래킷의 일탈적인 실천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한편 <비상계엄>에서 테버러 장군은 자유주의 체계 수호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될 수 있음을 예증해 보이는 인물이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보편적 가치로 삼는다.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체계에 위기가 닥쳤을

136)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pp. 298.

137) <비상계엄>과는 달리 외설적 실천과 향유를 끝까지 보여주려고 노력한 영화로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 Stanley Kubrick, Columbia Pictures, 1964.)를 꼽아볼 수 있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서는 망상에 빠진 리퍼 장군(General Ripper)을 그의 부관인 맨드레이크(Mandrake)와 여타 인물들이 결국에는 막지 못한다. 핵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외설적 향유가 가져올 수 있는 참담한 결과를 제시해 보인다.

138)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pp. 218.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pp. 298.)

때 그 보편적 가치는 제한된다. 상징적 체계의 내재적 불가능성이 현저해질 때 다시금 이데올로기적 봉합을 하는 이는 주인공 허바드다.

이렇듯 지젝이 강조한 외설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는 어떠한 정치적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는 체계의 의미화 작업이 완벽히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의 지점, 달리 말하면 ‘외상적 중핵(traumatic kernel)’에서 전복적인 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행위는 상징계적 의미와 주체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환상을 횡단한 것이기에 “주체적 궁핍”¹³⁹⁾을 불러오며 상징적 현실의 틈을 벌린다. 그는 이를테면 “주체란 그 자체로 세계라는 직물 속의 어떤 근본적인 전치, 상처 내지 결핍에 붙여진 이름”¹⁴⁰⁾이라고 말한다. 지젝의 정치적 저항에 대한 구상은 묘하게도 버틀러가 논하는 저항과 상당히 닮아있다. 그는 체계의 규범적 질서가 완벽히 성공적으로 금지하지 못한 것을 실천과 연결짓기 때문이다. 특히 <인앤아웃>의 브래킷이 보이는 커밍아웃은 지젝의 외설적 실천이 버틀러의 반복적 수행 간 유사성을 부각해 보인다. 브래킷은 이성애적인 체계의 통제에서 일순 벗어나는 행위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에도 두 이론가의 명확한 입장 차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젝은 상징적 체계의 완벽한 의미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데 반해 버틀러는 닫힌 체계의 바깥을 상징하는 것을 거부한다. 지젝은 체계의 불완전함을 강조하지만, 버틀러는 체계의 폭력성에도 주체가 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젝에게 초점은 보편적 체계의 변혁에 맞춰져 있다면 버틀러는 다양한 양태의 소수자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젝이 환상을 넘어선 주체의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행위를 말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체계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그에 반해 버틀러는 보편적 체계가 소수자들의 삶의 양태를 인정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 자신의 이론적 방점을 찍는다. 이러한 차이는 두 이론가 간의 이론적 논쟁의 시발점이 된다.

두 이론가의 입장 차에도 지젝의 행위와 버틀러의 수행성 사이의 유사성은 지젝으로 하여금 버틀러와 자신의 방안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

139) 「지젝이라 불리는 공간」, pp. 25.

140)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pp. 18.

게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젝은 버틀러의 이론적 입장을 비판하는 가운데 구분 작업을 시도한다.

우리는 버틀러가 급진적 차원에서의 행위와 상징계의 조건들을 반복적인 전치를 통해 수행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기에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패권적 장에 머무른 채로 그 장의 언어로 저항하는 내적인 게릴라를 행하는 전복적인 전치인 단순한 수행적인 재구성(reconfiguration)과 사회적으로 일관된 수행의 근본 조건들을 새로이 정의하게 만드는 패권적 장 전체의 철저한 재구성을 부르는 급진적인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므로 버틀러는 정확히 지배적인 담론의 주변적인 재구성을 승인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녀는 오직 주변적으로만 전치되고 위반될 수 있는 지배적 담론으로 가장한 대타자를 참조 지점으로 필요로 하는 내재적인 위반의 위치에 제약되게 되는 것이다.

라캉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버틀러는 따라서 너무 낙관주의적인 동시에 비판적이다. 한편으로 그녀는 수행적인 재구성과 전치의 실천을 통해 대타자를 교란하는 것에 과대평가된 전복적 잠재성을 부여한다. [...] 다른 한편으로 버틀러는 패권적 상징계적 질서의 총체적 재구조화를 통한 급진적인 제스처를 허용하지 않는다.¹⁴¹⁾

지젝은 버틀러의 수행성과 자신의 행위를 대비시킨다. 그에 따르면 ‘패권적 장(hegemonic field)’ 내부의 자원을 비트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버틀러의 저항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버틀러의 저항은 대타자의 질서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 질서에 의존하고 내재적인 위반이라는 위치에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젝 비판의 요점이다. 그는 자신의 급진적인 행위는 버틀러의 저항과는 달리 상징계 전체의 재편을 불러온다고 공언해 마지않는다. 그러면서 지젝은 버틀러가 저항을 너무 낙관적으로 구상하는 동시에 급진적인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지젝의 비판은 그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맞닿아 있다. 이데올로

141) *The Ticklish Subject*, pp. 264.

기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듯 버틀러의 주변으로부터의 저항은 체계를 급진적으로 재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지젝이 바라보는 저항적 실천의 요점은 상징적 체계 전체를 새로 쓰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도 지젝이 말하는 급진성이 다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역으로 지젝에게 질문해볼 수 있다. 그는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상징계적 체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특히 그는 주체의 주관적인 개입과 실천이야말로 체계의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지젝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내비친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사실들 배후에는 언제나 다양한 주관적인 결정들과 행위들이 있어 우리는 결코 순수하게 ‘객관적인’ 상황의 영도(zero-level)에 도달할 수 없다. 궁극적인 요점은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측면 사이의 전 지구적인 매개의 과정으로서의 사회적 총체성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행위는 절대로 객관적인 조건들의 결과로 환원될 수 없다.¹⁴²⁾

지젝은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주관적인 결정들과 행위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은 허위에 불과하며 주관적인 행위는 객관적인 것들로 결코 환원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의 주장처럼 거대한 변혁은 주체의 급진적인 행위로 촉발되기도 한다. 그리고 급진적인 체계의 총체적 변화를 말하며 버틀러와 들뢰즈주의를 비판하는 것¹⁴³⁾도 전 지구적인 자유주의-자본주의 체계에 맞서기 위한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체계의 전면적인

142) Slavoj Žižek, “From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to 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German Critique*, No. 81, 2000, pp. 120.

143) 들뢰즈와 이후 들뢰즈주의에 대한 지젝의 비판으로는 다음을 참조. Slavoj Žižek, “The Ongoing ‘Soft Revolution’”, *Critical Inquiry*, Vol. 30, No.2, 2004, pp. 292-323. 그는 이 논문에서 파시즘과 금권정치(netocracy)의 문제를 다루며 들뢰즈주의를 비판한다.

재편을 바라는 지젝은 물질적인 조건들과 역사적인 흐름을 충분히 자신의 논의에 포함하는 것 같지 않다. 그는 물질적인 조건들과 여러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효과보다는 주체의 주관적이고 급진적인 행위를 강조한다. 지젝의 이론은 불완전한 대타자와 상징계, 주체의 환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기에 그의 이론은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여건들이 발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¹⁴⁴⁾ 따라서 지젝의 버틀러 비판을 따라 그의 이론이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지 반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현 체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또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개입이 아니라면 체계 영합적인 것이라는 과도한 비판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젝은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허위성을 지적하고 그로부터 정치적인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그의 이론은 자유주의적 체계가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은 현재의 시대에 날카롭고 신랄한 비판 지점을 제공해준다. 더불어 그가 말하는 횡단적 주체와 주관적인 개입은 주어진 현실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여지를 사유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젝의 이론은 급진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은 낙관주의를 보인다. 그는 어떠한 체계의 변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때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젝의 『안티고네』 각색이다. 지젝의 안티고네 각색은 그가 논하는 체계에 대한 저항이 어떠한 형태를 띌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안티고네』(2016)는 앞서 살펴본 버틀러의 안티고네와는 다른 지젝의 안티고네를 탄생시켰다. 특히 그가 버틀러와는 달리 각색을 시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포클레스의 텍스트와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44) 지젝 이론의 구체성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Aijaz Ahmad, “Three ‘Returns’ to Marx: Derrida, Žižek, Badiou”, *Social Scientist*, Vol. 40, No. 7/8, 2012, pp. 43–59. Geoff Boucher, “An Ideological Conception of Politics: Critique of Žižek on Political Theology”, *Critique*, Vol. 44, No. 4, 2016, pp. 451–63. Petar Ramadanovic, “No Place like Ideology (On Slavoj Žižek)”, *Cultural Critique*, Vol. 86, 2014, pp. 119–38.

2. 괴물 안티고네

지젝은 일찍이 여러 텍스트에서 『안티고네』 텍스트를 향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특히 주체를 강요하는 사회정치적 질서를 고려하며 『안티고네』를 읽는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적 자본주의만이 수용 가능한 ‘운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젝이 보기에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 노동 분규 등은 “세계적 자본주의를 가능한 한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적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¹⁴⁵⁾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지젝은 인간적 자본주의를 위한 기존의 노력과는 상이한 급진적인 정치적 상상력과 실천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세계적 자본주의의 불공정함 자체를 지적하고 바꾸려는 정치적 제안은 반대에 맞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이 모두를 행한다면 국제적 자본이 우리를 보이콧할 것이고,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고 등등의”¹⁴⁶⁾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지젝은 이에 과감하고 진정한 행위를 촉구한다. 자본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물신”과 환상을 넘어서 “좀 더 나은 삶”¹⁴⁷⁾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안티고네는 환상을 넘어선 주체로 지젝의 시야에 들어온다.

안티고네는 효율적으로 그녀의 사회적 존재 전반의 위협을 감수하며 크레온이라는 통치자로 체화된 도시의 사회적이고 상징계적 권력을 거역한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사회적이고 상징계적인 공간으로부터 배제된 상징계적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죽음으로 떨어지게 된다. 라캉에게 있어 순간적인 (주체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사회적이고 상징계적인 관계망인) 대타자의 유예를 감수하지 않는 참된 윤리적 행위는 없다. 진정한 행위는 주체가 대타자에 의해 더는 은폐되지 않은 몸짓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캉은 두 번의 죽음들 사이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든 가능한 판본들을 추구한다. [. . .] 그들의 공통적인 끈경은 그들이 죽음과 삶을 넘어선 온전히 죽

145) 지젝, 박대진·박제철·이성민 옮김, 『이라크』, 도서출판 b, 2004, pp. 99.

146) Ibid, pp. 100.

147) Ibid, pp. 107-8.

지 않은(undead) 영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상징계적 운명의 인과성은 유예된다.¹⁴⁸⁾

라캉의 안티고네 이해를 바탕으로 지젝은 안티고네라는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형성한다. 안티고네는 상징계적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젝은 주체의 안정적인 정체성을 보장하는 상징계적 질서를 거부한 안티고네의 주체적 결단이야말로 상징계의 작동을 잠시 유예한다고 본다. 지젝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안티고네와 상징계적 작동 간 관계로 라캉의 『안티고네』 해석을 기초로 한다. 라캉 『안티고네』 해석의 초점은 주체에 맞춰져 있다. 라캉의 안티고네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로 그가 말하는 윤리를 체현한다. 그는 『세미나 7권』에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논한 바 있다. “욕망이 도달하는 극한의 승화 지점, 즉 무 혹은 무의미(를 향유하기)로부터 주체의 윤리성”¹⁴⁹⁾이 출범한다.¹⁵⁰⁾ 즉,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향유를 추구하는 안티고네는 초자아에게 굴하지 않은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주체의 한 전형이 되는 것이다.¹⁵¹⁾ 이러한 이유로 라캉의 『세미나 7권』은 라캉이 주체의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적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⁵²⁾

한편 지젝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체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는 윤리적인 주체가 상징계적 작동의 유예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티고네는 지젝에게 체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횡단적인 주체다. 횡단적 주체 안티고네는

148) *The Ticklish Subject*, pp. 263-4.

149) 홍준기, 「욕망과 충동, 안티고네와 시뉴에 관한 라캉의 견해」, 『시대와 철학』, 제20권 2호, 2009, pp. 57.

150) 이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덕희, 「에우리피데스와 라신 비극 속 이오카스테와 안티고네—여성적 윤리와 여성적 주이상스」, 『세계문학 비교연구』, 제46집, 2014.

151) *ibid.*, pp. 79.

152) 『세미나 7권』을 중요하게 간주하여 강해를 시도한 작업으로는 다음을 참조. 백상현, 『라캉의 인간학: 세미나 7권 강해』, 위고, 2017.

모성을 따르지 않고 뜻을 굽혀 종속되기를 거부한 자¹⁵³⁾이며, “비인간적인(inhuman)”¹⁵⁴⁾ 인물로 해석된다. 라캉의 안티고네가 무의미함과 죽음을 직시하는 숭고한 주체라면 지젝의 안티고네는 체계를 흔들게 되는 급진적이고 횡단적인 주체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지젝은 체계로부터의 일탈을 강조하고 자신이 말한 ‘행위’(act)의 여파로 주체가 감수하게 되는 효과를 설명한다.

‘행위’는 일종의 일시적인 주체의 퇴색 내지는 소멸(aphanisis)을 수반한다. [...] 이 행위로 인하여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상징계적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러므로 ‘행위’는 항상 범죄이자 일탈이고, 달리 말하자면 내가 속한 상징계적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¹⁵⁵⁾

지젝은 ‘행위’가 일시적인 주체의 ‘소멸(apanisis)’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는 라캉의 뒤를 이어 윤리적 행위가 상징적인 정체성은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고 상징계적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고 바라본다.

지젝이 해석하는 안티고네는 주체적인 소멸을 겪는 인물이다. 왕족으로서 안정적인 상징계적 위치를 누리고 있던¹⁵⁶⁾ 안티고네는 크레온에 저항하여 추락하게 된다. 안티고네의 소멸과 추락은 크레온으로 대표되는 법적 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한 근본적인 ‘행위’로 인해 귀결된 것이다. 지젝의 ‘행위’는 상징계의 규율을 거부하고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는 안티고네의 일탈과 겹쳐질 수 있다. 횡단적 주체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칙

153) Slavoj Žižek, *Living in the End Times*. London; New York: Verso. 2010, pp. 104.

154) Slavoj Žižek, *The Parallax View*. Cambridge, Mass; London: MIT Press. 2006, pp. 42.

155) Slavoj Žižek, *Enjoy your Symptom! Jacques Lacan in Hollywood and Out*,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2, pp. 44.

156)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와 폴리네이케스처럼 완강한 태도를 보이기에 그녀의 비극은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의 몰락 이후 죽을 때까지 그를 보필하느라 안정적인 위치에서 잠시 내려오기도 했으나 그녀의 몰락은 확연하다. 특히 동생 이스메네와의 대비는 안티고네의 비극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령이 부과했던 금지를 거부하고 단호히 위반의 행위로 나아간다. 지젝은 안티고네를 자신의 정치적 투사로 해석해내는 것이다. 안티고네가 보인 체계에 대한 단호한 거부는 그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젝은 안티고네를 향한 관심을 바탕으로 라캉의 해석을 넘어 자신만의 안티고네를 내놓게 된다. 그는 비교적 최근의 저작 『안티고네』(2016)에서 고대 비극의 현대적 각색¹⁵⁷⁾을 시도한다. 소멸을 감수하던 정치적 투사였던 안티고네는 이 각색에서 초과적인(excessive) 존재로 거듭난다. 그는 서문에서 『안티고네』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드러낸다. “원작에 대한 충실함’ 개념이야말로 우리가 이미 현대적 공간에 있음을 알리는”¹⁵⁸⁾ 일이라 공언하며 지젝은 과거가 아닌 현대적 공간에서 안티고네를 새로이 써 보고자 함을 밝힌다. 지젝의 『안티고네』 각색 시도는 여러 문화적 전례¹⁵⁹⁾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라캉의 숭고한 안티고네와 급진적 주체 안티고네를 거쳐 새로운 안티고네를 구상하는 가운데 상이한 문화적 텍스트들이 고려된 것이다.

그 중 클로델의 『인질』은 지젝이 제안하는 괴물 안티고네의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질』의 시뉴 드 쿠포텐(Sygne de Coufontaine)은 특유의 발작적인 입술 경련(twitch)을 보이고 이는 “그

157) 지젝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재구성 및 각색은 그의 이론적 입장에 맞춰 진행된 작업이다. 이렇게 원전을 비트는 시도는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다. 이론적 관심사에 맞춘 수정이기에 원작 비극 텍스트의 예술성이나 비극성은 많은 부분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젝의 각색이 원작과는 달리 몇몇 구체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지젝의 시도는 이론가가 직접적으로 문학 텍스트를 자신의 이론적 구미에 맞게 수정해 새롭게 얘기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론가와 문학 텍스트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는 이론가가 문학 텍스트 전반에 대한 꼼꼼한 독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어려워진다. 이미 이론가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문학 텍스트를 재구성해냈기 때문이다.

158) *Antigone*(2016), pp. xii.

159) 지젝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파르지팔』의 각색을 참고하는가 하면, 키에르케고르의 『안티고네』 해석, 구약 성서의 아브라함(Abraham),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일화를 흥미롭게 서술한다. 그중에서도 폴 클로델(P. Claudel)의 『인질』(*L'Otage*)과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녀 얼굴의 통일성”을 깨뜨린다. 지젝은 안티고네가 시뉴의 경련을 모방하게 하여 “그녀 행위의 괴물성(monstrosity)”¹⁶⁰을 일깨우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가 “고대의 전통”을, 시뉴는 괴물과도 같은¹⁶¹ “기독교의 전통”¹⁶²을 상징한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지젝은 고대 비극의 세계관을 참조하던 라캉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티고네를 현대적인 인물이자 괴물로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젝의 안티고네는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질서인 “유모니아(eunomia)”¹⁶³를 깨뜨리는 “악마적이고 기이한(uncanny)”¹⁶⁴ 존재가 된다.

다음으로 『안티고네』(2016)의 서론에서 지젝은 버틀러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안티고네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 버틀러의 안티고네 해석과 버틀러의 이론적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지젝은 버틀러가 해석한 안티고네를 배제되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인물이자 “기존의 상징계적 질서의 근본적인 ‘재절합’(rearticulation)을 목표로 하는 유토피아적인 견지에서”¹⁶⁵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정리한다. 또한, 그는 버틀러가 라캉의 상징계를 억압적인 보편적 체계¹⁶⁶로, 상징계의 법을 “변화에 열려

160) *Antigone(2016)*, pp. xv.

161) 지젝은 서문에서 기독교 전통에서의 예수의 괴물성에 대해 논한다. 그는 예수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과 렘브란트의 그림을 참조하며 라자루스(Lazarus)를 되살릴 때 예수의 경악을 예시로 들어 보인다. 지젝에게 있어 이런 기독교적인 사랑과 기적은 경악을 불러오는 괴물적인 것으로 기독교의 외상적인 중핵을 잘 보여준다. 지젝의 외상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혜욱, 「지젝의 외상과 바틀비의 정치학」, 『비평과 이론』, 제 17권 2호, 2012.

162) *ibid*, pp. xvi.

163) *ibid*, pp. xix.

164) *ibid*, pp. xx.

165) *ibid*, pp. xxii.

166) 라캉에 대한 버틀러의 비판으로는 『젠더 트러블』, 『문제는 몸이다』, 『안티고네의 주장』, 『우발성, 헤게모니, 보편성』 등의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버틀러는 일관적으로 라캉의 상징계의 보편적 구조가 개별자들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이미 버틀러와 『우발성, 헤게모니, 보편성』에서 논쟁을 벌인 바 있는 지젝은 버틀러의 비판을 잘 인지한 채로 버틀러의 안티고네를 파악하고 있다. 버틀러는 기존의 공고한 정상 가족 체계를 넘어서는 ‘실재’의 급진성이 담긴 바깥이자 죽음을 향하고 있어 결국에는 기존의 확립된 체계를 재

있는 일련의 가변적인 사회적 협의”¹⁶⁷⁾로 이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적은 아감벤(Agamben)의 개념인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 관한 버틀러의 이해¹⁶⁸⁾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개입해 들어간다.

[...] 세 번째 옵션은 어떠한가? 친족 관계 그 자체를 재절합하고 (rearticulating) 상징계적 법을 변화에 열린 일련의 우발적인 사회적 배치로 재고하는 옵션 말이다. 안티고네는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열망하는 모든 전복적이고 병리적인 요구들을 대변한다. 하지만 안티고네의 대변을 ‘호모 사케르’와 연관 짓는 것은 아감벤 분석의 기본적인 요지를 잘못 파악하는 일이다. 아감벤의 이론에는 주변적 존재들의 목소리의 가시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온전한 시민들과 호모 사케르를 분리하는 (정상성의) 한계를 협상 끝에 재설정하려는 민주적인 프로젝트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오히려 그의 요점은 현대의 ‘포스트 정치학(post-politics)’에서는 바로 그 민주적이고도 공적인 장소야말로 우리 모두 호모 사케르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은폐하는 가면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도르노와 푸코와 같이 사회 발전의 비밀스러운 목적인(telos)이 모두가 생명 정치의 대상으로 환원되는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세계(administerd world)’로 종결된다고 보는 이론가들의 대열에 전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가? 아감벤은 성자 폴에 대한 세밀한 독해에서 어떠한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아적 차원의 효력을 재언명한다. 이 메시아적 차원이 의미를 지닌다면 ‘그저 그러한 삶(mere life)’이 더는 정치의 궁극적인 영토가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간이 도래하길 기다리는 메시아적 태도에서 유예되는 것은 ‘그저 그러한 (일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한다고 본다. 버틀러의 라캉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해볼 것이다.

167) Ibid, pp. xxiii.

168)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버틀러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의 사례를 들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개념을 가지고 온다. 버틀러는 그에 대한 애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들이 ‘공적 영역의 멜랑콜리아(melancholia of the public sphere)’를 불러온다고 본다. (pp. 81) 그에 비해 지적은 아감벤의 메시아주의에 주목한다. 두 이론가의 이론적 지향점이 대조적 차이를 보이는 순간이다.

관리되는) 삶'의 중핵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포스트 정치학'의 근본적인 특징은 정치학을 (주체의) 삶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생명 정치학(bio-politics)'으로 환원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¹⁶⁹⁾

서론의 이 문제적인 대목은 지젝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 문제적인 지점들을 드러낸다. 우선 그는 상징계와 친족 체계가 변화에 열려 있는 가변적인 사회적 배치라는 버틀러의 논리를 검토한다. 지젝은 버틀러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변한다고 본 안티고네를 그려낼 때 참고했던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개념을 가지고 버틀러를 비판한다.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는 소수자의 사회적 공인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냉전시 이후 도래한 '포스트 정치학'의 시대에선 버틀러가 강조하는 민주적인 논의와 요구야말로 모두가 감시되고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주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가면과도 같다는 것이다. 아감벤은 주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호모 사케르에게 가해지는 배제의 원리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도래할 정치적 가능성과 메시아주의를 보고자 한다. 배제의 원리와 메시아주의는 정치가 단순히 통치와 관리 체계로 볼 수 없게 한다.¹⁷⁰⁾ 또한, 지젝은 푸코와 아도르노가 주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생명 정치'로부터의 탈출구를 사유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아감벤의 메시아주의가 일상의 질서가 유예되는 순간의 도래를 말한다면 '생명 정치'는 체계의 관리 내에 머무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푸코, 아도르노에 대한 지젝의 이러한 정리는 이론적인 논쟁을 촉발한다. 그는 체계의 혁명적 변화를 이론적으로 구상하는 한편 푸코와 아도르노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푸코, 아도르노 그리고 버틀러가 보여주는 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신자유주의 체계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적

169) *Antigone*(2016), pp. xxiii-xxiv.

170) 아감벤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재철, 「아감벤의 공간 그리고 탈식민주의」, 『비평과 이론』, 제 23호 2권, 2018, pp. 67-92, 권혁미,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현대영미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호, 2017, pp. 58-63, 서용순, 「바디우와 아감벤의 예외의 주체 이론」, 『비평과 이론』, 제 22호 2권, 2017, pp. 63-84.

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젝은 그러한 분석이 탈출구 없는 ‘생명 정치학’으로 귀결되지 않는까 우려한다. 그렇기에 위 대목은 지젝의 입장과 그로부터 탄생할 안티고네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포스트 정치학’의 시대에서 일상적인 ‘겨우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는 체계에 의해 안정성을 확보한 그러한 삶의 질서가 유예되는 순간을 이론화하고자 한다. 즉, 지젝의 안티고네는 체계 정합적인 삶을 유예하는 괴물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버틀러의 안티고네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지젝의 괴물 안티고네를 살펴볼 수 있는 『안티고네』(2016)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분기점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젝은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결말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지젝의 『안티고네』 텍스트 각색에서 가장 중요한¹⁷¹⁾ 다른 결말을 예시하는 분기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기점은 다음과 같은 코러스의 노래로 시작된다.

코러스

많은 기이하고 악마적인 것들이 있지만
 인간보다 더 기이하고 악마적인 것들은 없노라.
 인간은 언어와 바람처럼 빠른 생각을 습득하고
 공적이고 시민적인 삶을 위해 감정을 훈련하네.

[. . .]

인간의 자질 중 창의적인 기술은
 예술을 그의 꿈으로 만들고 그를 이끈다네.
 예술은 때론 인간을 악으로도, 선으로도 이끈다네.

171) 지젝은 이 분기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소포클레스의 원전의 전반부를 상당 부분 축소하였다. 그가 밝히고 있듯 이 텍스트는 “예술 작품으로 행세하지 않는 윤리-정치적인 시도”(Antigone(2016), pp. xxv)인 것이다. 분기점 전까지는 주요 굵직한 사건들이 신속하게 전개된다. 물론 분기점 이전 곳곳에서도 지젝의 이론에 따른 비극 텍스트 새로 쓰기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크레온이 안티고네를 취조하는 장면 새로 쓰기 시도는 흥미롭다. 지젝의 각색에 따라 크레온은 자신이 그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도시의 법과 정의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안티고네는 테베 시민들이 크레온 때문에 입을 닫고 있을 뿐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ntigone(2016), pp. 9)

만약 인간이 자신의 나라의 법을 제대로 존중하고
신들에게 맹세함으로써 정의를 명예로운 것으로 기린다면,
그 도시에서 그는 큰 명예를 얻을 것이네.
하지만 그가 뻔뻔해지고 악해진다면,
어떠한 도시도 누릴 수 없네.
그러한 인간은 나와 집을 공유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혜라네.
오만한 인간의 자량은 엄청난 처벌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혜란 신들에게 불경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네.¹⁷²⁾

아직까지는 지혜로운 원로의 역할을 자처하는 코러스의 노래는 인간 존재를 규정한다. 인간이 악마적이기도 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 가운데 코러스는 지혜를 강조한다. 예술은 인간을 악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자신의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라면 선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러스는 이를테면 그리스 비극 전반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교만함(hubris)’을 경계한다. 코러스의 이 교훈적인 노래는 지젝 각색의 가장 큰 특징인 다른 결말들을 불러온다. 소포클레스 비극이 전달하는 교훈 위에 지젝은 자신의 원전 텍스트 비틀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교훈극으로서의 『안티고네』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지젝의 각색은 결말을 세 가지나 담아내고 있지만 그중 하나는 비교적 원작의 결말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지젝이 새롭게 제시하는 두 가지의 다른 결말은 어떠한가? 지젝은 우선 안티고네가 비극적 최후를 맞지 않는 결말을 상상한다. 안티고네는 재촉해 달려간 크레온에 의해 구출되고 안티고네, 크레온, 하이몬(Haemon)은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장례를 치러준다. 문제는 그 후로 이에 동요한 테베 시민들은 궁전으로 달려가 크레온과 하이몬을 살해함으로써 그들의 “악마적 열정”을 드러낸다.¹⁷³⁾ 안티고네는 “태곳적 법에 대한 존중”으로 우러나온 “적절한 장례에 대한 겸허한 요구”가 어떻게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

172) *Antigone*(2016), pp. 18-19.

173) *Antigone*(2016), pp. 22.

는지 이해하지 못한다.¹⁷⁴⁾ 지젝은 이때 코러스의 입을 빌려 답한다. 교훈을 설교하던 코러스는 돌연 지젝의 이론을 바탕으로 안티고네의 잘못을 지적한다.

코러스

사회는 언어의 끈으로 유지되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로고스의 영역은

항상 말할 수 없는 것의 소용돌이 주위를 돈다네.

그리고 이 신묘한 소용돌이에

우리는 모든 노력과 분투를 쏟게 된다오.

우리의 진정한 충실함은 말할 수 없는 것에 가 있소.

가장 위대한 지혜는 심지어 최상의 태곳적 법이라 하더라도

언제 이를 깨뜨리라고 그 충실함이 강요하는 바를 아는 것이오.

[. . .]

안티고네 당신은 여기에서 잘못했소.

당신은 모든 것을 (자연)법을 위해 희생하는 바람에

법 자체를 잃게 된 것이오.¹⁷⁵⁾

코러스는 로고스의 영역의 중핵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의 소용돌이가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 소용돌이 근처에서 노력과 분투를 보인 끝에 그들의 ‘충실함(fidelity)’을 드러내게 된다. 지젝은 코러스를 통해 태곳적인 자연법에 대한 꺾이지 않는 신념을 보였던 것이 안티고네의 실책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안티고네가 끝까지 법적 질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법 자체라는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법적 질서를 깨뜨리는 영역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티고네는 “고귀한 영웅”이 아니라 “비참하고” “기이한” 존재로 묘사된다.¹⁷⁶⁾

지젝의 이러한 첫 번째 비틀기 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는 라캉의 고귀한 안티고네와 달리 지젝의 안티고네는 기이하고 괴물적인 존재다. 특히 지젝은 안티고네가 끝까지 고수한 태곳적 자연법에 주

174) *ibid*, pp. 23.

175) *ibid*, pp. 23.

176) *Antigone*(2016), pp. 24.

목한다. 자연법이 부과하는 질서에 강박적으로 머무르려고 한 안티고네는 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지젝의 이러한 해석은 안티고네를 커츠(Kurtz) 대령의 옆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티고네는 이데올로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향유를 보인 커츠 대령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암흑의 핵심』¹⁷⁷⁾에 등장하는 커츠 대령은 콩고에서 상아를 보내고 원주민들을 교화하라는 임무를 받은 후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향유를 보인다. 그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을 다스리고 공격하여 풍족한 양의 상아를 공급한다.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상아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을 명했을 따름이지만 커츠 대령은 그 이면의 폭력성을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비해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칙령으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적 명령에 저항한다. 그녀는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향유를 보이는 커츠 대령과는 다른 인물이다. 안티고네가 표방하는 것은 태곳적인 자연법으로 이는 크레온의 명령과는 대립각을 형성한다. 지젝은 안티고네가 죽은 이를 매장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자연법적 질서에 대한 집착을 보여 괴물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안티고네의 괴물적 면모는 민중의 걸잡을 수 없는 분노와 폭동을 유발한다. 안티고네는 자연법에 따라 자신이 행동하게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자연법 질서에 대한 향유를 보인다. 지젝은 바로 이러한 상징계적인 질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괴물의 탄생과 체계의 균열을 예시한다고 본다. 버틀러가 안티고네를 지배적인 담론에 섞여 있는 저항 담론의 담지자로 해석했다면 지젝은 과도한 향유로 인해 체계가 제거해야만 하는 인물로 안티고네를 해석한다. 저항 담론의 선봉에 서 있는 안티고네와 괴물 안티고네가 대비를 이룬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젝이 소포클레스의 원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민중의 행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말하던 주관적 개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티고네의 말을 따라 크레온과 하이몬이 폴리네이케스에게 매장의 예우를 다하자 민중의 동요가 잇따른다. 폴리네이케스를 나라의 반역자로 간주하던 민중은 성난 벌

177) Joseph Conrad, *Heart of Darkness*, W. Blackwood & Sons, 1902.

때가 되어 테베는 혼란에 빠진다. 지젝은 주관적 개입으로 인한 변혁의 순간을 묘사해 보인다. 혼란스러운 역사적 변화의 순간은 객관적인 여건 속 주체의 개입을 통해 전개된다. 지젝이 새로이 쓴 비극에서는 민중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다만 테베 시민들의 동요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테베 시민들이 안티고네의 행위를 영예로운 것으로 보고 그녀를 딱히 여긴다는 하이몬의 진술¹⁷⁸⁾은 민의 의 변화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젝의 각색에서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매장이 어떻게 민중의 봉기로 이어지게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괴물 안티고네가 불러일으킨 “악마적인 열정”이 더 상세히 설명되는 것은 세 번째 결말에서다.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 결말에서는 코러스가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코러스는 안티고네에게 심판을 내리려는 크레온을 저지하고는 고통받는 테베 사람들을 위해 “집단 기관(collective organ)”¹⁷⁹⁾으로서 권력을 탈취한다. 크레온은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혹하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만, 코러스는 이를 일축해버린다.

코러스

여기서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소.
리더쉽의 결핍보다 더 큰 해악은 불공정한 지도자로
그가 부과하는 허위적 명령으로 도시에 혼란이 꽃피게 되었소.
그러한 명령은 최악의 무질서를
외설적으로 모방한 것에 다름이 없소.
사람들은 이를 느끼고 그 리더에 저항하게 되었소.
반면에 진정한 질서는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의 공간을 창조하게 된다네.
정말로 훌륭한 주인은 자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오.
일상적 삶에서 우리는 관습에 갇혀 그 너머를 보지 못하네.
진정한 주인을 마주치면 그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178) *Antigone*(2016), pp. 14.

179) *ibid.*, pp. 25.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도록 하오.

[. . .]

진정한 주인은 우리 민중 위에 군림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와중에 소멸하는 매개자라네.¹⁸⁰⁾

지젝의 이론을 대변하는 코러스는 크레온의 허위적 명령으로 인해 최악의 무질서가 도래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외설적으로 권력을 추구한 크레온과 훌륭한 주인(great master)을 대비시킨다. 코러스는 이 주인을 권력자로서 군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매개자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세 번째 결론에서는 안티고네가 처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민중의 대표를 자임한 코러스는 특권층인 귀족 안티고네가 배제된 자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빼앗기에 크레온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라고 규정한다.¹⁸¹⁾ 안티고네는 잔혹한 처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코러스는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참혹한 과국을 불러온다며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¹⁸²⁾ 크레온과 안티고네, 하이몬의 희생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민중 정치의 가능성을 연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러스는 지젝에 의해 적극적인 행위자로 전면에 나서게 되며 그가 사유한 저항과 폭력을 실현한다. 버틀러와 달리 지젝은 안티고네를 특권층의 일부이자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괴물로 바라본다.

지젝의 『안티고네』(2016)는 정치적인 저항과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론적인 시도이다. 특히 그의 각색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나서게 되는 것은 코러스다. 코러스는 지혜로운 원로의 역할에서 벗어나 민중의 해방과 정치적 자유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파격적인 지젝의 이 각색에 두 가지의 비판적인 질문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먼저 그는 코러스를 정치적인 매개자로 제시하고 있지만 코러스 또한 기존 권력의 일원이 아니었는가? 주지하듯 코러스는 크레온을 보필하는 테베의

180) *Antigone*(2016), pp. 26.

181) *ibid*, pp. 27-8.

182) *ibid*, pp. 28-9.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포클레스의 원전에서나 지젝의 각색에서 모두 코러스는 안티고네를 구하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매장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므로 코러스의 급작스러운 개입은 안티고네가 특권층의 일원이라고 본 지젝을 자가당착에 빠뜨린다.

두 번째로 폭력과 자유에 대한 지젝의 사유는 다소 단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러스라는 매개자를 거친 자유의 가능성을 말한다. 일상적 삶에서 예속된 채로 살아가던 민중은 코러스라는 훌륭한 주인을 만나 자유를 향해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체계가 무너져내리고 민중의 정치가 도래를 말하는 지젝은 폭력과 자유의 가능성을 힘주어 강조한다. 그러나 코러스라는 매개자와 민중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그의 논의에서 빠져 있다. 『안티고네』(2016)는 전면적이고 폭력적인 질서 재편이라는 지젝이 바라보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반해 그 후의 정치적 질서에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젝은 『안티고네』(2016)라는 이론적 모험을 시도했으나 문제적인 지점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지젝의 안티고네는 괴물로 처단되지만, 그의 각색과 이론에 제기되는 비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젝은 버틀러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만의 『안티고네』(2016)를 제시했으나 그 또한 비판에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버틀러의 지젝 비판을 돌아보고 그의 이론이 주춤하는 지점을 다시금 정리하는 것으로 지젝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볼 수 있겠다. 횡단적 주체와 괴물 안티고네를 거치며 진행된 지젝 독해는 버틀러의 (재)응답으로 다시 돌아간다.

3. 버틀러가 지젝에게

버틀러는 정신분석학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이론을 가다듬어 왔다. 『젠더 트러블』에서부터 그녀는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의 이론을 심도 있게 참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녀는 프로이트의 ‘원초적인 양성성(primordial bisexuality)’이나 대상 선택 메커니

즘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멜랑콜리아와 죽음 충동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와 달리 버틀러는 라캉과 지젝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녀는 라캉과 그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지젝의 이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지젝과 버틀러는 동시대의 이론가로서 논쟁을 벌인 바 있으며 『안티고네』를 기점으로도 상호 비판을 주고받았다.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버틀러는 라캉 비판을 자신의 『안티고네』 해석의 기반에 위치시킨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로부터 시작된 친족 관계의 얽힘을 마무리하는 인물이니만큼 버틀러는 친족 구조를 바탕으로 라캉의 상징계를 비판한다.

라캉에게 있어 상징계는 언어가 취하는 사회적 형식들로 환원될 수 없는 언어적 구조들의 개념화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혹은 구조주의적 용어를 따르자면 상징계는 사회성 즉, 모든 언어의 소통 가능성(communicability)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인 조건들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상징계와 친족에 대한 사회적인 설명 간의 뚜렷한 구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 . .] 친족에 대한 연구가 구조적인 언어학에 대한 연구와 결합될 때, 친족의 위치들은 언어적 위치들 내 질서의 위치로 승격되는데 이것 없이는 어떠한 의미화나 인식가능성(intelligibility)도 가능하지 않다. 구상한 특정한 친족의 구조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고 인식가능성의 기초적인 구조의 지위로 승격시키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은 친족을 자연적인 형태로 상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¹⁸³⁾

버틀러는 라캉의 상징계를 주체의 사회성과 언어적 소통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조건들로 이해한다. 사회적인 산물인 친족 구조는 변화를 겪게 되지만 라캉은 사회적인 것으로의 진입을 위한 보편적인 체계인 상징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라캉의 체계에서 상징계

183) *Antigone's Claim*, pp. 19–20.

없이는 어떠한 사회적인 의미화 작용이나 인식 가능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친족 구조의 변화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보편적이고 언어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버틀러의 생각이다.

상징계에 대한 버틀러의 비판적인 태도 견지는 동성혼이나 결합에 대한 권리 주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버틀러는 동성혼이나 시민적 결합 형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부 라캉주의 이론가들의 이에 대한 태도에 주목한다. 파리의 정신 분석가들은 새로이 제안된 시민결합의 형태가 동성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동성 가족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정신병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캉의 사위인 자크 알랭 밀레(Jacques A. Miller)는 동성 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다. 동성 결합은 배우자에 대한 충실도(fidelity)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이러한 일군의 라캉주의 이론가들이 “상징계의 차원에서 확립된 필연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구조를 마치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인 지주”¹⁸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라캉의 상징계를 선제하는 보편적인 구조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적인 변화를 그 틀에 맞춰 재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버틀러가 지적과 그가 중시하는 ‘실재’ 개념을 비판하게 되는 것도 그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녀는 주체 형성과 상징화 작업의 한계를 가리키는 ‘실재’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재’가 이성애적인 성차와 친족 체계의 한계이자,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역사 바깥의 관념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¹⁸⁵⁾ 버틀러가 보기에 이러한 관념적인 ‘실재’는 불가능성을 지시할 뿐 구체적인 맥락에 닿을 수 없다. 크리스 코프만(Coffman)은 버틀러의 지적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재’ 개념을 규범적이지 않은 것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¹⁸⁶⁾ 그는 이성애적 성

184) *Antigone's Claim*, pp. 70.

185)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pp. 152-3.

186) *Queering Zizek*, Chris Coffman, *Postmodern Culture*, Vol. 23, Iss. 1, 2012.

차의 기반이 아닌 환상을 횡단하는 ‘실재’의 측면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¹⁸⁷⁾ 그러나 버틀러는 코프만과 달리 퀴어 이론가로서 라캉과 지젝의 이론이 차이를 억압하는 보편적 체계로 작동한다고 본다.

지젝의 이론은 버틀러의 비판대로 이성애적이고 부권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가? 버틀러는 안티고네가 “상징계의 범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의미화할지 모른다는”¹⁸⁸⁾ 기대를 품을 만큼 라캉과 지젝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젝의 퀴어화를 시도했던 코프만이 주목했던 지젝의 윤리적 행위의 한 예시를 참고해 보고자 한다.

환상의 횡단을 촉진할 궁극적인 행위의 본성에 대해 상술하며 그는 칸트의 정언명령이 우리가 의무를 오인하는 것을 막아줄 어떠한 보장도 주지 못하는 “동어반복적”이고 “텅 빈 형식”이라고 논한다. 지젝은 “공적인 곳에서 여성으로서 옷을 차려입고 자살한 남자”를 그러한 불확실한 행위의 “최적의 후보자”로 제시한다.¹⁸⁹⁾ 이 예시의 여성 혐오적이고 트랜스 혐오적인 성격은 과히 충격적이고 강한 분노를 유발한다. 지젝은 이 예시로 이분법적인 젠더 체계에 도전하는 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혁명이 이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이 예시를 퀴어 이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지할 의사가 없다. 버틀러와 게일 살라몬이 호소력 있게 주장한 바처럼 퀴어, 트랜스 이론은 다양한 젠더를 (지젝처럼) 사회적으로 생존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젠더 다양성을 증진해야 한다. 하지만 지젝의 예시는 그의 사유의 한 측면이 퀴어 이론적인 목적을 위해 전유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가 말하는 행위의 상대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 도전과 변형에 열려있는 경쟁 구도 하의 이데올로기들이 내재적으로 갈등하는 장 내에서 행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랙(drag)의 차림으로 자살하는 남자의 사례는 (이성애적) 성차라는 근본적인 환상이 우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기에 횡단할 수 있다는

187) *Queering Žižek*, pp. 15.

188) *Antigone's Claim*, pp. 44.

189) Slavoj Žižek, *The Indivisible Remainder: Essays on Schelling and Related Matters*. London: Verso. 1996. pp. 170.

사실을 수궁하고 표상해낸다.¹⁹⁰⁾

지젝은 오인을 막을 어떠한 보장도 주지 못하는 칸트의 정언명령이 추동하는 윤리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의 예시로 지젝이 드는 것은 공적인 곳에서 여성으로 차려입고 자살하는 남성이다. 코프만은 이 예시를 가져와서 지젝을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지젝이 든 예시는 여성 혐오적이고 트랜스 혐오적이다. 지젝은 이 예시로 이분법적 젠더 체계에 도전하는 이의 희생을 대가로 사회 체계의 재구성을 불러올 혁명이 성취될 수 있음을 넌지시 내비친다는 것이다. 이에 코프만은 버틀러와 살라몬을 거론하며 퀴어 이론이 다양한 젠더 정체성의 사회적인 생존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코프만은 다른 한편으로 지젝이 든 예시와 그의 이론이 퀴어 이론을 위해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지젝이 거론한 자살하는 남자의 예시는 상대적이고 모호하게 남아 있어 퀴어 이론과도 접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행위가 이데올로기적인 환상 횡단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코프만은 드랙의 차림으로 자살한 남자의 사례가 이성애적인 성차라는 근본적인 환상을 횡단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지젝의 사례는 규범적인 젠더에 부합하지 않는 이의 죽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면서도 퀴어 이론이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넘어설 이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코프만의 이중적인 태도는 지젝의 이론적 입장이 버틀러가 비판대로 억압적인 면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버틀러 비판의 핵심은 지젝이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실 파악을 도외시하고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수용하기에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내몰린 존재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프만도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젝을 비판하면서도 지젝의 가능성을 퀴어화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지젝은 드랙 차림으로 자살한 남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관심은 사회적 시선과 규제로 인해 강제된 강박적인 의무와 그에 따른 실천

190) *Queering Zizek*, pp. 15-6.

에 있다.¹⁹¹⁾ 지젝은 그러한 의무로부터 칸트의 윤리적 명령과 욕망과 ‘실재’의 문제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요점은 라캉의 ‘당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같은 동어반복적인 명령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라캉이 말했듯이 칸트의 도덕법이 단지 가장 순수한 상태의 욕망이라는 증거를 보장한다. 동어반복은 우리 욕망의 어떠한 실정적 보장과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말하자면 주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reprehensible)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내가 욕망하는 바이고 나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대신 주체는 그나 그녀가 욕망하는 바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닌다. 바로 그 이유로 당신의 욕망을 타협하지 말라는 라캉의 명령은 공허하고 완벽히 준수할 수 없다. 즉, 그 동어반복적 명령은 ‘실재’를 건드린다. [. . .] 라캉의 목표는 칸트의 윤리적 명령의 순수성을 더럽히려는 것이 아니라 [. . .] 정반대로 사드의 향유에 의지가 철저히 순수하고 가장 엄밀한 칸트적 의미에서 윤리적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향유를 끝없이 찾고자 하는 사드적 주체를 존속시키는 윤리적 명령은 범주적인 윤리적 명령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칸트의 (윤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라캉은 사드를 순수하게 만든다. 사디즘적인 향유에 대한 의지는 순수하고 병리적이지 않은 욕망의 탁월한 사례인 것이다. 아마 그 의지야말로 소위 현대적 주체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깃들어 있는 곳일 것이다.¹⁹²⁾

지젝은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라캉의 정식을 인용하며 상대방도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대하라는 보편적이자 동어반복적 성격을 띤 칸트의 정언명령을 거론한다. 논의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는 동어반복적인 윤리는 그에 따르면 어떠한 실정적인(positive) 내용이나 보장도 갖고 있지 않기에 구체적으로 욕망하는 내용을 언어화할 수 없다. 주체의 윤리적

191) Slavoj Žižek, *The Indivisible Remainder*, London: Verso. 1996. pp. 168–170.

192) Ibid, pp. 172–3.

행위 가능성은 공허하고 완벽히 따를 수 없는 ‘실재’의 욕망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열릴 따름이다. 이어서 지젝은 『세미나 7권』에서 라캉이 보여준 칸트와 사드라는 동전의 양면을 다룬다. 라캉은 초자아의 목소리를 닮은 내용 없는 칸트의 윤리 이면에는 사드가 있다고 본바 있다. 지젝은 라캉의 시도가 사디즘적인 향유에 대한 의지를 순수하고 병리적이지 않은 칸트의 윤리와 연관 지었다 말한다. 그는 향유에 대한 의지를 주체의 모든 문제와 파급력이 산출될 수 있는 계기로 해석한다.

이러한 지젝의 주장은 그가 관념적 보편주의자라는 버틀러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가능하게 한다. 버틀러가 보기에 라캉과 지젝의 이론은 이성애적인 성차를 기반으로 한 ‘상징계’와 그 체계의 내적 불가능성의 지대인 ‘실재’는 억압적이다.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질서가 긍정되는 반면에 그것의 실패나 불가능성은 다분히 관념적인 개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젝은 칸트의 윤리적 명령을 가져와 주체의 모든 문제와 예기치 못한 행위는 바로 내용 없는 공허한 향유에 대한 의지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는 주체 내부의 실재적 향유가 순수한 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주체 내부에서 기존의 공고한 형이상학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소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젝의 논의는 특정한 규정적 체계나 형이상학적 환상이 왜 불가능한지를 주체 내부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 전통적이고 실정적인 주체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젝의 이론은 버틀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녀의 이론과 맞닿아 있다. 두 이론가의 주요 관심 대상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공통으로 주체 내부의 형성 과정과 그 역학이다. 버틀러는 멜랑콜리아를 주체의 형성과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으며, 지젝은 ‘실재’를 가장 중시한다. 버틀러가 말하는 멜랑콜릭 주체는 상실한 대상을 자신 안에 보존하고 있고 지젝의 주체는 ‘실재’라는 내적인 불가능성을 품는다. 두 가지 종류의 주체 모두 내부에 균열을 지니고 있고 이 균열은 주체 외부의 사회적인 이데올로

기와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두 이론가 모두에게 정신분석학의 ‘초자아’는 주체가 저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근원적으로 상실한 대상을 내적으로 보존한 양심적 주체를 논하는 버틀러에게서나 대타자적 욕망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지젝에게는 주체 내부의 목소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버틀러의 비판과 달리 지젝의 이론은 보수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이론과 상당한 유사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2장에서 지젝이 버틀러에게 가한 예리한 비판처럼 지젝의 이론을 비판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지젝은 타자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다문화주의가 글로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체계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고 버틀러를 비판한 바 있다.¹⁹³⁾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거나 라캉의 이론을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등의 이론적 작업을 전개해 온 지젝에게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먼저 그는 무리한 들뢰즈 비판을 시도한 바 있다. 들뢰즈의 이론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욕망을 긍정한다 보고 그를 “후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신봉자”¹⁹⁴⁾로 규정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들뢰즈의 접근은 내재해 있는 ‘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들뢰즈는 ‘계급 투쟁’을 폐기한 ‘후-정치학(post-politics)’의 이론가로 후기 자본주의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¹⁹⁵⁾ 이러한 비판은 프랑스 사유의 미국화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 철학의 주자인 버틀러에 대한 지젝의 입장에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의 저항을 이론적으로 모색한 것을 글로벌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신봉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다.

다른 한편 그가 말하는 ‘계급 투쟁’과 ‘적대’는 현실적인 구체성이 부

193) 자스비르 푸아(Jasbir Puar)가 『테러리스트 배치: 퀴어 시간 속 호모내셔널리즘』(*Terrorist Assemblages: Homonationalism in Queer Times*, Duke University Press, 2007)에서 꺼낸 ‘핑크 워싱(pink washing)’의 문제는 퀴어 이론이 지젝의 비판과 맞닿아 있는 사례다.

194) Slavoj Žižek, “The Ongoing ‘Soft Revolution’”, pp. 293.

195) *ibid.*, pp. 297.

족한 편이다. 지젝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적대와 그로 인한 정치적 투쟁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다소 이분법적 계급 구도를 바탕으로 하기에 여러 세밀한 측면을 놓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체의 주관적 개입을 강조하는 지젝의 이론이 사회의 여러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를 간과한다는 알튀세르적인 비판¹⁹⁶⁾을 받게 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현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끝에 지젝이 제안하는 정치적 실천은 여러모로 현실적이지 못하기에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안티고네』 재해석이 잘 보여주듯 그는 피지배 민중의 주체적 결단과 이에 따른 국가 질서 탈취를 구상한다. 이러한 지젝의 이론적 구상은 간과할 수 없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IV. 안티고네 다시 읽기

지금까지 버틀러와 지젝의 이론이 그들의 『안티고네』 독해에 스며드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이론가는 각자의 방식대로 안티고네라는 형상을 해독해낸다. 먼저 버틀러의 안티고네가 급진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요구를 위해 동원되었다면 지젝의 안티고네는 현 체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균열의 지점을 가져온다. 두 이론가는 모두 『안티고네』를 자신의 이론적 논의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정치적인 실천을 궁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 버틀러와 지젝은 뚜렷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지젝에게 있어 버틀러의 시도는 보편적인 세계 체제와 질서의 이데올로기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정반대로 버틀러가 보기에 지젝은 초월론적 보편주의자로 보편적 질서를 수호한다.

버틀러와 지젝의 『안티고네』 해석은 두 이론가의 차이뿐 아니라 이론적 관점에서의 문학 텍스트 독해와 전유라는 차원에서 흥미롭다. 두

196) Geoff Boucher, "An Ideological Conception of Politics: Critique of Žižek on Political Theology", pp. 461-2.

사람 모두 비극으로서의 『안티고네』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보다 안티고네라는 상징적인 인물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버틀러와 지젝은 『안티고네』를 비극적인 가족사로 읽어내기보다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틀러는 안티고네를 통해 멜랑콜릭 주체의 정치적인 수행과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공적인 대변을 읽어낸다. 반면 지젝은 괴물로서의 안티고네가 가져온 파국과 민중의 도래에서 정치적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두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이론적 관심사에 따라 문학 텍스트를 읽어내려는 시도는 또다른 생산적인 효과를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버틀러와 지젝의 『안티고네』 해석은 분명 현대를 살아가는 주체의 정치적 실천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한 논의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검토한 버틀러와 지젝의 『안티고네』 전유를 바탕으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로 돌아가 정치적 실천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버틀러와 지젝의 논의는 그 상호비판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 형상으로부터 정치적인 가능성을 읽어내는가 하면 이론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있어 예상치 못한 논지의 유사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유사성 끝에 두 사람의 논의는 크레온과 코러스라는 흥미로운 두 요소를 남긴다. 그렇다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로 다시 눈길을 돌려 버틀러와 지젝, 그리고 지젝과 버틀러가 남긴 화두로부터 다시금 독해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버틀러와 지젝의 논의 끝에 나타난 두 가지의 요소에 초점을 맞춰 비극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1. 버틀러와 지젝이 남긴 것

2장에서 살펴보았듯 버틀러는 안티고네 형상으로부터 두 가지 양상의 정치적 수행을 읽어낸다. 첫 번째 정치적 수행은 근친 금기를 바탕으로 한 친족 체계와 부권적 질서의 젠더화된 권력 체계를 교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행은 폴리네이케스처럼 제대로 애도를 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대변하는 공적인 애도에 대한 시도다.¹⁹⁷⁾ 그리고 이

두 수행의 연결 고리는 버틀러의 멜랑콜릭 주체에 대한 입론이 된다. 버틀러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티고네가 개인적이지도 사회적인 주체로서 수행하여 영속할 것만 같았던 테베의 권력 체계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 있다. 안티고네는 버틀러에 의해 정치적인 주체로 거듭난다. 버틀러의 안티고네는 규범적 틀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비순수와 복합성의 주체, 모호성과 양가성의 주체”¹⁹⁸⁾인 것이다.

나아가 버틀러는 이러한 안티고네로부터 퀴어적인 욕망을 발견한다. 이 퀴어적인 욕망의 입론을 위해 그녀는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관계를 새로이 해석한다.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관계는 분석가와 상담자의 관계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에 흥미로운 보충으로 덧붙여진다.

정신분석 상담실 속에서 일어나는 안티고네의 고백은 안티고네와 크레온, 또 둘의 관계, 나아가 근원적 이성애와 근친애 욕망이라는 문법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안티고네는 남성적 용맹과 만용을 보이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사랑한 오빠를 떠올리고 전이를 일으켜 오빠를 분석가와 동일시한다. 크레온은 역전을 일으켜 자신을 피 분석가와 동일시하면서 여성화된다. 안티고네는 젠더 역전과 친족 교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빠/아빠에 대한 퀴어적 사랑을 크레온에게 투사하여 크레온을 변화시킨 것이다. 크레온은 진단하고 분석하며 판결하는 통치자의 말을 해야 하지만, 감정에 연루되어 안티고네와 동일시해서 여성화될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남자로서 여자에게 굴복할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다.¹⁹⁹⁾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공적인 고백이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성애와 근친 욕망까지도 변화시킬 수

197) 제대로 공인받지 못한 위태로운 성적 주체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동과의 관계로 읽어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허성원, 「한국 퀴어 퍼레이드와 정동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198)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pp. 77.

199) *ibid.*, pp. 83.

있다고 본다. 안티고네와 크레온은 버틀리에 의해 테베가 아닌 상담실 속의 두 사람으로 전치된다. 버틀리의 안티고네는 자신이 상실한 오이디푸스와 폴리네이케스와의 동일시로 인해 남성적인 특징들을 보이는가 하면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면서 전이를 겪게 된다. 그리고 오빠/아빠에 대한 애착과 욕망이 크레온에게 투사되면서 역전이가 발생한다. 상담가의 자리에 놓인 크레온은 역전을 거쳐 피분석가와 동일시하여 여성화된다. 그 결과로 부과된 이성적인 통치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여성화될지도 모른다는 크레온의 공포감이 표출된다는 버틀리의 주장은 자신의 『안티고네』 독해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띤다. 버틀리는 크레온이 대표하는 이성애적인 질서가 안티고네의 고백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버틀리가 『안티고네의 주장』과 『젠더 허물기』에 걸쳐 선보이는 안티고네 독해는 퀴어적인 정치적 수행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처벌로 이어지는 고백으로 인해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지만 마침내 문화적 금기에서 벗어나 폴리네이케스와 나란히 눕게 된다.²⁰⁰⁾ 버틀리의 독해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이성애적인 현행 질서에 대한 도발적인 수행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를 규제하는 이성애적 젠더 질서와 담론이 특정한 수행을 통해 재편될 수 있다는 버틀리의 사유가 그녀의 『안티고네』 독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버틀리의 안티고네는 퀴어 운동과 이론의 방향과도 상통하는 담론 질서를 교란하는 인물로 무대 위에 올려진다.

버틀리가 말하는 담론 질서의 교란과 변화야말로 그녀의 핵심적인 논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담론적 질서를 겨냥한다고 할 때 안티고네의 수행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애도를 받지 못하는 대상들에 대한 마음과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버틀리가 다소 무리하게까지 소포클레스의 비극 텍스트에서 그와 같은 사회적인 연대와 공감 및 대변을 읽어내는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다. 취약한 타자와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만 담론적인 질서를 뒤

200) *Undoing gender*, pp. 170.

흔드는 것이 가능하다.²⁰¹⁾ 안티고네에게 있어 그러한 타자는 바로 폴리네이케스였으며 그를 애도함으로써 그녀는 테베 시민들에게 말을 걸었다. 통치자이긴 하나 테베의 일원이었던 크레온은 버틀러가 보기에 안티고네의 퀴어적 욕망에 누구보다 영향을 받은 이다.

퀴어적 욕망을 품은 안티고네는 금지된 애도 대상인 폴리네이케스를 애도했기에 크레온 앞에 끌려와 심문을 받게 된다. 이때 크레온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바는 반역자인 폴리네이케스를 옹호하냐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폴리네이케스가 금지된 애착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반역자라는 사실이다. 반역자를 위한다고 추궁당한 안티고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 곧장 비극적인 운명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는 반역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회피하지 않았기에 토굴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욕망으로 인해 크레온의 변화 및 전이와 그가 표방하는 권력 체계의 균열을 읽어낸다. 크레온은 나라와 체계의 안위를 근거로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형성했으나 그 권위는 안티고네에 의해 무너져내린다. 폴리네이케스를 테베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로 규정했던 크레온은 안티고네가 일으킨 파장으로 인해 몰락하고 그가 내세운 통치 이데올로기는 실패하고야 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적은 안티고네와 폴리네이케스가 테베에 불러온 위태로운 혁명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새로이 각색한 자신의 『안티고네』(2016)에서 폴리네이케스와 안티고네뿐 아니라 크레온까지도 테베의 혼란을 불러온 인물로 그린다. 그는 하이몬과 테이레시아스(Teiresias) 그리고 코러스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안티고네를 따라 폴리네이케스에

201) 버틀러의 후기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삶』(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 New York: Verso, 2004), 『윤리적 폭력 비판』(Judith Butler,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Fordham UP, 2005), 『전쟁의 틀』(Judith Butler,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London & New York: Verso, 2009) 등에서 그녀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그녀는 『비폭력의 힘』(Judith Butler, *The Force of Nonviolence*,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 2020)에서 비폭력의 윤리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대한 예우를 다한다. 테베의 민중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봉기하게 된다.²⁰²⁾ 테베의 민중은 나라를 침공해 테베의 위기를 가져온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한 행위에 격노하여 크레온과 하이몬을 살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는 광인이 되어버린다.²⁰³⁾ 급기야 지젝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결말에서는 크레온과 안티고네 모두 기득권 세력으로 처단된다.²⁰⁴⁾

이처럼 지젝은 안티고네와 폴리네이케스 그리고 크레온과 하이몬에 이르기까지 『안티고네』 텍스트에서 테베의 안정적인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인물들에 주목한다. 그에게 있어선 바로 그들로 인해 도시 국가 테베가 위기에 처하고 민중의 도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젝의 각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바로 이 민중 혁명이다. 안정적인 상태를 깨뜨린 지젝의 괴물 안티고네는 심연의 무질서를 일깨워 민중 혁명을 촉발한다. 이와는 달리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텍스트는 크레온이 안티고네와의 조우 이후 하이몬과 테이레시아스 등을 거쳐 자신의 완고한 입장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혁명적 파국을 이론화하는 지젝에게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는 『안티고네』(2016)에서 자신이 고안한 세 번째 결말이 코러스를 더는 “멍청하고 어디서나 볼 법한 지혜의 전달자”²⁰⁵⁾로 그리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지젝은 크레온, 안티고네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코러스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젝의 이러한 관점은 소포클레스의 텍스트에서 그간 충분히 주목되지 못했던 코러스의 역할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다.²⁰⁶⁾

202) *Antigone*(2016), pp. 22.

203) *Antigone*(2016), pp. 23-4.

204) *ibid*, pp. 26-9.

205) *Antigone*(2016), pp. xxiv.

206) 지젝이 소포클레스의 코러스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비극 텍스트 속 인물들의 입장과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크레온은 자신이 칙령을 발효함으로써 테베의 안위를 지키고 민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안티고네는 테베 시민들이 자기의 뜻에 공감하기를 기대한다. 코러스는 비극 텍스트에서 인물들 간의 논쟁에서 적절

지젝은 비교적 최근의 논의에서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며²⁰⁷⁾ “보편적 인권의 담지자로서 인간의 보편성, 개인이 속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의 특수성, 그리고 두 극단 사이의 매개적 순간으로서의 시민권의 특이성”²⁰⁸⁾을 강조한 바 있다. 지젝의 각색은 바로 그 매개를 위해 주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코러스를 일종의 시민을 이끌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 너머 주체의 주관적 개입과 이를 매개할 코러스라는 참신한 해석은 지젝의 초기 저작이라 할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 보인 코러스에 대한 관점 및 독창적 해석과는 묘한 대비를 이룬다. 그는 과거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를 현대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서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의 윤리학』 세미나에서 라캉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의 코러스의 역할을 말한다. 우리는 관객으로서 극장에 일상의 문제들에 시달려 걱정이 가득한 채로 극장에 가기에 정작 극의 문제들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없다. 관객들에게 요구되는 공포와 연민 따위를 느끼는 문제들 말이다. 하지만 문제없다. 코러스는 우리 대신 슬픔과 연민을 느낀다. 더욱 정확히는 우리는 코러스라는 매개를 통해 요구되는 감정들을 느낀다. ‘당신은 모든 걱정을 한 시름 놓을 수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코러스가 당신의 자리에서(in your place) 느껴줄 것이다. [. . .] 대중적인 텔레비전 쇼나 시리즈물에서 상당히 흔한 현상을 상기해보자. 어떠한 재밌고 재기 넘치는 말 이후에 당신은 쇼 그 자체의 사운드트랙의 일환인 웃음과 박수갈채를 들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전 비극 코러스의 정확한(현대적) 대응물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유물을 발견한다. 즉, 왜 이러한 웃음인가? 즉, 왜 이

히 시비를 따지고 잘못을 꾸짖는 이로 기능한다. 코러스를 민중의 뜻을 실현하는 주관적인 개입과 의지를 대변하는 자로 그리는 지젝의 각색은 그 같은 역할을 거부한다.

207) 지젝은 난민과 유럽 국적의 노동자들 간 갈등의 심화시키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주목한다. 그는 특히 트럼프(D. Trump)의 외설성(obscurity)을 논하며 그를 진정한 주인과 대비시킨다. (Slavoj Žižek, “The Prospect of Radical Change Today”, *Tripe C.* 2018. pp. 485-7.)

208) *ibid.*, pp. 488.

러한 웃음인가? [...] 오직 정확한 답은 텔레비전 세트 속에 구현된 대타자가 대신 웃음으로써 우리의 웃을 의무를 덜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하루의 힘들고 멍청한 일과 후 저녁 내내 줄린 눈으로 텔레비전 스크린을 응시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대타자의 매개를 통해 말할 수 있다.²⁰⁹⁾

지젝이 위 인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코러스의 대리적인 성격이다. 고대 그리스 비극을 관람하는 관객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비극적인 에토스(ethos)와 파토스(pathos)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등장하는 코러스는 공포와 연민을 대사로 읊어 관객 대신 감정을 표출한다. 지젝은 이러한 코러스의 비극 내에서의 역할이 현대의 대중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의 코러스에 의해 계승된다고 본다. 아무리 힘든 일과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운드트랙의 일부인 코러스는 관객 대신 웃고 박수갈채를 친다. 실제로는 전혀 즐겁지 않고 흥미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현대인들은 이러한 대리적 성격의 코러스를 통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지젝은 코러스가 대중문화에 구현된 대타자의 일환이며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산출한다고 본다.

지젝이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뜻을 대신해주는 코러스는 그의 새로운 『안티고네』 각색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지젝의 코러스는 민중의 뜻을 대변하고 모든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크레온과 안티고네를 처단한다. 하지만 코러스는 여전히 민중 대신 민중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지젝이 지적한 현대의 대중문화 코러스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후 도래한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면 『안티고네』(2016)에 등장한 코러스는 전자의 코러스에 맞서는 대항 폭력을 이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폭력적인 체계와 교묘한 이데올로기적인 술수에 맞서는 단호한 대항 폭력²¹⁰⁾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

209)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pp. 32-3.

210) 알튀세르를 계승한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맑스주의와 그로 인해 파생된 정치적인 운동에 내재한 폭력성에 대해 사유한다. 그는 ‘시민다움

간에 당위를 부여하는 점에서 두 코러스는 묘하게 닮았다.

정치성을 화두로 『안티고네』 텍스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화해낸 버틀러와 지젝은 안티고네로부터 파생한 정치적 가능성을 논구한다. 버틀러는 퀴어 이론적인 관점에서 『안티고네』 텍스트를 다시 읽었고 지젝은 민중 혁명과 체제 변혁을 사유하며 비극 텍스트를 다시 썼다. 다른 한편 두 이론가의 안티고네는 다시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남긴다. 먼저 크레온의 두려움과 변화를 가져온 버틀러의 안티고네는 테베의 안녕이라는 크레온의 통치 근거가 무력화되는 과정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괴물과도 같은 지젝의 안티고네는 혁명적 과격²¹¹⁾을 불러오기는 하지만 자칭 민의를 급작스럽게 받드는 코러스의 역할이 문제적인 것으로 남게 된다. 버틀러와 지젝이 『안티고네』 텍스트와 맺은 비평적 관계는 생산적인 논의를 지속시키는 두 가지 고려 요소를 낳는다. 그렇다면 이제 안티고네의 파장이 미치는 크레온과 코러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차례다.

2. 안티고네의 파장을 받는 자들

안티고네는 위협을 무릅쓰고 크레온에 의해 나라의 반역자로 규정된 폴리네이케스를 애도한다. 그녀는 왜 그렇게 무모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가? 버틀러에 따르면 이는 금지된 대상에 대한 안티고네의 애착 때문이다. 이렇게 안티고네의 무모한 행위와 저항의 의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녀의 욕망은 퀴어적인 것이 된다. 안티고네는 아버지 오이디푸스의 뒤를 이어 오빠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문제적인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폴리

(civilitéé)’의 정치를 통해 비폭력이나 대항 폭력 모두에 속하지 않는 시민권과 인권을 토대로 한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발리바르, 진태원 옮김,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난장, 2012, pp. 144-7.

211)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오미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혁명적 정치의 가능성 탐구—슬라보예 지젝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네이케스에 대한 안티고네의 퀴어적 욕망이 기존의 체계를 새로이 쓸 정치적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버틀러의 퀴어적인 『안티고네』 독해에서 간과되고 있는 면이 있다. 오이디푸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친 살해와 근친적 욕망을 실현한 것에 반해 안티고네는 명확히 상황을 파악한 가운데 정치적인 행위에 나선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무의식적인 퀴어 욕망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티고네가 명료히 드러내는 정치적인 발화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안티고네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어떠한 의식적이고 공적인 발언과 관계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안티고네가 맞는 비극적인 최후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크레온의 포고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안티고네가 망자에게 다한 예우는 폴리네이케스가 크레온과 에테오클레스의 대척점에서 있던 나라의 반역자이기에 문제가 된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하이몬이 안티고네의 행위에 대한 테베 시민들의 반응 전달²¹²⁾은 그래서 더욱 파격적이다. 크레온을 두려워하여 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테베 시민들은 안티고네의 행위를 백안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행위가 숭고한 분위기를 띠도록 한다. 사실 나라의 역적에 대한 명을 선포한 크레온에게 필요한 것이야말로 숭고함이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는 테베 시민들에 의해 숭고한 자가 된다.

하이몬의 진술로 엿볼 수 있는 안티고네의 숭고함은 라캉의 안티고네 해석²¹³⁾과도 맞닿아 있다. 라캉의 해석은 안티고네라는 주체의 윤리적 가능성

212) 하이몬은 크레온에게 맞서 테베의 시민들이 안티고네의 행위를 숭고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밝힌다. 그가 전하는 일부 테베 시민들의 동요에 따르면 안티고네가 그녀의 영광스러운 행위로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까지 한다. (Antigone, line 696-700)

213) 라캉이 『세미나 7권』(*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1959-1960.)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끝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향유의 윤리다. 안티고네는 라캉이 논하는 죽음 충동의 향유로 인해 두 번 죽음을 맞는 인물이다. 라캉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상징계가 부과하는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체현해 보인다.

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압력이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안티고네를 찬미한다. 라캉의 안티고네에서 엿볼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은 안티고네가 숭고하고 윤리적인 인물²¹⁴⁾이라는 점에서 나온다. 크레온은 그를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라고 규정하지만 끝내 폴리네이케스를 포기할 수 없는 안티고네의 욕망은 크레온의 그러한 규정을 거부한다. 버틀러의 “급진적인 상징계적 재절합(radical symbolic rearticulation)”²¹⁵⁾이나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전망을 제시하는 일도 전체주의를 향한 길을 닦는 것에 불과하다는 현대의 자유주의의 협박을 단호히 거부”²¹⁶⁾해야 한다는 지적의 단호한 태도는 숭고한 안티고네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체계에 변화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이가 윤리적인 숭고함을 띤다면 그의 정당성이나 파급력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리적인 안티고네는 다소 전통적인 이상과 가치를 표방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버틀러의 『안티고네』 독해에 대한 베르케크(Verkerk)의 문제 제기에서 잘 드러난다. 베르케크는 안티고네의 비극적인 최후는 애초에 그녀가 가족적이고 사적인 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베르케크가 해석한 안티고네의 욕망은 가족 관계에 대한 눈에 띄는 애착에서 기인한다.

그(폴리네이케스)는 안티고네에게 있어 그녀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과 가족의 명예와 개인적인 충실(fidelity)의 상징을 표상하고 또한 아이, 남편, 가족적인 아테가 없는 삶 등 그녀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대체물이다. 그 결과로 그녀는 전적으로 폴리네이케스를 향한 강한 고착을 보이고 그녀의 개인적인 의미는 그를 묻으려는 욕망의 이행에 갇혀 있다. 버틀러가 제안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이 고착은 본성상 정치적 운동가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 고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이나 국가 체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영광’에서 기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그녀의 오빠

214) 안티고네의 윤리를 탐구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이선정, 『『안티고네』독서를 통한 윤리적 주체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 제 23집, 2011.

215) *Bodies That Matter*, pp. xxx.

216)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pp. 326.

에 대한 사랑이 그를 매장하려는 욕구를 의심의 여지 없이 필연적인 행위로 만들기 때문에 안티고네에게 딜레마란 없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타의 딸이라는 그녀의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기에 그 한계를 모르는 욕망에 의해 추동된다. 가족의 명예와 그녀의 개인적인 정체성의 마지막 연결 고리는 폴리네이케스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었다.²¹⁷⁾

베르케크의 『안티고네』 독법은 헤겔 이후 논의되어 온 자연법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애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티고네라는 인물은 가족적 애착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에게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치적 운동가로서의 이미지를 찾아내지만, 베르케크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다분히 가족적인 명예를 위해 폴리네이케스를 묻었다. 안티고네의 행위와 욕망을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타의 딸이라는 개인적 정체성에서 찾는 베르케크의 설명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텍스트를 충실히 읽어내는 한 가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베르케크의 안티고네는 혈통을 기반으로 한 혈족에 대한 애착에서 행동하는 인물이다.

베르케크의 해석은 안티고네를 혈족의 전통을 잇는 인물로 간주하여 그녀를 이상적인 인물로 추켜세운다. 이런 베르케크의 안티고네는 라캉과 버틀러의 안티고네와 묘하게 엇갈리는 면이 있다. 버틀러에게 있어서도 안티고네의 핏줄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버틀러의 안티고네는 가족적인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퀴어 욕망을 품은 안티고네는 전통적인 가족적인 규율을 흔들며 놓는다. 버틀러의 안티고네와 비교해보면 베르케크의 안티고네는 그 정체성을 가족적인 가치와 명예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이고 혈통적인 가치의 수호자가 된다. 안티고네가 지극히 자신의 혈통에만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때 그녀는 보수적이고 기성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단지 자신의 마지막 핏줄이기에 폴리네이케스를 애도한다면 안티고네의 욕망은 가족주의적 가치관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공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217) Willow Verkerk, "Heroism in Sophocles's Antigone", *Philosophy and Literature*, Vol. 38, Iss. 1, 2014, ProQuest, pp. 4.

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애도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일종의 보편주의적 가족주의는 안티고네의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좁힌다. 만약 안티고네가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애도를 허용받는다면 그녀의 국가와 법에 대한 저항은 그 힘을 잃게 된다. 소포클레스의 텍스트에서도 안티고네의 애도는 막바지에 이르러 인정되긴 하지만 크레온의 고집으로 인해 애도는 너무 뒤늦게 행해진다.

애도의 뒤늦은 도착²¹⁸⁾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사적인 친족 관계를 기리려는 안티고네의 애도는 그녀의 소멸²¹⁹⁾ 이후에야 제대로 이행된다. 극의 막바지에 크레온은 혼비백산하여 폴리네이케스를 묻어주려고 하지만 그는 안티고네와 하이몬 그리고 에우리디케(Eurydike)의 죽음을 차례로 마주하게 된다. 안티고네의 애도 실패와 죽음은 크레온이 부과하려던 공적인 질서가 개별적인 삶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게 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도 라캉이 말한 것처럼 죽음을 감수한 숭고함을 자신에게 부여한다. 즉, 베르케크가 관심을 기울인 안티고네의 가족적인 기원은 가족[국가]주의적 배타주의로 귀결된다기보다는 크레온이 표방하는 공적인 체계의 폭력성과 안티고네의 이상성과 숭고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베르케크가 『안티고네』 텍스트에서 제기하는 아곤(agon)²²⁰⁾의 문제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는 가족의 명예와 애도를 기리는 안티고네가 크레온과 대립하고 논쟁하여 보여주는 것은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본다. 바로 이러한 안티고네의 신념이 크

218) 소포클레스의 비극들을 애도라는 키워드로 읽어내는 저작으로는 다음을 참고. 임철규, 『그리스 비극, 인간과 역사에 바치는 애도의 노래』, 한길사, 2018.

219) 그녀의 소멸과 카타르시스적 윤리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양석원, 「욕망과 주이상스 사이: 라캉의 『안티고네』 읽기와 카타르시스의 윤리」, 『비평과 이론』, 제 22권 1호, 2017.

220) 아곤은 연극에서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리를 언어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니체는 아곤으로 인해 투쟁이 완전한 파괴로 나아가지 않고 예술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우승정, 「『안티고네』에 나타난 아곤의 의미」, 『영어영문학연구』, 제 43권 3호, 2017, pp. 47.

레온의 권위적인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산출해낸다는 것이다. 버틀러와 지젝이 해석한 안티고네와 달리 베르케크는 공적인 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인간주의적 이상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그녀의 아곤주의적(agonistic) 반응은 여러 차원에서 당연시되는 그(크레온)의 권위의 보편성을 미약하게 한다. (그 결과) 코러스, 하이몬은 크레온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크레온 자신조차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크레온의 요구에 맞서 가족적 애착으로 인해 금지된 반항을 보인 안티고네는 의도치 않게 5세기의 매장과 가족법의 맥락 속에서 정치적으로 진술한다. 크레온에 맞선 안티고네의 분투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녀의 가족을 애도하고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보다는 (죽은) 혈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지하의(chthonic) 권리다. 안티고네가 보여준 5세기의 비극적 영웅주의는 전이되어 동시대적 장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녀는 희생, 인내, 도덕적 인품(integrity) 등 최고의 인간주의적 이상들(humanist ideals)의 일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의 개인적 신념에 대해 보이는 충실성은 억압자에 대항할 용기를 주고 그녀 삶을 넘어서까지 그녀가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게 해준다.²²¹⁾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벌인 아곤은 크레온의 권위를 약하게 만들어 급기야 크레온 자신마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안티고네의 옹호는 5세기 당시의 매장 풍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족법과 풍습을 기반으로 한 안티고네의 주장은 크레온의 정치적 권위를 위기로 몰고 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르케크는 인간주의적 이상들이야말로 안티고네가 벌인 투쟁의 핵심 골자라고 주장한다. 안티고네의 깨끗한 태도와 희생, 인품은 안티고네의 혈통에 대한 애착이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얻는 데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베르케크는 안티고네를 혈족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주의적 이상을 발하는 비극적인 영웅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비극적 영웅으로서의 안티고네는 뚜렷한 한계를 내보이기도 한다. 우선 다분히 전통적

221) “Heroism in Sophocles’s Antigone”, pp. 5.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아곤주의적 안티고네는 인간주의적 가치(humanistic value)를 설파하는 데 그친다. 베르케크의 안티고네는 자신의 인간주의적 이상을 내비쳐 크레온과 코러스 그리고 테베 시민을 감화하고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려고 한다. 안티고네는 말하자면 공적인 담론의 장에서 이상적이고 적절한 영웅으로서의 모습으로 정치적인 논변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²²²⁾ 그러나 이러한 영웅주의는 자칫 보수적인 가치 체계에 가까워질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인 파급을 가져오지 못한다. 가족주의와 희생, 인내, 용기, 도덕적 인품 등은 개인을 규제하는 도덕적 가치를 표방하는 안티고네는 라캉의 윤리 정반대에 서게 된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영웅으로서의 안티고네는 특정한 한계에 갇히고 마는가?

비극 속의 형상 안티고네는 크레온과의 아곤에서 보여준 대결 구도에서 그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승정은 베르케크와는 달리 안티고네로부터 “신념을 위해 죽음에 맞서는 숭고한 행위”²²³⁾를 읽어낸다. 자신의 뜻을 위해 죽음도 감수하는 안티고네는 “계속되는 잔학행위에 부당하게 희생되고 묻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²²⁴⁾ 하는 파급력을 지닌 인물이 된다. 특히 체제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체제순응자들의 사고도 일깨워야 한다.”²²⁵⁾는 지적은 안티고네에게 부과된 정치적인 파급의 의무를 돌아보게끔 한다. 보니 호닉 또한 크레온과 논쟁하는 안티고네를 통해 ‘교란적인 탄생(promiscuous natality)’이라는 정치적 가능성을 읽어내기도 한다.²²⁶⁾

222) 비극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의 가능성을 탐구한 저작으로는 다음을 참고. 김진경, 『그리스 비극과 민주 정치』, 안티쿠스, 2019.

223) 「『안티고네』에 나타난 아곤의 의미」, pp. 65.

224) 우승정, 「안티고네 되살리기: 『안티고네 프로젝트』와 민주주의」, 『영어영문학연구』, 제 60권 4호, 2018, pp. 155.

225) 「안티고네 되살리기: 『안티고네 프로젝트』와 민주주의」, pp. 140.

226) 보니 호닉이 전통적인 이상주의적 가치관보다는 버틀러와 라캉 등을 참조해 비극 속 안티고네를 새로이 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Bonnie Honig, *Antigone, Interrup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Bonnie Honig, “Antigone, After the Fall”,

버틀러와 지젝이 현대적으로 해석²²⁷⁾한 안티고네와 자신의 신념을 지닌 비극적인 영웅 안티고네 모두는 정치적인 행위자로 해석될 수 있다. 버틀러와 지젝이 폭력적인 권력 체계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면 비극적인 영웅 안티고네는 체제에 맞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적 행위자로 나설 수 있는 영웅 안티고네는 개인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할지 모르는 위험성에도 버틀러와 지젝의 안티고네를 보충한다. 안티고네가 체제를 흔드는 불온한 이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눈앞의 설득 대상인 시민들이다. 테베 시민들 가운데는 크레온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이도, 크레온의 결정을 따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크레온 앞에서 나라의 반역자로 몰린 안티고네는 바로 그러한 시민들을 마주해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파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다면 버틀러와 지젝, 라캉의 해석 그리고 아곤주의적인 해석을 거쳐 다시금 『안티고네』를 읽어볼 수 있다. 살펴보았듯 두 이론가가 해석한 안티고네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인물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 인물을 마주해 파장을 미치는 자는 비극 영웅으로서의 숭고한 안티고네다. 영웅 안티고네는 크레온과의 아곤에서 경쟁하여 크레온을 비롯한 테베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파장을 남긴다. 그러면 풍부한 해석들과 심지어는 지젝의 각색까지 부른 안티고네의 파장에 주목하여 현시대의 유의미한 정치적 행위자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²²⁸⁾를 이어나갈 수 있다. 안티고네가 남긴 정치적인 저항과 그 가능성 및 파장을 중심으로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ordrecht, Published Online: 6 August, 2014, pp. 333, Bonnie Honig, “The Antigone Effect: and The Oedipal Curse: Toward a Promiscuous Natality”, *philoSOPHIA*, Volume 5, Number 1, Published b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5, pp. 47.

227) 동시대와 안티고네를 엮어 사유하려는 최근의 논의로는 다음이 있다. 유종호, 『그 이름 안티고네』, 현대문학, 2019.

228) 지젝의 안티고네 각색 또한 안티고네를 현대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는 서문에서 현대적 각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Antigone(2016)*, pp. xii–xxv.) 지젝의 안티고네 각색은 『엘렉트라』, 발터 벤야민, 폴 클로델의 『인질』 등을 참조했다. 비극 원전이나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충실성을 고수하기보다 원전을 비틀어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고자 한 것이다.

『안티고네』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그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러한 관점에서 안티고네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안티고네가 벌이는 논쟁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티고네가 크레온의 칙령을 어긴 정치적 행위자로서 가장 확연히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가 크레온에 대항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테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다. 그녀의 정치적인 행위는 테베라는 도시의 정치적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과 타격을 받는 이는 크레온이다. 그렇기에 소포클레스의 비극 텍스트에서 안티고네가 크레온과 대립하는 장면과 죽음을 맞기 전의 마지막 연설²²⁹⁾은 단연 중요하다. 이 대목들은 “압제적 법과 제도를 이용한 폭력”이 도사리는 “현대 민주주의”²³⁰⁾에서 안티고네가 미칠 수 있는 과장을 정립할 수 있게 해 준다.

비극의 첫머리부터 안티고네와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이스메네²³¹⁾는 자신의 자매를 “싸늘한 일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분별없이 나아가는”²³²⁾ 존재로 규정한다. 크레온의 남성적 권위에 수긍하는 이스메네가 보기에 안티고네는 문제적인 욕망을 보이는 인물이다. 이스메네는 안티고네를 만류하며 그녀의 욕망에 대한 충격과 놀람을 감추지 않는다. 이때 폴리네이케스를 묻고자 하는 안티고네의 욕망은 가족에 대한 애착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스메네의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 크레온의 칙령을 구태여 어기려고 하지 않는 이스메네가 보기에 크레온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안티고네는 놀랍고도 두려운 존재다. 이스메네는 안티고네가 계획하는 행위를 “불가능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분별없이 나아가고 있다고”²³³⁾ 충고한다. 안티고네는 이스메네가 자신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음을 확인할 따름이다.²³⁴⁾

229) *Antigone*, line 441–525.

230) 「안티고네 되살리기: 『안티고네 프로젝트』와 민주주의」, pp. 154.

231) *Antigone*, line 1–99.

232) 『안티고네』, pp. 126–7. (*Antigone*, line 88–99.)

233) *Ibid*, pp. 126–7. (*Antigone*, line 92, 98–9.)

234) 이러한 이스메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녀가 안티고네의 공범임을 자처하는 결단 또한 주목해볼 수 있다. 이스메네는 안티고네와는 상반되는 비교적 전형적인 인물인 동시에 이후에는 안티고네와 함께 고통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안티고네의 결연함이 가장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것은 크레온의 심문 앞에 서면서이다. 자신의 원칙으로 인해 테베가 안전하고 위대한 곳으로 거듭났다는²³⁵⁾ 크레온의 강고한 자기 확신은 안티고네와의 대면에서 흔들린다. 폴리네이케스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확신에 안티고네는 오히려 자신의 옳음을 강변한다.

크레온

이 짓을 금하느라 포고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안티고네

그래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했으니 말이에요.

크레온

그런데도 감히 이 법령을 위반했단 말이나?

안티고네

[. . .]

하지만 지금 내가 당한 일은 괴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지금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다 잡힌 것 같다면,

저는 말하자면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셈이지요.²³⁶⁾

크레온의 추궁에 안티고네는 신의 법을 내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티고네의 태도다. 그녀는 당당하고 꼳꼳한 자세로 크레온을 어리석다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안티고네는 크레온에게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긍휼히 여겨달라 청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녀를 특징짓는 중요한 지점은 크레온과의 아곤에서 물러서지 않는 안티고네의 태도다.

이러한 태도에 주목해 볼 때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에 대해 애도하는 이일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항변하는 투사이기도 하다. 안티고네가 폴리네이케스를 덮어준 행위는 망자의 상실을 기리고 나름의 방식대로 이를 소화하는 과정의 일부다. 하지만 이러한 망자 애도는 정치적인 목소

그러나 안티고네의 만류와 거부로 이스메네의 과감한 행동은 자매에 대한 연민으로 이내 바뀐다.

235) *Antigone*, line 191.

236) 『안티고네』, pp. 146-7.

리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²³⁷⁾ 안티고네는 크레온에게 절절한 목소리로 애도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크레온을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독재자”²³⁸⁾로 규정한다. 나아가 안티고네는 테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동조할 것이라 확신한다.²³⁹⁾ 홍민선은 이런 안티고네를 폴리네이케스 “매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시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²⁴⁰⁾ 전제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안티고네는 크레온이나 테베 시민들에 대해 애도할 권리를 달라고 호소하기는커녕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다. 테베를 위해 통치한다는 크레온의 자기 확신과 옳음이 안티고네의 확신과 맞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이스메네와 하이몬 모두 안티고네의 편을 들게 되며 심지어 하이몬은 일부 테베 시민들이 안티고네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말한다.²⁴¹⁾ 비록 표면적으로는 안티고네가 일방적으로 크레온의 심문을 받고 있지만, 그녀의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조짐이 드러난다. 결연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크레온을 비난한 안티고네는 특정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안티고네적인 효과는 크레온의 권력과 권위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녀가 미친 파장은 크레온의 몰락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기실 크레온의 몰락은 그녀의 마지막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만가(dirge)’에서 예고된다.

안티고네

내가 어머니로서 낳은 자식 중의 누군가 죽거나

237) 보니 호닉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약화의 사례로 마이클 무어(M. Moore)의 <화씨 9/11>(*Fahrenheit 9/11*, 2004)을 참고한다. 아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여성은 백악관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녀의 아들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사망하지 않았냐는 반박에 마주한다. 공동체적 차원에서 애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곧 힘을 잃게 된다. 그에 비해 안티고네는 자신의 옳음과 크레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는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Antigone, Interrupted*, pp. 33-4.)

238) Ibid, pp. 149.

239) Ibid, pp. 149.

240) 홍민선, 「안티고네의 선택과 마지막 연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31.

241) *Antigone*, line 691-700.

내 남편이 죽어 썩어가고 있다 해도,
 결코, 시민들의 뜻을 거슬러 이런 노고를 감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을 잃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하데스에 누워 계시니,
 과거에 태어난 오라비는 다시 있을 수 없지요.
 그런 법에 따라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존경했지만,
 그것이 크레온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엄청난 일을 감행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소중한 오라버니여.
 그래서 이제 그가 나를 이렇게 완력으로 붙잡아 끌고 가고 있어요.
 [. . .]
 경건하게 행동하고서 불경죄를 얻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신들에게 좋게 보인다면,
 나는 고통받으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겠지요.
 하지만 저들이 잘못했다면, 저들이 내게 부당하게
 저지른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²⁴²⁾

크레온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일을 저지른 안티고네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²⁴³⁾한다.

안티고네는 자신이 옳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대체불가능성(irreplaceability)’을 전면에 내세운다.
 폴리네이케스는 다시 얻을 수 없기에 애도를 감행했다는 안티고네가 든
 이유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안티고네가 내세우는 이유는 사실 인타프레
 네스(Intaphrenes) 아내의 일화를 변주한 것이다. 헤로도토스
 (Herodotos)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타프레네스는 크레온과 여러모로
 유사한 다리우스 1세에 의해 처형된다. 다리우스 1세가 인타프레네스의
 반역을 의심해 인타프레네스 가문의 남자 일족을 모두 처형하려고 하자
 인타프레네스의 아내는 성벽에서 구슬피 울고 다리우스 왕은 그녀에게
 남동생과 아들 중 한 명을 살릴 잔인한 기회를 준다. 인타프레네스의 아

242) 「안티고네의 선택과 마지막 연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pp. 47, 54-5.

243) Ibid, pp. 49.

내가 남동생의 유일무이함을 강조하자 다리우스 왕은 탄복하여 그의 아들까지 살려준다.

보니 호닉은 미래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인타프레네스 아내의 선택을 높게 평가한다.²⁴⁴⁾ 하지만 인타프레네스의 아내는 다리우스 1세의 권위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녀는 『천일야화』의 세헤라자데처럼 왕에 대한 간청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바를 얻어낸다. 그리고 그 결과 다리우스 1세는 그녀의 간청으로 인해 자신의 관대함과 공정함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다리우스 왕은 사적인 영역의 고통에 반응하고는 이에 자비를 베푸는 관대한 왕이 되는 것이다.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던 다리우스 1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잃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 순간은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인타프레네스 아내는 다리우스 왕에게 결코 항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과 애도 요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바란다.

바로 그렇기에 인타프레네스의 아내와 다리우스 1세는 안티고네와 크레온과는 확연히 다른 관계를 형성한다. 다리우스 1세는 크레온처럼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끝내 자신의 권위를 위협받지 않는다. 반면 크레온은 계속된 이의 제기를 당한 끝에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안티고네가 양망하던 바를 완수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간다. 안티고네의 저항이 일으킨 반항은 크레온의 완전한 실패와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안티고네가 일으킨 파장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등장하여 비통히 부르는 만가를 부르는 순간에 특히 잘 담겨 있다. 토굴에 끌려가기 직전 그녀는 테베 사람들을 향해 절절히 말을 건다.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존

244) 기본적으로 호닉은 다리우스가 계산 불가능한 고통을 자신만의 거래로 계산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본다. 인타프레네스 가문의 성인 남자들을 모두 처형하려다 며칠째 구슬피 울던 그의 아내에게 한 명을 살려주겠다며 거래를 시도한 다리우스에게 훌륭히 대응했다는 것이다. 다리우스와 크레온 모두 국가의 반역자를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고 했지만, 인타프레네스는 다리우스를 잘 구슬려 자신의 만아들까지 구해냈기에 훨씬 가시적인 미래의 여지를 남겨 안티고네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호닉은 분석한다. Bonnie Honig, *Antigone, Interrup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138-139.

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시야로부터 배제되기를 원해 토굴로 보내지만, “안티고네를 끌어내는 행위는 곧장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모든 게 ‘얼어붙은 듯’ 잠시 중단된다.”²⁴⁵⁾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유예의 순간을 얻은 안티고네는 테베 사람들에게 자신 최후의 연설을 전한다. 연설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위와 애착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한다거나 자신을 무조건 옹호하고 있지 않다. 905행과 910행 사이를 보면 안티고네는 시민들의 뜻을 거론한다. 그녀는 자신이 감행한 행위가 호의적인 반응만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이제는 잘 인지하고 있다. 일부 테베 시민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안티고네는 물러서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 설득하려고 한다.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에게 마지막 존중을 표하고 싶었지만 그 소소한 시도조차 크레온에겐 테베의 질서를 위협하는 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크레온의 인식과는 달리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의 권력 야망이나 테베 침공을 옹호하지 않는다.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에서 그녀는 폴리네이케스의 침공 계획을 만류한 바 있다.²⁴⁶⁾

그럼에도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에 버금가는 가공할 죄인의 취급을 받는다. 안티고네의 소박하면서도 담담한 요구는 크레온의 폭력적인 반응 및 조처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도시의 혼란을 야기한 존재로 규정하지만 그녀는 그저 폴리네이케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안티고네의 항변은 현대의 보수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내재해 있는 폭력성을 드러내 보인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안티고네는 크레온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잘못된 인식과 질서 수호에 대한 강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안티고네는 마지막 연설에서 크레온의 폭압적 면모와 그가 유지하려고 하는 질서가 다르지 않음을 테베 시민들에게 주장한다. 그리고 924행에 이르러 그녀는 자신의 경건함과 포용력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부당

245) 「안티고네의 선택과 마지막 연설」, pp. 42.

246) *Oedipus at Colonus*, line 1414-1445.

한 일을 저지른 크레온과 이를 목인한 테베의 시민들을 안티고네는 마땅히 포용한다. 그녀의 면모는 다시금 편협한 크레온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으로 그녀의 정치적 수행에 힘을 실어준다.

안티고네의 정치적인 발화와 수행의 가능성은 살펴본 바처럼 불온하다고 규정된 그녀가 옳음을 강변하고 시민들에게 말을 걸 때 확보될 수 있다. 그녀의 존재감은 폴리네이케스나 가족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크레온과의 ‘아곤적 관계(agonistic relationship)’에서 그 빛을 발한다. 크롭(Cropp)의 분석처럼²⁴⁷⁾ 안티고네의 마지막 연설은 모두에 대한 연설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발화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그로 인해 크레온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그녀의 최후 연설은 테베 시민을 향한 정치적인 발화로 궁극적으로는 크레온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크레온의 판단과 결정은 계속해서 무위로 돌아간다. 이스메네를 공범으로 몰고 가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그 이후 하이몬과 테이레시아스는 안티고네의 행위를 옹호한다. 안티고네에 대한 크레온의 불안감은 무서운 현실이 되어 그를 뒤흔든다. 결국, 안티고네는 시민들에게 크레온의 칙령에 맞선 저항적인 의지를 관철해 보인 인물이다. 그녀가 미친 영향력은 심지어 그녀의 죽음 이후까지도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과장을 미친 안티고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로 그녀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이상이나 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크레온과의 선명한 대결 구도를 형성해 그의 권위를 실추한다. 안티고네는 앞서 인타프레네스의 아내가 보여준 것처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민으로 간청하는 수동적인 역할로 안주하지 않는다. 도리어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지키려고 하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질서에 도전한다. 그녀는 심문 앞에서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결연한 태도를 내비친다. 안티고네의 이러한 태도는 크레온의 것과 대비를 이루며 그녀가 불러올 과장을 예고한다. 오이디푸스는 부지불식간에(unknowingly) 과국으로 치달았던 반면에 크레온은 모든 상황을 알고

247) Cropp, M., “Antigone’s final speech(Sophocles, Antigone 891–928)”, Greece & Rome vol. 44, 1997, pp. 137–160.

있었음에도 몰락하고야 만다.

두 번째로 과장을 미친 자로서의 안티고네는 버틀러와 지젝의 해석에 생산적인 보충물로 작용할 수 있다. 안티고네를 기존의 담론 체계 내 수행자로 보는 버틀러와 민중의 봉기를 촉발한다고 본 지젝 모두 안티고네를 정치적인 행위자로 보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두 가지 판본의 해석은 안티고네라는 인물과 테베 시민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미친 과급력의 문제를 남긴다. 테베 시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겪은 인물은 크레온과 코러스다. 안티고네는 크레온과의 대립 구도에서 자신의 옳음을 강변하여 크레온의 정치적 권위를 약화시킨다. 버틀러와 지젝이 정치적 변화의 순간을 모색했다면 안티고네는 그 순간의 전면에서 크레온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크레온은 종국에 이르러 자기 확신을 잃고 아들과 아내마저 상실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직설적으로 말하며 크레온의 몰락에 개입하는 인물이 코러스다.

코러스

보라, 여기에 왕이 직접 오셨도다,
그 손에 확연한—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기념물을 지니고서, 그것은 다른 이에게서 비롯한
피해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로다.

크레온

아아,
어리석은 생각의 완고함이며,
죽음을 부르는 오류여!
오, 죽인 자도 죽은 자도
한 가문에 속하는 것을 보는 이들이여!
아아, 나의 결정들 중에서도 불행한 결정이여!
아, 아들아, 때 이른 죽음을 택한 젊은 것아!
아이아이, 아이아이,
너는 죽어서 스러졌구나,
너 아닌 나의 어리석음 탓에!

코러스

아아, 너무 늦게야 정의를 보신 듯하군요!

크레온

아아,

나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구나!²⁴⁸⁾

코러스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나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는 시인의 대변자로 볼 수도 있다. 일례로 지젝은 소포클레스의 텍스트에서 코러스는 “멍청한 상식과 같은 지혜의 전달자(the purveyor of stupid commonplace wisdom)”²⁴⁹⁾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크레온 옆에서 그를 보좌하는 테베의 원로들인 코러스는 크레온의 권력 기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지젝의 비판처럼 코러스는 상황을 정리하고 교훈을 전달하는 등 권력자 옆의 조언자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와 같은 코러스의 면모는 비극 텍스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된다. 도시의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는 코러스를 “테베의 왕들”(988행)이라 불렀으며, 안티고네는 “테베의 지도자들”(940행)이라고 코러스를 지칭한다. 하지만 비극 속에서 코러스는 교훈의 전달자라는 역할로만 머물지 않는다. 비극의 말미에 이르러 크레온의 실착을 지적하는 것은 코러스다. 심지어 코러스는 안티고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테베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²⁵⁰⁾ “극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는 모습”²⁵¹⁾ 보여주는 코러스는 크레온에서 안티고네의 편으로 이행한다.

코러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그가 비극의 끝에서 크레온의 부당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정의를 말한다는 데 있다. 사건의 발단부터 계속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코러스는 크레온의 부당함과 안티고네의 정의에 힘을 실어준다. 이데올로기적이거나 혁명적인 대리자로 볼 수 있는 지젝의 코러스와는 달리 코러스를 모든 것을 지켜봤던 테베

248) 『안티고네』, pp. 194-5. (*Antigone*, line 1257-1276.)

249) *Antigone*(2016), pp. xxiv.

250) 『안티고네』, pp. 168. (*Antigone*, line 806-822.)

251) 김성원,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등장인물로서 코러스의 다중적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9, pp. 84.

시민의 일원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테베의 원로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은 안티고네와 너무 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크레온을 테베 시민들과 함께 속속들이 지켜본 것이다. 안티고네의 저항과 그 파장은 현명하고 진중한 원로 집단에 지나지 않던 코러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의는 안티고네의 편에 있게 된다.

버틀러와 지젝의 안티고네론이 제기하는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은 통치자로서의 권위가 무력화된 크레온의 형상과 대리자로서의 코러스라는 문제적인 지점들을 남겼다. 안티고네의 저항은 다양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코러스와 크레온에게서 그 영향은 두드러진다. 먼저 테베의 안전을 내세우는 크레온은 다리우스 1세와는 달리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 크레온과의 아곤에서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편협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성과는 대비되는 방식의 수행 방식으로 그의 정치적 권위를 미약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코러스는 크레온의 편에서 있던 안정적인 테베의 원로 집단에서 벗어나 크레온의 잘못을 지적하고 안티고네의 편에 서게 된다. 모든 일의 추이를 지켜본 코러스의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이다. 권력자를 보좌하던 그의 태도 변화는 체계의 변혁에 앞서 오는 조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크레온과 코러스에게 지울 수 없는 불온한 파장을 남긴 이는 안티고네다. 이러한 안티고네의 면모에 주목할 때 버틀러와 지젝이 사유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변모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안티고네』와 동명의 주인공 안티고네 형상은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을 매혹해 왔다. 안티고네는 무모할 정도로 크레온의 칙령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적대(antagonism)’라거나 어떠한 권위와 명령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에는 그녀의 자취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버틀러와 지젝의 『안티고네』 해석은 그러한 안티고네의 흔적을 다시금 발굴한다. 특히 두 사람은 현시대의 정치적 지형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문제 및 쟁점들을 펼쳐 보인다. 버틀러와 지젝 모두 『우연성, 해계모니, 보편성』에서 신자유주의적인 현행 질서로부터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 바 있다. 즉, 두 이론가의 『안티고네』 해석은 현대의 사회적 질서에 대한 저항을 세밀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안티고네는 두 이론가에 의해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물로 해석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이론가는 『안티고네』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명료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에게서 복종과 일탈이 뒤섞인 양가적인 수행의 가능성을 본다. 그녀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주어진 담론 체계에 포획된 가운데서도 저항을 모색하는 정치적인 주체다. 또한, 안티고네의 애도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다양한 위태로운 삶의 양태들을 향하는 관심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젝은 버틀러의 안티고네가 자유주의 체계의 질서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가 대안으로 소환하는 안티고네는 체계의 균열을 가져오게 되는 인물이다. 지젝의 괴물 안티고네는 테베 권력 체계의 모순을 더욱 극대화하여 민중 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이렇듯 두 이론가는 안티고네라는 형상으로부터 다소 다른 양상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읽어낸다.

이처럼 『안티고네』라는 비극 텍스트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촉발할 잠재성을 품고 있다. 한편 두 이론가가 남긴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적인 지점은 크레온과 코러스다. 크레온과 코러스는 안티고네가 비극적 최후를 감수하면서 남긴 정치적인 과장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버틀러와 지젝이 안티고네로 촉발될 수 있는 체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안티고네』 텍스트는 안티고네가 미치는 과장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국가 체계의 안정을 위해 사적인 통제를 강요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결연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오빠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애도를 말하지만, 공적인 논쟁 및 경쟁의 장인 아곤에서 안티고네는 종국에 가서는 크레온을

파멸로 내몬다. 이러한 정치적 수행자로서의 안티고네는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준다. 안티고네는 사적인 영역의 애도에서 출발하여 공적인 질서를 표방하는 크레온에 맞선 저항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코러스 또한 안티고네의 정치적 수행과 그로 인한 파장으로 인해 극적으로 변모한다. 정치적인 원로 집단 코러스는 비극 서사 속에서 절충적인 입장을 택해 왔다. 안티고네와 크레온, 하이몬, 테이레시아스, 경비병 등에 대해 한 발자국씩 떨어져 객관적인 논평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다 코러스는 끝 무렵에 가서 안티고네의 편에 서서 정의를 논하기에 이른다. 코러스는 크레온을 보좌하는 조언자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테베 시민의 일원들로서 말하기 시작한다. 하이몬이 언급한 테베의 민의는 코러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이다. 자신의 저항적 행위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파장을 만들어낸 안티고네라는 버틀러와 지젝이 탐구하고자 하는 정치성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충한다.

현대의 이론은 주체와 ‘행위성(agency)’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주체의 수동성과 구성됨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주체는 사회적 구조와 담론 체계에 의해 구성되고 그 구조적 한계 내에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버틀러와 지젝의 논의도 구조적인 한계 혹은 냉전 이후라는 현재의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두 이론가에게 안티고네 형상은 기존 질서와 체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 권력 질서에 대한 복종과 예속에 대한 구조적인 욕망이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안티고네의 불온한 실천과 파장은 정치적인 가능성에 대한 사유를 촉진하다. 안티고네는 체계의 안정성을 흔드는 불온한 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비평적 이론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녀의 저항이 미친 파장은 현대 비평 이론의 탐구와 물음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유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지젝의 저작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_____.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Enjoyment as a
Political Factor*. London: Verso. 1996.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pp. 18.)

_____. *The Indivisible Remainder: Essays on Schelling and
Related Matters*. London: Verso. 1996. (이재환 역.
『나눌 수 없는 잔여』. 도서출판 b. 2010.)

_____. *The Ticklish Subject*. London: Verso. 1999.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 b. 2005.)

_____.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London: Verso.
2000. (주디스 버틀러,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슬라보예
지젝 공저. 박대진 역.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도서출판 b. 2009.)

_____. *Iraq: The Borrowed Kettle*. London: Verso. 2004.
(박대진 역. 『이라크』. 도서출판 b. 2004.)

_____. *Antigon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6.

(2) 버틀러의 저작

-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 동네. 2008.)
- _____.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1993.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 _____.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유민석 역. 『혐오 발언』. 알렙. 2016.)
- _____.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97. (강경덕, 김세서리아 역. 『권력의 정신적 삶』. 그린비. 2019.)
- _____. *Antigone's Claim: kinship between life and dea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조현순 역.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 _____.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London: Verso. 2000. (주디스 버틀러,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슬라보예 지젝 공저. 박대진 역.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도서출판 b. 2009.)
- _____. *Undoing Gender*. London: Routledge. 200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 2015.)

(3)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 소포클레스, 아이스퀼로스. 천병희 역. 『아가멤논, 코에포로이,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문예출판사. 2001.
- 소포클레스. 강대진 역.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아이아스, 트라키스 여인들』. 민음사. 2009.

Sophocles. Edited by David Grene and Richmond Lattimore. *Sophocles 1: Antigone, Oedipus the King, Oedipus at Colonu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소포클레스. 강태경 역. 『안티고네』. 홍문각. 2018.

(4) 기타

Frank Oz. *In & Out*. Paramount Pictures. 1997.
Edward Zwick. *The Siege*. 20th Century Fox. 1998.
Douglas Sirk. *All That Heaven Allows*. Universal Pictures. 1955.
Stanley Kubrick. *Dr. Strangelove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 Columbia Pictures. 1964.

2. 2차 자료

(1) 단행본

김진경. 『그리스 비극과 민주 정치』. 안티쿠스. 2019.
백상현. 『라깡의 인간학』. 위고. 2017.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성차의 문화 정치』. 문학동네. 2014.
이병창. 『지젝 라캉 영화 두 죽음 사이』. 먼빛으로. 2013.
이현우. 『로쟈와 함께 읽는 지젝』. 자음과 모음. 2011.
임옥희. 『주디스 베틀러 읽기』. 여이연. 2006.
임철규. 『그리스 비극, 인간과 역사에 바치는 애도의 노래』. 한길사. 2018.
조현준. 『젠더는 페러디다』. 현암사. 2014.
유종호. 『그 이름 안티고네』. 현대문학. 2019.
천병희. 『그리스 비극의 이해』. 인간사랑. 2002.

켈시 우드. 박현정 역. 『한 권으로 읽는 지젝』. 한길사. 2018.
크리티카 동인. 『크리티카 Vol. 3』. 사피엔스 21. 2009.
_____. 『크리티카 Vol. 4』. 도서출판 올. 20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
에디투스. 2019.

Bonnie Honig. *Antigone, Interrup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Jacques Derrida. trans. Peggy Kamuf. *Specters of Marx*. Routledge.
1994.

Jacques Lacan. trans. Dennis Porter.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13.

Samuel A. Chambers and Terrell Carver. *Judith Butler and Political
Theory*. Routledge. 2007.

(2) 학술 논문

강우성. 「‘문화번역’의 정치성」. 『크리티카 Vol. 4』. 도서출판 올. 2010.
_____. 「차이의 연대와 해체론의 운명」. 『안과 밖』. 제 18권. 2005.

김덕희. 「에우리피데스와 라신 비극 속 이오카스테와 안티고네—여성적
윤리와 여성적 주이상스」. 『세계문학 비교연구』. 제 46집.
2014.

김성우. 「급진 민주주의와 그 윤리적 기초에 관한 지젝의 헤겔주의적
비판」. 『시대와 철학』. 제 25권 1호. 2014.

김성호. 「보편성의 귀환—지젝의 다원주의 비판과 문학적 보편성」.
『크리티카 Vol. 3』. 사피엔스 21. 2009.

김숙현. 「위기의 시대 폭력과 그에 대한 사유 <미국 아버지>를

-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제 48호. 2016.
- _____. 「문학의 정치와 정치적 보편성」. 『크리티카 Vol. 4』. 도서출판 울. 2010.
- 김진숙, “Performing Gender and the Death Drive”. 『종교와 문화』. 제 27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2014.
- 남용. 「젠더 재현에 관한 비판적 연구—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박선영. 「라캉과 버틀러, 위반과 전복의 담론—성 정체성, 젠더 멜랑콜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 14권 1호. 2012.
- 서유경. 「버틀러의 ‘수행성 정치’ 이론의 정치학적 공헌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제 19집 2호. 2011.
- 안상연. 「이데올로기적 환상과 실재—코맥 맥카시의 『로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 61집. 2016.
- 양석원. 「욕망과 주이상스 사이: 라캉의 『안티고네』 읽기와 카타르시스의 윤리」. 『비평과 이론』. 제 22권 1호. 2017.
- 오지영.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을 통해서 본 주체의 가능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이선정. 「『안티고네』 독서를 통한 윤리적 주체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 제 23집. 2011.
- 이성민. 「정치와 미학」. 『정치와 평론』. 제 8집. 2015.
- 이윤성. 「지젝의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론 혹은 판타지와 유령을 가로지르기」. 『안과 밖』. 제 17권. 2004.
-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안티고네를 둘러싼 비평적 쟁투」.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11권 1호. 2003.
- 이현재. 「국가 검열 아닌 수행적 저항—주디스 버틀러」. 『혐오발언』 (유민석 옮김. 알랩. 2016). 『문학동네』. 제 89권. 2016.
-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 연구』, 제 8권 2호, 2016.
- 오미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혁명적 정치의 가능성 탐구—슬라보예

- 지젝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윤조원.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17권 1호. 2009.
- 민승기. 「지젝이라 불리는 공간」. 『인문학 연구』. 제 24호. 2013.
- 전혜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학페미니즘』. 제 19권 2호. 2011.
- 정예영. 「정신분석의 윤리—프로이트, 그리고 라깡」. 한국 라깡과 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4.
- 정혜옥. 「지젝의 외상과 바틀비의 정치학」. 『비평과 이론』. 제 17권 2호. 2012.
- 조주영.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 25권 4호. 2014.
- _____. 「인정의 정치—윤리학—호네프와 버틀러의 인정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 조현준. 「안티고네: 송고미에서 퀴어 주체로」. 『라깡과 현대 정신분석』. 제 8권 2호. 2006.
- _____.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버틀러의 『안티고네』 다시 읽기」. 『비평과 이론』. 제 24권 2호. 2019.
- 허성원. 「한국 퀴어퍼레이드와 정동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 홍민선. 「안티고네의 선택과 마지막 연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준기. 「욕망과 충동, 안티고네와 시뉴에 관한 라깡의 견해—슬로베니아 학파의 라깡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 20권 2호. 2009.
- Adrian Johnston. "The Exception and the Rule".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Vol. 12 Iss. 1. 2002.

- Bonnie Honig. "The Antigone Effect and the Oedipal Curse: Toward a Promiscuous Natality". *philoSOPHIA*. Vol. 1 No. 1. 2015.
- Chris Coffman. "Queering Žižek". *Postmodern Culture*. Vol. 23 Iss. 1. 2012.
- _____. "Antigone, After the Fall".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ordrecht*. 2014.
- Chris Coffman. "Queering Žižek". *Postmodern Culture*. Vol. 23 Iss. 1. 2012.
- Geoff Boucher. "The Politics of Performativity". *PARRHESIA*. No. 1. 2006.
- Graziella Durante. "The Melancholy of Social Life". *Humana Mente*. Iss. 12. 2010.
- John Seery. "Acclaim for Antigone's Claim Reclaimed (or, Steiner, contra Butler)". *Theory & Event*. Vol. 9 Iss. 1. 2006.
- Judith Butler. "Sovereign Performatives in the Contemporary Scene of Utterance". *Critical Inquiry*. Vol. 23 No. 2. 1997.
- _____. "Foucault and the Paradox of Bodily Inscrip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86 No. 1. 1989.
- Moya Llyod. "Butler, Antigone and the State".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Vol. 4. 2005.
- P. Antonello & R. Farneti. "Antigone's Claim: A Conversation with Judith Butler". *Theory & Event*. Vol. 12 Iss. 1. 2009.
- Pierre Macherey. "Out of Melancholia: Notes on Judith Butler's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Rethinking Marxism*. Vol. 16 No. 1. 2004.

- Sarah de Sanctis. "From Psychoanalysis to Politics: Antigone as revolutionary in Judith Butler and Žižek". *Opticon1826*. Vol. 14. 2012.
- Stuart Elden. "The Place of the Polis: Political Blindness in Judith Butler's *Antigone's Claim*". *Theory & Event*. Vol. 8 Issu. 1. 2005.
- Terada Randall. "Subjective Dispossession and Object A: A Critique of Judith Butler's Relational Ontology from a Lacanian Perspective". Yor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 Valerie Hey. "The Politics of Performative Resignification: Translating Judith Butler's Theoretical Discourse and Its Potential for a Sociology of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7 No. 4. 2006.
- Willow Verkerk. "Heroism in Sophocles's *Antigone*". *Philosophy and Literature*. Vol. 38 Issu. 1. 2014.

Abstract

Antigone's Resistance and Pos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Theory:
The Comparative Study of
Judith Butler and Slavoj Žižek

Haewoong J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ragic protagonist Antigone has fascinated a variety of readers so far. As a result, Antigone's resistance and self-vindication precipitated various kinds of interpretation. Theorists also have had their part in interpreting Antigone's resistance. Among others are Judith Butler and Slavoj Žižek who portrayed Antigone in light of political possibilities in the contemporary era.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Butler's interpretation of Antigone and that of Žižek. The two theorists' critical relationship offers good opportunities to contemplate on

some crucial points of politics.

Butler's *Antigone* is melancholic subject. This version of *Antigone* took its loss object as Polyneices and subverts the sovereign authority which is based on traditional gender system. Butler further argues that *Antigone* is representative of 'precarious live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her theoretical purpose to secure political possibilities within predominant discursive system, the very condition of intelligibility, is reflected on *Antigone*. However, Žižek made a critique of Butler's political possibilities in that they are bound with cultural ideologies of global capitalism.

Meanwhile, Žižek's *Antigone* is monstrous being. In his pursuit of ideological traversal, Žižek claims that we ought to realize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modern, capitalistic ideologies and the subject. In an attempt to respond to Butler's *Antigone*, he created his own version of *Antigone*. Žižek's adaptation of *Antigone* with diverse cultural reference provides a portrayal of *Antigone* whose clinging to the chthonic law unravels instability and political upheaval of Thebes. Although Butler's critique on Žižek regarding the concepts of the symbolic and real, this thesis tries to demonstrate through Žižek's explanation of ethics the coincidental convergence in terms of their objectives.

After comparing the two theorists' appropriation of *Antigone*, it is quite suitable for re-reading *Antigone* with their theoretical purpose. Butler's version of *Antigone* does not sufficiently deal with the debility of Creon's political authority while that of Žižek presents the abrupt change of Chorus without much detail. If that's the case, Creon and Chorus can be conceived as the very

characters influenced by Antigone's political ramification. When Antigone keeps reemerging with her ramification in the vein of specters of Marx, the political possibilities of this contemporary era becomes more so visible. Antigone's ramification is still awaiting us.

keywords : Antigone, Politics, Performativity, Melancholia, Traversal, Ramification

Student Number : 2017-22544